

**O‘ZBEKISTON RESPUBLIKASI
OLIIY TA’LIM, FAN VA INNOVATSIYALAR
VAZIRLIGI**

**TOSHKENT DAVLAT SHARQSHUNOSLIK
UNIVERSITETI**

DILFUZA ABBASOVA

**우즈베크어·한국어 번역에 나타난
복합문의 특성 연구**

Monografiya

Toshkent – “Donishmand ziyosi” – 2024

UO'K 811.512.133+811.531:81'25+81'36

KBK 81.2-2(5Uzb)(5Kor)

A-13

Mas'ul muharrir:

Kim Seon Jung – *PhD, professor*

Taqrizchilar:

Yunusova Gulshoda Dilshadovna – *filologiya fanlari bo'yicha falsafa doktori (PhD), dotsent*

Dilnoza Kalanova – *filologiya fanlari bo'yicha falsafa doktori (PhD), professor*

Abbasova, Difuza.

O'zbek tilidan koreys tiliga tarjimada qo'shma gaplarni berishning o'ziga xosliklari [Matn]: monografiya / D.Abbasova. – Toshkent: "Donishmand ziyosi", 2024. – 144 bet.

Mazkur monografiya O'zbek tilidan koreys tiliga tarjimada qo'shma gaplarni berishning o'ziga xosliklari tadqiqiga bag'ishlangan. Unda Koreys va o'zbek tillaridagi qo'shma gaplarning turlari va qurilish usullarini taqqoslash hamda o'zbek talabalariga tarjima jarayonida koreys tilidagi qo'shma gaplarning o'ziga xos xususiyatlari kabi jihatlar yoritib berilgan. Ushbu monografiyadan tadqiqotchilar, magistrantlar, talabalar, shuningdek, keng kitobxonlar ommasi foydalanishi mumkin.

Monografiya Toshkent davlat sharqshunoslik universiteti Kengashining 2023-yil 29-dekabrda 5-sonli majlisi bayoni asosida nashrga tavsiya etilgan.

ISBN 978-9943-6489-9-9

© Abbasova D.K., 2024

© "Donishmand ziyosi", 2024

*Ushbu monografiyamni (ikki dunyo
saodatini) umrlari ziyoda bo'lishini tilagan
holda aziz va mehribon volidai muhtaram
Yuldasheva Marg'uba Melievnaga bag'ish-
layman.*

1. 서론

1.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본 연구는 한국어와 우즈베크어의 복합문의 유형과 구성 방식에 대해 대조해보고 우즈베키스탄인 학습자의 우즈베크어·한국어 번역에 나타난 한국어 복합문의 특징을 살펴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는 한국어와 우즈베크어 모두에 복합문이 있으나 복합문을 구성하는 방식이 상이하여 우즈베키스탄인 학습자들이 한국어 복합문을 만들 때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기 때문이다.

1991년 이후 대한민국과 우즈베키스탄이 외교 관계를 수립하게 되면서 우즈베키스탄 현지에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되었다. 그로 인해 우즈베키스탄의 여러 대학교에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를 교육하기 시작하였다. 타슈켄트 국립 동방대학교, 타슈켄트 국립 외교경제대학교, 타슈켄트 국립 세계 언어대학교, 사마르칸트 국립 외국어대학교와 같은 대학에서 한국어를 전공, 부전공, 혹은 교양 과정으로 개설하여 운영 중이다. 이중 타슈켄트 국립 동방대학교의 경우에는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학과를 개설하여 운영 중이기도 하다.

우즈베키스탄에서는 대학 뿐만 아니라 한국학교와 세종학당에서도 한국어 교육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1992년 5월에 개설된 타슈켄트 한국교육원 소속 49개의 한국학교에서 3,315명의 학생이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다. 또한, 2019년 9월을 기준으로 2개의 세종학당이 운영 중이며 우즈베키스탄 현지에서 한국어능력시험(TOPIK)을 치르는 지역도 네 곳이다. 우즈베키스탄 내 세종학당에서 한국어를 배우고 있는 학습자 수는 2,304명으로 세종학당이 개설된 국가 중 5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우즈베키스탄 내에서 한국어 교육이 활발해짐에 따라 한국으로 유학을 오고 있는 우즈베키스탄인 유학생 수도 증가하고 있다. 2020년 1월 30일 기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자료를 살펴보면, 우즈베키스탄인 유학생은 7,067명이며 한국어 연수생은 3,578명이다. 이러한 양적 팽창으로 인하여 한국어교육계에서도 우즈베키스탄인 학습자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고 이와 더불어 우즈베키스탄인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교육 관련 연구가 증가하였다(김유보비, 2009; 심현주, 김선정, 2015; 백연화, 2019; 안수현, 2019; 오현진, 2019; 공나형, 2020; 김용경, 2020; 딜푸자, 박덕유, 2020 등). 그러나 우즈베키스탄인 한국어 학습자들은 여전히 글을 읽거나 자신의 생각을 온전히 표현할 수 있는 문장 구성능력이 부족하여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필요로 하는 복잡한 텍스트를 읽고 이해하거나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글쓰기를 하지 못해 학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국어 학습자들은 단문으로 된 한국어 문장을 접한 후 점차 복잡한 구조를 갖는 복합문을 접하게 된다. 학습자들은 연결어미의 개별 의미를 이해하고 있으나 이것을 적절하게 사용하지 못해 긴 문장을 생성할 때 자신이 표현하고자 하는 바를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하기도 한다. 특히 전성어미를 사용하는 데는 더 큰 어려움을 겪는다. 연결어미와 전성어미는 복합문을 구성하기 위한 필수적인 문법 요소로서 복합문의 구성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갖는다. 그러나 한국어의 연결어미와 전성어미는 그 종류가 다양하며 하나의 형태가 다양한 의미를 갖는 경우도 있다. 반대로, 여러 형태가 같은 의미를 갖는 경우가 많아 한국어 학습자들이 연결어미와 전성어미를 바르게 사용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한국어와 우즈베크어는 알타이어족(Altaic Languages)에 속하며 두 언어 모두 SOV의 어순을 가진다. 따라서 두 언어는 공통된 언어학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형태적 측면에서는 두 언어 모두 교착어(Agglutinative Language)

로 어근(root)에 다양한 문법적 기능을 가진 조사나 어미들을 첨가하여 사용한다. 아래의 예문을 보자.

- (1) a. Men-Ø(주어) olma-ni(목적어) ye-di-m(서술어).
b. 나-는(주어) 사과-를(목적어) 먹-었-다(서술어).

위 예문 (1)을 보면 두 언어 모두 기본성분의 구성 순서가 ‘주어(S) + 목적어(O) + 서술어(V)’의 순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더욱이 주격 조사의 유무를 제외하고는 형태소 하나하나가 대응될 정도로 유사성이 높다고 하겠다. 그러나 복합문을 구성할 때는 두 언어에 차이가 있다. 한국어는 두 개 이상의 문장을 나란히 연결할 때는 연결어미를 사용하고, 문장 속의 문장을 구성할 때는 전성어미를 사용한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연결어미와 전성어미는 그 종류가 다양하며 하나의 형태가 다양한 의미를 갖는 경우도 있고, 여러 형태가 같은 의미를 갖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우즈베크어의 경우에는 두 문장을 연결할 때 어미를 사용하기도 하고 접속사나 쉼표(.)를 사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우즈베크어의 문법적 표지는 한국어만큼 다양하지 않다.

아래의 예문을 비교해 보면 한국어에서는 두 문장을 나열 관계로 연결할 때 연결어미 ‘-고’를 사용하는 반면 우즈베크어에서는 쉼표나 ‘va(-와/과, -고)’와 같은 접속사를 사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2) a. 바람이 분다. 비가 온다.
b. 바람이 불고 비가 온다.
c. 바람이 분다. 그리고 비가 온다.
- (3) a. Shamol es-yapti, (쉼표) yomg‘ir yog‘-yapti.
바람-Ø 분다, 비-Ø 온다.
b. Shamol es-yapti va (접속사) yomg‘ir yog‘-yapti.
바람-Ø 분다 그리고 비-Ø 온다.

한국어에서는 (2b)에서처럼 서술어인 ‘불다’에 연결어미 ‘-고’가 결합하면 두 문장이 하나의 문장이 된다. 그러나 (2c)와 같이 접속부사 ‘그리고’를 사용하더라도 하나의 문장을 구성하지 못하고 여전히 두 문장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예문 (3a)와 (3b)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우즈베크어의 경우 두 문장을 쉼표와 접속사 ‘va’로 연결하면 하나의 문장이 된다.

이처럼 복합문은 한국어와 우즈베크어 두 언어에 모두 있지만, 구성하는 방법이 서로 다르므로 우즈베키스탄인 학습자들이 한국어의 두 문장을 연결하여 하나의 문장을 만들 때 오류를 범하기 쉽다. 우즈베키스탄인 한국어 학습자의 글쓰기에서 자주 나타나는 오류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4) a. 나는 김밥을 먹었어요, 친구는 불고기를 먹었어요.
 b. 샤샤는 러시아 사람이에요. 카몰라는 우즈베크 사람이에요.
 c. *날씨가 추워서 문을 닫아줘.
 d. *내가 비싸다 옷을 샀어요.

(4a)와 (4b)는 ‘나는 김밥을 먹고 친구는 불고기를 먹었다’와 ‘샤샤는 러시아 사람이고 카몰라는 우즈베크 사람이다’라는 각각의 단문을 이은 것이다. 이 경우 나열 관계의 연결어미를 사용하여 한 문장으로 구성해야 하나 두 문장으로 나눠 쓰고 연결어미도 사용하지 않고 있다. (4c)의 경우 앞 문장이 뒤 문장의 이유를 나타내는 문장으로 이유·원인 관계의 연결어미인 ‘-아서/어서’로 복합문을 만든 것이다. 그러나 연결어미 ‘-아서/어서’는 ‘-(으)니까’와 달리 뒤 문장에 청유문이나 명령문이 올 수 없다는 제약이 있는데 학습자가 이러한 제약을 알지 못하여 일으킨 오류이다. (4d)의 경우에는 우즈베크어에서는 형용사가 그 자체로 뒤에 오는 명사를 수식할 수 있는 데 반해 한국어에서는 ‘-(으)ㄴ’과 같은 관형사형 전성어미와 결합해야 이러한 기능을 갖는다는 것을 알지 못하여 일으킨 오류이다.

이렇듯 한국어와 우즈베크어는 공통점이 많은 언어이기 때문에 우즈베키스탄인 학습자가 타 언어권 학습자보다 더 쉽게 한국어를 배울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위의 예문에서 보았듯이 중급 이상의 학습자들도 두 개 이상의 문장을 이어서 복합문을 생성할 때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와 우즈베크어의 복합문 구성 방식을 차이점을 중심으로 알아보고, 우즈베키스탄인 학습자들의 우즈베크어-한국어 번역에 사용된 복합문을 분석해 봄으로써 그 특징을 파악해보고자 한다. 이는 두 언어의 복합문의 특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우즈베키스탄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한국어 복합문 교육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1.2 선행 연구 검토

한국어와 우즈베크어를 대상으로 한 대조 연구는 2,000년 이후부터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는 우즈베키스탄인 학습자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교육자뿐만 아니라 한국어를 배우려는 학습자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이 절에서는 지금까지 이루어진 한국어와 우즈베크어의 복합문에 관한 선행 연구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2.1 한국어 복합문에 관한 연구

국어문법에서 한국어 복합문에 관한 연구로는 서정수(1994, 2005), 유현경(1986), 김진수(1987), 남기심(1978, 2001), 남기심, 고영근(1998) 등이 있다.

서정수(1994)는 앞 문장과 뒤 문장이 ‘그러-’형의 접속부사로 결합하는 것을 뒤 문장이 앞 문장을 수식하는 것으로 보고 수식 기능에 초점을 두고 연구하였다.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는 접속부사가 사용되는지를 보여주고 접속사를 그 의미 관계에

따라 나뉘어 대립 관계, 양보 관계, 인과 관계, 부가 관계 접속 부사 등으로 분류하였다.

유현경(1986)은 대용화 현상에 나타난 내포문과 접속문의 통사적 특질을 살펴보았다. 연구자는 종속접속문은 대등접속문과 통사적 특성이 다르고 오히려 내포문과 구성상의 공통점이 발견된다고 하였다. 즉, 종속접속문은 내포문의 일종으로 종속절이 주절에 의미적인 것뿐만 아니라 통사적으로도 지배받고 있음을 시사해 주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종속 접속문은 내포문으로서 문장에서 부사어로 기능을 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런 다음 부사어로서 문장의 맨 앞에 위치하여 문장 전체를 꾸며주는 문장 수식 부사절과 서술구 안에서 성분을 꾸며주는 성분 수식 부사절과 같이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고 하였다.

김진수(1987)은 외국인 학생들이 연결어미 ‘-고’를 사용할 때 ‘공간 나열, 시간 선후 관계 나열, 동시 나열’의 세 가지 의미를 혼동하여 사용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주로 쓰는 ‘-(으)며’, ‘-(으)면’의 통사적 의미 상관성에 대해 살펴보고 대칭성, 동시성과 계기성, 인과성, 반복성, 선택성으로 세 연결어미를 비교하고 분석하였다. 그중 대칭성, 동시성과 계기성, 인과성의 분석 결과로는 첫 번째로 대칭성에 있어 ‘-고’와 ‘-(으)며’가 같은 환경일 때는 동일한 특징을 가진다고 하였다. 이 두 연결어미를 공간 나열의 의미로 쓸 때 선행문과 후행문 사이의 주어가 다른 이가 되거나 같은 이가 되어도 되며 시제 제약이 없고 선행절과 후행절의 내용을 바꿀 수 있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경우 두 연결어미를 바꿔 쓸 수도 있다고 하였다. 두 번째로 동시성에 있어서 ‘-(으)면서’는 주어가 유정물일 때 주어가 일치해야 한다는 사용의 한계가 있다고 하면서 ‘-(으)며’는 동시성이 ‘-(으)면서’보다는 약하나 ‘-고’보다는 강하다고 하였다. 세 번째로 인과성의 관계에 있어 ‘-고’는 대부분 후행문을 이루는 여러 원인이나 이유의 기능을 선행문이 담당하는데, 이 인과성은 계기성의 의미자질에서 기인하는 것이며 ‘-(으)며’, ‘-(으)면서’는

동시적인 사건의 진행으로써 인과성을 나타내기도 한다고 하였다. 정리하자면 ‘-고’를 사용하여 인과성을 나타낼 때 후행절의 결과는 선행절의 행위가 완료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남기심(1978)에서는 먼저 ‘-고’와 더불어 계기적 용법으로 쓰인다고 보여지는 연결어미-‘아서/어서’, ‘-(으)니까’와 ‘-고’를 비교하여, ‘-고’가 계기적인 두 문장을 연결하는 기능 외에 다른 뜻이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김지혜(2009)는 한국어 이유 표현을 대상으로 균형 말뭉치를 통한 모국어 화자의 사용 양상과 한국어교재에 나타나는 과제와 기능, 이유 표현 항목의 난이도 등을 기준으로 학습 대상이 될 수 있는 목록을 선정한 후 교육 단계를 설정하였으며 이유 표현의 교육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였다. 연구에서는 교육 단계를 5단계로 나누어 초급에서는 1단계에 ‘-아서/어서, -(으)니까’, 2단계에 ‘-기 때문에, 때문에’를 넣었으며, 중급인 3단계에는 ‘-거든, -느라고, -는 바람에, -아/어 가지고’, 4단계에 ‘-길래, -기에, -(으)므로, -다고’, 고급에 해당하는 5단계에는 ‘-는 통에, -고 해서, -답시고’를 넣었다. 이 연구는 다른 연구와 달리 교육 단계와 항목 분석이 잘 되어 있었으나 교안과 교육방안에 대한 제시가 부족한 것이 아쉬웠다.

김미경(2014)는 한국어 복합문을 이어진 문장과 안은문장의 두 가지로 분류하고 한국어 복합문의 사용 실태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복합문 쓰기 능력 향상을 위한 실험을 설계하고 실험 결과에 따라 구체적인 교육 방법을 제시하였다. 한국어 교육에서 복합문 교육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며 외국인 학습자들은 복합문을 구성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복합문 구성 자체를 시도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강하다고 주장하였다.

유호(2015)에서는 유학생과 한국 학생의 관형사절 사용 양상을 분석하여 유학생의 관형사절의 구사 능력에 대해 조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관형사절은 한국어 문장 확대의 주요 수단이지만 실제 한국어 교육에서 효율적인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리고 외국인 유학생의 관형사절 사용 능력을 진

단하기 위해 관형사절을 동격관형사절과 관계 관형사절 그리고 관형사형 어미가 포함된 복합형식으로 나뉘어서 연구하였다.

유단단(2016)은 학부 유학생들의 부사절 사용 양상을 분석하여 외국인의 부사절 구사능력에 대해 진단하였다. 부사절은 한국어 문장 확장의 주요 수단이지만 실제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는 주로 부사형을 어휘 차원에서 교육시키고 있지만 문장 성분이나 어절 차원에서는 효율적으로 교육을 시키지 못한다고 하였다. 외국인 유학생의 부사절 사용 능력에 대해 진단하기 위하여 부사절을 형성하는 어미 ‘-게, -도록, -듯이, -없이, -(으)르수록, -만큼, -다시피, -(으)ㄴ으로써, -는 대로’를 대상으로 내포문 부사절을 분석하였다.

한국어 연결어미 분석을 통해 문장 구성능력을 살펴본 논문으로는 김소영(2016), 박지영(2016), 박향란(2016), 유언가(2017)를 들 수 있다.

김소영(2016)은 접속문에 대한 통사적 특성과 접속문을 만드는 요소인 연결어미의 종류와 특징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보았다. 자료 분석의 기준을 제시하고 외국인 유학생의 작문자료를 통해 대조의 연결어미를 활용한 복합문의 사용 양상과 오류 양상을 검토하였다. 대조 연결어미의 경우 그 의미가 비교적 명확하며 통사적 제약이 다른 연결어미에 비해 적다. 대조 연결어미인 ‘-지만’과 ‘-(으)ㄴ/는데’는 한국어 학습자의 문어에서 고빈도의 사용률을 보이는 연결어미로 초급 단계에서 학습하는 문법 항목이다. 그러나 연구자가 외국인 유학생의 작문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조 연결어미를 사용한 복합문의 70% 이상이 오류문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오류 유형으로는 조사, 어휘, 시제, 문장 성분 간의 호응 관계 오류가 가장 빈번하였다고 한다.

박지영(2016)에서는 한국어 교육에서 계기의 연결어미 ‘-고’와 ‘-어서’를 구분하고 두 연결어미를 제1 기준으로 수용하여 분석하였다. ‘-고’와 결합하는 특정 동사, ‘-어서’와 결합하는 특정 동사를 명시하여 한국어 초급단계 학습자들에게 좀 더 쉽게 두 연결어미를 나눌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박향란(2016)는 시간관계 연결어미 ‘-(으)면서’, ‘-(으)며’, ‘-고’, ‘-자’, ‘-자마자’, ‘-아서/어서’를 연구 대상으로 연구하였다. 연결어미의 의미적·통사적 특성을 분석하고 유사한 연결어미를 비교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을 밝혔다. 또한 현재 한국대학교에서 사용하는 한국어교재를 통해서 이런 시간관계 연결어미가 어떻게 교육에 활용되고 있는지를 살펴본 후에 문제점을 밝혔다.

유언가(2017)에서는 복합문에 속한 이어진 문장을 구성할 때 반드시 사용되는 연결어미를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또한, 외국인 학생의 글쓰기에서 가장 높은 빈도로 쓰인 연결어미 ‘-고’를 구체적인 분석대상으로 하여 외국인 학습자의 ‘-고’의 사용 양상과 이를 이용한 문장의 전체적인 구성 그리고 외국인 학생의 문장 생성 능력에 대해 연구하였다.

내포문의 분류에 관한 연구로는 남기심, 고영근(1998)과 허용, 강현화, 고명균, 김미옥, 김선정, 김재옥, 박동호 (2005)가 있다. 남기심, 고영근(1998)에서는 내포문을 크게 다섯 가지로 구분하였고 허용 등(2005)에서는 내포문을 세 가지로 구분하였는데, 명사절로 안긴문장, 관형절로 안긴문장, 부사절로 안긴문장으로 나누고 인용절로 안긴문장은 인용격조사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고 내포문에서 제외하였다.

이와 달리 학교 문법에서는 내포문(embedded sentence)을 크게 다섯 가지 범주로 구분하고 있는데, 홀문장이 다른 문장 속의 한 성분으로 안기는 양식에 따라 명사절, 서술절, 관형절, 부사절, 인용절로 구분한다. 당홍반(2015)은 베트남인 중·고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국어 내포문 교육방안에 대해 연구하였다. 베트남어에도 한국어 내포문에 해당하는 복합문인 부속복문이 있지만, 교육현장에서는 두 언어를 대조하여 교수하고 있지 않으며, 문법을 많이 습득한 학습자라고 하더라도 문장 구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였다. 베트남인 학습자의 내포문에 나타난 오류는 모어의 영향을 받아 내포문 성분 불일치,

모문의 주어 생략, 모문의 서술어화 실패, 어색한 표현, 베트남 어식 표현 등이 있다고 하였다.

어미를 연구한 것 중에서 이순자(1987)는 격조사 사용상의 오류, 어미 사용상의 오류, 어미를 수반하는 시간어 ‘-(으)르 때, -았을 때’와 시간을 나타내는 연결어미 ‘-(으)면 ’의 사용상 오류를 자세하게 연구하였다.

지금까지의 연결어미 관련 연구들은 통사적인 제약이나 유사한 의미가 있는 형태와의 비교, 그리고 오류 분석을 통한 교육방안 연구들이 대부분이었다. 내포문 형성과 관련된 연구들도 유형별로 다양하게 진행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나 연결어미 관련 연구들과 한국어 복합문에 관한 대조 연구들은 중국어, 태국어, 베트남어 등의 언어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튀르크어와 우즈베크어와 관련된 논문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의 복합문과 우즈베크어 복합문의 대조 분석 결과와 우즈베키스탄인 한국어 학습자들의 번역 자료를 바탕으로 연결어미와 전성어미의 사용 양상을 살펴볼 것이다. 분석 결과는 향후 우즈베키스탄인 한국어 학습자들이 한국어의 복합문, 나아가 한국어를 학습하는 데 유의한 정보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1.2.2 우즈베크어 복합문에 관한 연구

본 절에서는 우즈베크어 복합문에 관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고자 한다.

우즈베크어의 복합문에 관한 연구들은 우즈베키스탄의 독립 전과 독립 후의 연구들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독립 전 연구들은 소련 언어학자들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 즉 1989년 10월 21일 우즈베키스탄의 공식 언어를 우즈베크어로 지정한 후부터 우즈베크어만의 역사와 특성을 고려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본 연구는 한국어와 우즈베크어 두 언어의 대조

연구이기 때문에 우즈베키스탄의 독립 이후에 진행된 연구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우즈베크어의 복합문 구성에 대한 논의는 우즈베키스탄인 또는 러시아인 언어학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졌는데 초기에 이루어진 우즈베크어의 복합문에 대한 연구는 G‘ulomov와 Asqarova (1965), Abdurahmonov (1973)의 연구이다. 이 외에도 우즈베크어 복합문 구성에 관심을 가진 연구자들로 Ismatullayev(1991), Tursunov, Muxtorov와 Rahmatullayev (1992), Rasulova와 Supiyeva (2016), Saparova (2017) 등을 들 수 있다.

Abdurahmonov (1973)에서는 접속사, 어미 그리고 비사용 접속사로 이루어진 문장이 복합문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우즈베크어 문법 연구 분야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 Hoshimov (1991a, 1991b)는 우즈베크어 복합문 구성 방식을 중심으로 연구하였는데 우즈베크어 복합문의 특징을 정리하고 복합문 분류 방법에 대해 제시하는 등 우즈베크어 복합문을 체계적으로 구분하는 데에 큰 기여를 하였다. 우즈베크어의 경우 연구자마다 문법 용어를 다르게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Hoshimov (1991a)에서는 단문은 Monotaksema (monotaxeme), 복합문은 Politaksema (polytaxeme)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Tursunov 등(1992)는 우즈베크어 접속사를 대상으로 연구하였다. 연구자는 우즈베크어 복합문은 접속사로만 구성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접속사를 통해 우즈베크어 복합문을 구성하는 방법을 2가지로 제시하였는데 대등접속사로 구성된 방법과 종속접속사로 구성된 방법이다.

Saparova (2017)에서도 접속사를 이용한 우즈베크어 복합문 구성법을 보여 주며 연구하였다. 우즈베크어 복합문은 대등접속사와 종속접속사의 두 가지 방법으로 구성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Ismatullayev (1991)가 저술한 『우즈베크어』에서는 우즈베크어 복합문을 두 가지로 분류하였다. 하나는 병렬 복합문인데, 복합문은 연결접속사, 반전접속사, 분할접속사를 이용해 만들어진다고 하였다. 다른 하나는 종속 복합문으로 두 개의 단문이 결합할 때 한 문장이 다른 문장에 종속하는 것으로 보았다. 독립하는 문장을 주절 (bosh gap)이라 하고 종속되는 문장을 종속절 (ergash gap)이라 하는데, 종속복합문은 종속접속사에 의하여 주절과 종속절이 연결되어 있다. 우즈베크어에서는 이유, 조건, 목적 등과 같은 종속접속사를 사용해 종속복합문을 구성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하였다.

Abdurahmonov, Rafiyev 와 Shodmonqulova (1993)에서는 우즈베크어 복합문이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다고 주장하였다. 우즈베크어 복합문은 결합으로 이루어진 복합문, 종속으로 이루어진 복합문, 접속사 없이 단문이 결합된 복합문으로 나눌 수 있다고 하였다.

Rasulova 와 Supiyeva (2016)에서도 우즈베크어 복합문은 접속사로 구성할 수 있다는 주장하였다. 연구자에 의하면 복합문은 두 개 이상의 독립적인 단문을 접속사를 사용하여 구성한다고 하였다.

이상의 선행 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즈베크어 복합문에 관한 연구들 대부분이 복합문의 특징과 그 분류방법에 대한 것이었으며 복합문의 분류에는 접속사의 사용 여부가 기준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1.2.3 한국 내 우즈베크어에 관한 연구

1.1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어를 학습하는 우즈베키스탄인 학습자의 수적 증가로 인하여 한국어교육계에서도 우즈베키스탄인 학습자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한국어와 우즈베크어의 대조·비교 연구 (이소영, 2003; 유승만, 2009a, 2009b; Gaffarova, 2017; 주라예브, 2018; Sattorova, 2018;

구자로바, 2020; Vakhabova, 2020) 는 물론 우즈베키스탄인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교육 관련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 한국어교육 관련 연구에는 문법 관련 연구(김마리나, 2005; 차류버비, 2008; 김유보비, 2009; 이지훈, 2011; 최수경, 2015; 유종원, 2017; 백연화, 2019; 오현진, 2019; Hujanazarova, 2019; 김용경, 2020; 딜푸자, 박덕유, 2020 등) 와 발음 관련 연구 (심현주, 김선정, 2015; 심현주, 2017; 장현아, 2018; 안수현, 2019; 이정명, 2019 등), 교재 및 쓰기 등과 관련된 연구(유영지, 2011; 남빅토르, 2012; 김미영, 2017; 공나형, 2020 등) 가 있다. 또한 한국 언어 문화 교육 현황과 관련된 연구 (Nam, 2006; 안여경, 2012; Lee, 2010; 솔레바, 2019)와 한국 문학·문화 교육 관련 연구 (박안토니나, 2012, 2013, 2015; 우미드존, 2018; 코밀로브, 2019; 김경령, 2019; 김영순, 갈라노바, 2017; 민혜경, 이영희, 2020; 최권진, 2019; 이가원, 2019; Sattorova, 2018) 등이 있다.

김마리나 (2005) 에서는 우즈베크어를 모어로 하는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조사 사용에 나타난 오류를 분석하였다. 한국어의 조사를 격조사, 접속조사, 보조사로 분류하여 작문자료에 나타난 학습자들의 오류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한국어와 우즈베크어가 유사점이 많지만 그래도 문법은 우즈베크인 한국어 학습자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라고 하였다. 이 연구는 우즈베크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최초의 오류 분석 연구라는 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유승만 (2009a) 는 한국어와 우즈베크어의 형태적인 특징을 비교 연구하였는데 특히 한국어와 우즈베크어의 격조사, 동사, 형용사, 수사 등을 다루었다. 한국어와 우즈베크어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분석하였는데 양 언어의 복합동사 ‘-아/어 보다’와 우즈베크어 ‘-(i)b ko‘rmoq’를 예로 들어 유사점을 살펴보았다.

이지훈(2011)에서는 러시아어, 카자흐어, 우즈베크어를 모어로 하는 학습자의 격조사 사용 오류를 분석한 후 그 원인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하여 한국어와 러시아어, 카자흐어, 우즈베크어를 비교·대조하였다. 그리고 러시아어 화자와 카자흐어, 우즈베크어 화자의 오류를 주격조사, 관형격조사, 목적격조사, 부사격조사로 나누어 ‘누락’, ‘첨가’, ‘대치’ 오류의 순으로 살펴보았다. 러시아어 화자를 중심으로 카자흐어와 우즈베크어 화자에게서 다르게 나타나는 오류를 살펴본 후, 러시아어 화자와 카자흐어 화자, 러시아어 화자와 우즈베크어 화자가 일으키는 오류가 서로 다르다고 하였다. 그런 다음 러시아 및 CIS 지역 학습자들에게 한국어를 교육할 때 각 나라의 언어적 특성을 고려하여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다.

남빅토르(2012)에서는 한국어 쓰기 교육과정 개발의 준거를 수립하기 위해서 외국어 교육과정을 분석하였다. 유럽 공통 참조 기준(CEFR), 한국어 능력시험(TOPIK)의 총괄 평가 기준, 재외동포 한국어 교육과정 기준을 검토하여 우즈베키스탄 학습자를 위한 쓰기 교육과정을 기술하였다.

주라예브(2018)에서는 한국어와 우즈베크어의 격과 격 표시의 통사적 기능과 의미를 설명하고 격의 기능과 실현 양상을 대조하여 두 언어의 공통점이나 차이점을 연구하였다. 한국어와 우즈베크어에서 다른 격을 요구하는 동사와 형용사가 사용된 문장을 예로 들어 설명하였다.

오현진(2019)에서는 우즈베크인 학습자와 중국인 학습자의 쓰기 자료에 나타난 한국어 서술어의 사용 양상을 문법적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우즈베크인 학습자와 중국인 학습자, 한국인 대학생의 서술어에 나타나는 평균 형태소 결합 수를 비교 분석한 결과, 그 수에서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우즈베크어를 모어로 하는 학습자들이 고립어인 중국어를 모어로 사용하는 학습자들보다 문법형태소의 사용이 한국어 모어 화자에 가깝게 문법형태소를 결합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1.3 연구 대상 및 방법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어와 우즈베크어의 복합문의 유형과 구성 방식에 대해 대조해보고 우즈베크스탄인 학습자의 우즈베크어·한국어 번역에 나타난 한국어 복합문의 특징을 살펴보는 데 있다.

본 연구는 타슈켄트 국립 동방대학교, 타슈켄트 국립 사범대학교, 타슈켄트 국립 세계 언어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의 번역문을 연구 대상으로 한다. 번역문을 제공한 이들은 우즈베크스탄 현지에서 한국어를 전공하는 학생들로 이들의 한국어 수준은 1급에서 4급까지이다. 아래 표는 연구 참여자들을 정리한 것이다.

표 1. 실험에 참여한 한국어 학습자

대학교	학습자 수		
	초급	중급	합계
타슈켄트 국립 동방대학교	18명	21명	39명
타슈켄트 국립 사범대학교	22명	19명	41명
타슈켄트 국립 세계언어대학교	25명	25명	50명
합 계	65명	65명	130명

위의 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연구 참여자들은 타슈켄트 국립 동방대학교, 타슈켄트 국립 사범대학교, 타슈켄트 국립 세계 언어대학교에 다니는 학부생 130명이다. 세 개 대학 모두 고급반이 없었기 때문에 초급과 중급으로 그 대상을 한정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을 타슈켄트 국립 동방대학교, 타슈켄트 국립 사범대학교, 타슈켄트 국립 세계 언어대학교의 학부생들로 정한 것은 세 학교 모두 한국어 수업에서 사용하는 교재가 고려대학교에서 출판한 『재미있는 한국어』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학교는 다르더라도 학습자의 번역문에 나타난 연결어미 및 전성어미의 특징을 분석할 때 동일 집단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자료는 연구자가 직접 우즈베키스탄 현지에서 있는 세 개의 대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수집하였다. 연구 자료는 우즈베키스탄 학습자들이 우즈베크어 문장을 보고 한국어로 번역한 것이며, 우즈베크어 문장은 연결어미나 전성어미를 사용하여 두 문장을 연결하는 한국어 문장을 먼저 결정한 후 이를 연구자가 우즈베크어 문장으로 번역한 것이다. 번역 자료는 두 세트로 나누어 진행했는데 하나는 아래의 <표 2>에 제시한 우즈베크어 문장으로 한국어의 연결어미를 사용하여 번역할 것으로 예측한 것이다.

표 2. 우즈베크어·한국어 번역에 사용한 문장 1

연번	우즈베크어 문장
1	Men ashula aytdim, ukam raqsga tushdi.
	Men TV ko'rdim, do'stim radio eshitdi.
2	Men yuvinaman, keyin nonushta qilaman.
	U ertalab turib, maktabga ketdi.
3	Kamola kech uxlagani uchun maktabga kech qoldi.
	Ob-havo sovuq bo'lgani uchun kiyim kiyib ol.
4	Nodir pulni olish uchun bankga bordi.
	Koreys tili o'qituvchisi bo'lish uchun qattiq shug'ullanish kerak.
5	Akam qaytdi, ammo ukam qaytmadi.
	Men tushlik qildim, ammo qornim hamon och.
6	Agar sen borsang, men ham boraman.
	Institutga kirmoqchi bo'lsang qattiq shug'ullanish kerak.
7	U kelsa ham, men kuta olmasam kerak.
8	Biz samolyotga o'tirib Jeju orolga boraylik.
	Tuxumni qaynatib yeyish kerak.
9	Uning bo'yi baland yoki past, bu muhim emas.
10	U yoshligidan Amerikada yashagan.
	Keyingi hafta konferensiya bo'ladi, adashmasam ishtirokchilar bo'lmaydi.

다른 하나는 아래의 <표 3>에 제시한 우즈베크어 문장으로 한국어의 전성어미를 사용하여 번역할 것으로 예측한 것이다.

표 3. 우즈베크어·한국어 번역에 사용한 문장 2

연번	우즈베크어 문장
1	Avval sen salomlashishing to‘g‘ri bo‘ladi.
	Cholsu yaxshi universitetga kirishi aniq edi.
	Men, Sizlar baxtli bo‘lishingizni tilayman.
	Olya matematika fanini o‘rganishni yoqtiradi.
	Sen imtihondan o‘tishingni bilmagan edim.
	Bu narsa men xohlayotgan narsa emas.
2	Ana u yerda serial ko‘rayotgan odam- mening onam.
	Ana u yerda kitob o‘qiyotgan odam- mening ukam.
	Bu kitob o‘tgan hafta sotib olgan kitobim.
	Bir oz avval yegan kimbap juda shirin edi.
	Dam olish kunida biz borayotgan joyimiz- Seul.
	Men o‘qimoqchi bo‘lgan kitobni akam olib ketdi.
	Notiqlik san’ati tanloviga ko‘p talabalar keldi.
	Men chiroyli gulni yoqtiraman.
	O‘tgan yili bo‘yi kichik bo‘lgan bolaning.
	Osoyishta bo‘lgan maktab dars boshlanishi tufayli shovqinga aylandi.
	Mening oyligim sening oyligingga qaraganda kam bo‘lsa kerak.
	Ertaga ob-havo iliq bo‘lsa kerak.

위의 <표 2>와 <표 3>에서 보듯이 번역을 요청한 문장 수는 총 36개인데 연결어미를 사용할 것으로 예측한 문장이 18개이고 전성어미를 사용할 것으로 예측한 문장이 18개이다. 본

연구의 목적이 복합문의 번역에 나타난 특징을 분석하는 것이므로 연구자가 학습자들에게 우즈베크어 문장을 한국어로 번역할 것을 요청할 때 연결어미와 전성어미 등의 어미를 사용하여 번역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 또한, 번역이 평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언급하였다. 이는 학습자들이 자신들이 생성한 번역문이 평가된다고 생각하면 자신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어미만을 반복적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었을 때 수집된 자료를 통해 학습자의 한국어 번역에 나타난 복합문의 특징을 총체적으로 파악해 보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연구 자료를 수집한 후 우즈베키스탄인 학습자들의 우즈베크어·한국어 번역에 나타난 특징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한국어와 우즈베크어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한국어 학습에 어떠한 전이를 일으키는지를 파악할 수 있었다.

본 연구 절차를 요약하여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1장에서는 연구 목적과 필요성을 제시하고 선행 연구를 검토한 후 연구 대상과 연구 방법에 대해 검토한다.

2장에서는 이론적 배경이 되는 대조언어학을 개관하고 한국어와 우즈베크어의 문장구성 방법과 문장 확대 방법, 한국어와 우즈베크어의 문장 분류 방법에 대해 살펴본다.

3장에서는 연결어미로 구성하는 한국어의 접속문과 이에 대응하는 우즈베크어의 문장을 대조하고, 4장에서는 전성어미로 구성하는 한국어의 내포문과 이에 대응하는 우즈베크어 문장을 대조하여 양 언어의 특징을 살펴본다.

5장과 6장에서는 우즈베키스탄 학습자의 우즈베크어·한국어 번역에 나타난 특징을 각각 한국어 접속문의 번역에 나타난 특징과 한국어 내포문의 번역에 나타난 특징으로 나누어 분석해 봄으로써 L1이 L2의 학습에 미치는 전이에 대해서 파악해 본다.

마지막 7장은 본 연구의 결론으로, 앞서 논의한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고 본 연구가 갖는 의의와 한계점을 제시한다.

2. 이론적 배경

이 장에서는 본 연구의 이론적 토대가 되는 대조언어학을 개관하고, 한국어와 우즈베크어의 문장구성 방법 및 문장 확대 방법, 한국어와 우즈베크어의 문장 분류 방법에 대하여 살펴본다.

2.1 대조언어학

대조언어학은 두 개나 두 개 이상 언어를 대조하여 유사점과 차이점을 분석한다. 대조언어학은 언어에 대한 이해를 목적으로 할 수 있으나 통·번역이나 음성 인식 등의 실용적인 측면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대조언어학은 외국어 교육에의 활용과 같은 실용적인 목적에서 출발한 언어학으로 응용언어학적(applied linguistics) 성격이 강하다고 하겠다.

대조언어학에서는 외국어 학습이 학습자의 모어와 목표어 간의 차이를 극복하는 것으로 본다. 대조언어학에서는 외국어 학습에서 미치는 학습자 모어의 영향, 즉 전이(transfer)를 중요하게 다룬다. 전이는 언어 교육에서 학습자의 모국어가 목표어에 미치는 영향을 일컫는다. 그리고 전이는 긍정적인 전이와 부정적인 전이로 분류되고 그중에서 부정적인 전이를 간섭(interference)이라고 한다. 간섭에는 언어 간 간섭과 언어 내 간섭이 있다. 언어 간 간섭은 언어 간의 범주의 차이와 구조, 규칙, 의미의 차이에 의해 나타난다. 다시 말해, 학습자가 L2를 배울 때 L1에는 없는 특징으로 인해 겪는 어려움을 언어 간 간섭이라고 할 수 있다. 언어 내 간섭은 목표어에 있는 어떠한 규칙이나 현상 간의 간섭으로 이미 학습한 학습 내용이 학습을 방해하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L2의 불규칙성, 비대칭성 등에서 기인하는데 언어권별 차이점이 없다. 예를 들어, 한국어의 ‘읽어요, 넓어요’를 배운 학습자가 ‘*어렵어요, *쉽어요’라고 하는 경우이다.

대부분의 학습자들은 L2를 배울 때 자신의 L1과의 차이점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예를 들어, 영어를 배우는 한국 학생들은 한국어에는 없는 관사의 사용과 관계대명사의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한국어를 배우는 영어권 학습자들은 조사와 어미, 존대 표현 등을 배울 때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따라서 외국어를 가르치는 교사가 학습자들의 L1과 L2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이해하고 학습에 잘 이용하면 학습자 L1의 간섭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다. 궁극적으로는 외국어 교육에서 효과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대조언어학은 대조의 대상이 되는 두 개 이상 언어에 나타난 음운적, 형태적, 통사적, 표현 담화적 특징을 대조해보는 것이다.

Lado(1957)은 ‘Linguistics Across Cultures’에서 대조 분석 가설을 처음으로 제시하였는데 학습자의 모어와 목표어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하면 학습에서 일어날 수 있는 어려움과 오류를 예측할 수 있다고 보았다. 대조 분석 가설은 적극적인 입장과 소극적인 입장으로 나누어진다. 적극적인 입장에서는 대조 분석을 통해서 제2언어 학습에서 나타날 수 있는 모든 문제점을 예측할 수 있다고 본다. 외국어 학습에서 겪는 어려움 또는 오류의 중요한 원인은 학습자의 모어에서부터 기인된 간섭으로 보았다. 두 언어의 차이가 크면 클수록 학습에서의 어려움은 더욱 커진다고 보았다. 그리고 모어와 목표어 간의 차이를 외국어를 학습하면서 겪는 유일한 어려움으로 보았다. 학습자가 학습해야 하는 것은 대조 분석으로 이루어진 차이점의 양과 같다고 보았다.

소극적인 입장에서는 대조 분석을 단순히 학습자의 모어와 목표어 간의 차이점을 기술하는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대조 분석 결과는 학습자의 오류를 예측할 수 없고 발생한 오류의 원인에 대한 설명만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대조언어학은 외국어 교육과 관련한 효용성을 고려해 볼 때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

첫째, 교사들에게는 외국어를 교육하는 데 도움을 준다. 교사는 대조언어학적 지식을 기초로 하여 수업 시 제시 순서를 정하고, 수업에서 무엇을 강조할 것인가를 정할 수 있다. 또한, 오류가 발생할 경우에는 대조언어학적 정보를 활용하여 수정해 줄 수 있다.

둘째, 외국어 학습자들에게는 학습 정보를 제공하고, 의사소통 전략을 선택하는 데 도움을 준다. 두 언어 간의 대조언어학적 지식은 오류의 생산을 줄일 수 있도록 해 줄 뿐만 아니라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한 전략을 선택하는 데 정보를 제공해 준다.

셋째, 연구자들에게는 외국어 학습에서 나타나는 학습자의 특성에 관한 연구에 근거를 제공한다. 대조언어학적 지식은 학습자의 말뭉치에 나타난 여러 가지 특징을 이해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넷째, 외국어 교재를 구성하는 데 기초 자료를 제공한다. 학습 대상 언어와 학습자의 모국어를 체계적으로 대조 분석한 결과는 효과적인 언어 학습 교재를 구성하는 데 근거를 제공한다.

다섯째, 외국어 평가에 도움을 준다. 대조언어학적 지식은 평가의 기준을 정하고, 평가 항목을 선택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2.2 한국어와 우즈베크어의 문장구성법 대조

이 절에서는 우즈베키스탄인 학습자의 한국어 복합문 번역에 나타난 특성을 살펴보기에 앞서 한국어와 우즈베크어의 문장구성법과 어순을 간략히 대조하고자 한다. 1.1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어와 우즈베크어는 둘 다 알타이어족에 속하며, 하나의 낱말이 분석 가능한 여러 개의 형태소로 구성된 유형인 교착어에 속한다. 따라서 어근에 다양한 문법적 기능을 가진 문법형태소(형식형태소)들이 결합된다. 구성성분의 격(case)이나 시제(tense), 존대(honorifics), 양태(modality) 등을 나타내

는 문법적 요소는 반드시 어간이나 어근 뒤에 온다. 조사는 명사 뒤에 붙고, 어미는 동사나 형용사 뒤에 붙는다. 다음 예문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1) a. 나-는 사과-를 먹-었-어요.

나-주격조사 사과-목적격조사 동사어간-과거어미-종결어미

b. Men olma-ni ye-di-m.

나-Ø 사과-목적격조사 먹-과거어미-인칭어미

위 문장에서 보듯이 체언인 ‘나/Men’은 주어이고, ‘사과/olma’는 목적어를 나타낸다. 목적어에는 한국어와 우즈베크어 모두에서 명사에 각각 목적격 조사 ‘를’과 ‘ni’를 붙여 표시한다. 그러나 주어의 경우에는 한국어에서는 주격조사 ‘가’를 붙여 표시하는 반면 우즈베크어에서는 아무런 표지를 하지 않는다. 유승만(2009a)에서는 한국어와 우즈베크어의 격조사의 특징을 비교하여 다음과 같이 한국어의 격조사에 대응하는 우즈베크어의 격조사를 제시하였다.

표 4. 한국어와 우즈베크어의 격조사 대조(유승만, 2009a)

	한국어	우즈베크어
주격	이/가	Ø
목적격	을/를	ni
여격	에(게)/(으)로	ga
소유격	의	ning
처소격	에(게)/에서	da
탈격	에서/(으)로부터	dan

위의 <표 4>를 통하여 주격조사를 제외하고는 두 언어의 격조사가 대응됨을 알 수 있다. 주격조사의 경우 한국어에서는 선행하는 체언의 받침 유무에 따라 ‘이/가’를 사용하지만 우즈베크어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음 예문 (2)를 통해 한국어와 우즈베크어 문장에 사용된 형태소를 대응시켜 보자.

(2) a. 할아버지-께서 책-을 읽-으셨겠어요.

할아버지-주격조사 목적어-목적격조사 동사-존대-시제-추측-종결어미

b. Buva kitob-ni o‘qi-gan-ga o‘xshay-di-lar.

할아버지-Ø 책-목적격조사 읽다-과거어미-추측어미-인칭어미-존대

위 예문 (2)를 보면 한국어와 우즈베크어 문장의 어순이 유사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두 언어 모두에서 명사와 동사 뒤에 조사나 어미를 결합할 수 있고, 조사나 어미의 결합은 상당히 복잡함을 알 수 있다. 한국어는 어휘적 의미를 나타내는 ‘할아버지’나 ‘책’과 같은 명사 뒤에 조사 ‘께서’, ‘을’을 붙이고 서술어의 경우 동사 ‘읽-’과 높임을 나타내는 ‘-시-’, 그리고 과거시제를 나타내는 ‘-었-’과 추측을 나타내는 ‘-겠-’, 종결어미 ‘-어요’의 형태소가 결합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우즈베크어도 어휘적 의미를 나타내는 ‘kitob(책)’과 같은 명사 뒤에 목적격조사 ‘ni’를 붙이고 서술어의 경우 동사 ‘o‘qi(읽)-’에 과거시제를 나타내는 ‘-gan-’, 추측을 나타내는 ‘-ga o‘xshay-’, 인칭어미 ‘-di-’, 문장 끝에 나타나는 높임접사 ‘-lar’를 첨가하여 각각의 기능을 하는 문법형태소들이 첨가되어 구성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한국어와 우즈베크어의 교착어적 특성이 드러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예문 (1)과 (2)를 자세히 살펴보면 두 언어의 문장구성법이 같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즈베크어의 경우 한국어와 달리 주어와 서술어의 대응 관계가 성립한다. 다시 말해,

우즈베크어는 문장 끝에 오는 인칭어미가 주어에 따라 다르다는 특징이 있다. 한국어는 주어의 인칭과 무관하게 상대 존대의 정도에 따라 종결어미의 형태가 다른 데 반해 우즈베크어에서는 주어가 1인칭인지, 2인칭인지 또는 3인칭인지에 따라 문장의 끝에 오는 인칭어미가 다르다. 따라서 우즈베크어의 문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인칭과 관련된 문법 요소인 ‘인칭대명사’, ‘인칭대명사 + 관형격’, ‘인칭접사’ 등을 알아야 한다. 다음은 우즈베크어의 인칭대명사이다.

표 5. 우즈베크어의 인칭대명사

인 칭	단 수		복 수	
1인칭	men	나	biz	우리
2인칭	sen	너	sizlar	너희/당신
3인칭	u	그(녀)	ular	그(녀)들

위의 표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1인칭 단수는 ‘men’이고 복수는 ‘biz’, 2인칭 단수는 ‘sen’이고 복수는 ‘sizlar’이다. 3인칭 단수는 ‘u’이고 복수는 ‘ular’이다. 2인칭과 3인칭의 복수 접미사 ‘-lar’는 수의 많음을 나타낸다.

‘인칭대명사 + 관형격조사’를 살펴해보도록 한다. 인칭대명사는 다른 명사 뒤에 올 경우 격변화를 한다. 인칭대명사에 격조사를 결합하여 격변화를 하는데 1인칭과 2인칭 대명사 단수의 경우에는 관형격조사 ‘-ning(의)’과 목적격조사 ‘-ni(을/를)’을 붙일 때 조사에서 ‘-n’이 탈락한다. 또한, 3인칭 대명사의 단수에 부사격조사를 붙일 때는 ‘-n’을 첨가한다. 이를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표 6. 우즈베크어 인칭대명사의 격변화

주격	목적격	관형격	부사격	
-이/가	-을/를	-의	-에게	-에게서
men	men+ ni=meni	men+ ning=mening	menga	mendan
sen	sen+ ni=seni	sen+ ning=sening	senga	sendan
u	uni	uning	u+ n+ ga=unga	u+ n+ da=unda
biz	bizni	bizning	bizga	bizdan
siz	sizni	sizning	sizga	sizdan
ular	ularni	ularning	ularga	ulardan

우즈베크어의 인칭접사는 인칭조사와 인칭어미 두 가지로 분류된다. 우즈베크어에서 인칭대명사와 명사 사이에는 특별한 문법적인 관계가 있다. 예를 들면, ‘나의 가방’이라는 표현을 우즈베크어로 번역하면 ‘mening(나의) sumkam(가방)’이다. 한국어에서 ‘가방’은 인칭대명사 ‘나’의 뒤에 결합된 관형격조사 ‘의’에 따라 그 형태가 변하지 않는다. 그러나 우즈베크어에서는 인칭대명사 뒤에 결합된 관형격조사에 따라서 명사도 인칭조사를 붙여야 한다. ‘sumkam’은 명사 ‘sumka’ 뒤에 인칭조사 ‘m’이 결합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다음은 우즈베크어의 인칭과 수에 따른 관형격조사와 인칭조사이다.

표 7. 우즈베크어의 관형격조사와 인칭조사

인 칭	단 수		복 수	
	관형격조사	인칭조사	관형격조사	인칭조사
1인칭	Mening	-(i)m	Bizning	-(i)miz
2인칭	Sening	-(i)ng	Sizning	-(i)ngiz
3인칭	Uning	-(s)i	Ularning	-lari-(s)i

다음 <표 8>은 자음으로 끝나는 명사 ‘daftar(공책)’ 뒤에 붙는 인칭조사이고, <표 9>는 모음으로 끝나는 명사 ‘sumka(가방)’ 뒤에 붙는 인칭조사의 예이다.

표 8. 자음으로 끝나는 명사 뒤에 붙는 인칭조사

수	인칭	명사+ 인칭조사	한국어
단수	1인칭	daftar-im	나의 공책
	2인칭	daftar-ing	너의 공책
	3인칭	daftar-i	그(녀)의 공책
복수	1인칭	daftar-imiz	우리의 공책
	2인칭	daftar-ingiz	너희(당신들)의 공책
	3인칭	daftar-lari	그들의 공책

표 9. 모음으로 끝나는 명사 뒤에 붙는 인칭조사

수	인칭	명사+ 인칭조사	한국어
단수	1인칭	sumka-m	나의 가방
	2인칭	sumka-ng	너의 가방
	3인칭	sumka-si	그(녀)의 가방
복수	1인칭	sumka-miz	우리의 가방
	2인칭	sumka-ngiz	너희(당신들)의 가방
	3인칭	sumka-lari	그들의 가방

우즈베크어에는 한국어의 ‘(이)다’와 같은 용언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아래 <표 10>에 제시된 인칭어미는 문장의 끝에 오는데 문장에 따라 ‘이다’와 같은 기능을 할 수 있다.

표 10. ‘(이)다’ 역할의 인칭어미

인칭	단수	복수
1	-man	-miz
2	-san	-siz
3	-dir	-dirlar

이러한 인칭어미는 주어의 인칭과 수에 따라 아래 (3)과 같이 사용한다. 그러나 한국어의 경우는 인칭이나 수와 상관없이 언제나 ‘이다’가 사용됨을 알 수 있다.

- (3) a. Men talabaman. 나는 학생이다.
 b. Sen talabasan. 너는 학생이다.
 c. U talabadir. 그는 학생이다.
 d. Biz talabamiz. 우리는 학생이다.
 e. Siz talabasiz. 당신은 학생이다.
 f. Ular talabadirlar. 그들은 학생이다.

우즈베크어에는 위와 같이 ‘이다’의 기능을 하는 인칭어미 말고도 다른 인칭어미가 있다. 유승만(2009a)에 따르면 우즈베크어와 한국어가 다른 점이 있다면 우즈베크어의 서술형 어미는 한국어와 달리 시제에 따라 서로 다른 세 가지 유형의 어미를 갖는데 각각의 어미들은 인칭과 수에 따라 형태가 다르다. 기본적으로 미래시제는 제1형 인칭어미, 현재시제는 제2형 인칭어미, 과거시제는 제3형 인칭어미와 결합한다. 우즈베크어 동사 뒤에 오는 인칭어미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표 11. 인칭어미

수	인칭	어미	제1형 인칭어미	제2형 인칭어미	제3형 인칭어미
단수	1인칭	men	-man	-man	-(i)m
	2인칭	sen	-san	-san	-(i)ing
	3인칭	u	-	-di/-ti	-
복수	1인칭	biz	-miz	-miz	-(i)k
	2인칭	siz	-siz	-siz	-(i)ngiz
	3인칭	ular	-	-dilar/-tilar	-(i)lar

위의 <표 11>에 있는 인칭어미는 문장 끝에 오는 동사어간에 붙일 수도 있고 두 문장을 연결하는 어미 뒤에 붙일 수도 있다.

한국어와 우즈베크어 기본성분(S, O, V)의 배열 순서에 대해 알아보자. 한국어와 우즈베크어 모두 서술어가 문장의 끝에 오는 SOV 유형에 속한다. 또한, 한국어와 우즈베크어의 문법 형태소는 어느 정도 대응이 되므로 번역을 할 때 일대일의 대응 관계가 성립하는 경우가 많다(오현진, 2019). 어순은 문장 차원뿐만 아니라 구(phrase) 차원에서도 언어 간의 특징이 나타나는데, 명사구 어순과 동사구 어순으로 나누어 한국어와 우즈베크어의 어순에 대해 살펴보자.

먼저 명사를 핵어로 하고 그것을 수식하는 말을 의존어로 하여 구성된 명사구의 어순을 ‘명사와 지시사(demonstrative)의 어순’, ‘명사와 형용사의 어순’, ‘명사와 관계절의 어순’, ‘명사와 부치사(adposition)의 어순’, ‘명사와 속격의 어순’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지시사는 명사의 앞이나 뒤에 오는데 한국어의 ‘이, 그, 저’, 영어의 ‘this, that’과 같이 화자와 청자, 대상 간의 근접성이나 직접성, 간접성과 관련된 표현으로 대부분의 언어에 존재하는 어휘범주이다(허용, 김선정, 2013).

- (4) a. 저 사람
b. ana u odam
저 사람

예문 (4)와 같이 한국어와 우즈베크어는 모두 ‘지시사 + 명사’ 순으로 나타난다. 영어의 경우도 한국어와 우즈베크어와 같은 어순으로 나타나지만 베트남어와 인도네시아어의 경우에는 ‘명사 + 지시사’의 형태를 취한다.

명사와 수식 형용사의 순서를 살펴보면, 아래 예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국어와 우즈베크어에서는 형용사가 앞에서 뒤에 오는 명사를 수식한다.

- (5) a. 맛있는 바나나
b. Mazali banan

위의 예에서 수식 형용사인 ‘맛있다/mazali’는 명사인 ‘바나나/banan’ 앞에 위치한다. 그러나 한국어와 우즈베크어는 형용사의 기능 면에서는 서로 다른 특징을 보인다. 한국어의 형용사는 수식어의 기능은 못 하고 서술어의 기능만을 하는 데 반해 우즈베크어의 형용사는 서술어의 기능뿐만 아니라 수식어의 기능도 가지고 있다. 이로 인해, 한국어의 형용사는 뒤에 오는 명사를 수식할 경우 ‘-(으)ㄴ’과 같은 관형사형 전성어미와 결합해야 한다. 그러나 우즈베크어에서는 영어와 마찬가지로 형용사가 아무런 문법형태소의 결합 없이 그 자체로 뒤에 오는 명사를 수식할 수 있다.

아래에 제시된 한국어와 우즈베크어 두 문장을 통해 한국어와 우즈베크어의 형용사가 가지고 있는 기능을 좀 더 상세히 비교해 보자.

- (6) a. 바나나가 맛있다.
b. Banan mazali.

위의 예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국어와 우즈베크어에서는 원형 그대로 형용사가 서술어의 기능을 한다. 이와 같은 특징은 아래에 제시된 영어와 다른 점이라고 하겠다.

- (7) Banana is delicious.

한국어의 ‘맛있다’와 우즈베크어의 ‘mazali’가 그 자체로 서술어가 될 수 있는 것과 달리 영어에서는 ‘delicious’가 be 동사인 is와 결합하여 서술어의 기능을 한다. 위의 예문 (6)과 (7)을 통해 우즈베크어의 형용사는 영어와 같이 수식의 기능도 가지고 있고, 한국어와 같이 서술어의 기능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은 일본어 형용사의 특징과도 유사한데, 다음 (8)에 제시된 일본어의 예문을 보자.

(8) a. バナナは おいしい。 바나나는 맛있다.

[bananawa] [oisi:]

b. おいしい バナナ 맛있는 바나나

[oisi:] [banana]

일본어에서는 (8a)에서와 같이 형용사가 서술어로 쓰일 때도 원형 그대로 나타나고, 명사를 수식할 경우에도 한국어의 관형사형 전성어미와 같은 어미의 도움 없이 기본형의 어미 -い [i] 형태를 그대로 유지함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형용사의 기능을 정리하자면, 한국어에서는 형용사가 동사와 같이 용언에 속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어는 ‘계사 + 형용사’ 구문이 존재하지 않고, 동사와 마찬가지로 형용사 자체가 다양한 활용을 통해서 술어를 구성한다. 그러나 뒤에 오는 명사를 수식하는 기능은 가지고 있지 않아 형용사 뒤에 명사가 올 경우 관형사형 어미와 결합해야 한다. 그러나 우즈베크어의 형용사는 일본어와 마찬가지로 수식어의 기능과 서술어의 기능을 둘 다 가지고 있어 그 자체로 뒤에 오는 명사를 수식하기도 하고, 서술어가 되기도 한다. 이런 면에서 일본어와 그 기능이 유사하다고 하겠다.

명사와 관계절의 어순을 봐도 한국어와 우즈베크어는 앞에서 살펴본 명사와 수식 형용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수식을 하는 관계절이 명사 앞에 온다.

(9) a. 내가 먹은 음식

b. Men ye-gan taom

예문 (9)를 보면 알 수 있듯이 한국어에서도 ‘내가 먹다’라는 관계절이 명사 앞에 오고, 우즈베크어에서도 ‘Men ye-gan’이 명사인 ‘taom(음식)’ 앞에 온다.

다음은 명사와 부치사(adposition)의 어순이다. 부치사란 문장 내에서 주어나 목적어 표지, 장소 표지, 시간 표지 등과 같

은 통사적·의미적 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명사와 결합한다. 부치사가 명사 앞에 놓일 경우 전치사(preposition)라고 하고, 명사 뒤에 놓일 때 후치사(postposition)라고 한다. 아래의 예문을 보자.

- (10) a. 나는 한국-에서 공부한다.
 b. Men Koreya-da o'qi-yap-man.
 나-Ø 한국-부사격 공부하-현재-인칭어미

한국어에서도 명사 ‘한국’ 뒤에 후치사 ‘에서’가 오고, 우즈베크어에서도 명사 ‘Koreya’ 뒤에 후치사 ‘da’가 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OV 언어의 보편적 특징으로 전치사가 있는 VO 언어인 영어나 중국어와는 다른 점이라고 하겠다.

다음으로 명사와 속격의 어순을 보도록 한다. 속격이란 ‘친구의 자동차’와 같이 소유격뿐만 아니라 ‘사랑의 상징’, ‘자유의 여신’과 같이 명사가 다른 명사를 수식하는 구성을 말한다. 명사와 속격의 결합에서 나타나는 어순도 문장 차원에서의 어순 유형에 따라 언어마다 차이가 난다. OV 유형의 언어들은 대체로 ‘속격 + 명사’의 어순을 갖고, VO 유형의 언어들은 ‘명사 + 속격’의 어순을 갖는다(허용, 김선정, 2013). 다음 예문을 보자.

- (11) a. 자동차의 색
 b. mashina-ning rangi

위의 예문 (11)을 통해 한국어와 우즈베크어는 ‘속격 + 명사’의 순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지금까지 한국어와 우즈베크어의 예문을 통해 두 언어의 명사구 어순에 대해 살펴보았다. 다음으로는 동사를 핵어로 하여 나머지 성분들이 의존어로 구성된 동사구의 어순을 살펴보자. 이에는 ‘동사와 목적어의 어순’, ‘본동사와 조동사의 어순’, ‘동사와 부사어의 어순’, ‘동사와 부정소의 어순’ 등이 관련된다.

먼저 아래 예문 (12)를 통해 본동사와 조동사의 어순을 살펴보자.

- (12) a. 음식을 만들어야 한다.
b. Taom-ni tayyor-lash kerak.
음식-목적격조사 만들다 -어/아야 하다

예문 (12)와 같이 한국어와 우즈베크어 모두 ‘본동사 + 조동사’의 어순을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은 영어가 ‘I have to cook food.’, 중국어가 ‘我要煮(Wǒ yào zhǔ fàn).’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조동사 + 본동사’의 특징을 갖는 것과 대조적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동사와 부사어의 어순을 살펴보면, 동사가 부사어 뒤에 놓임을 알 수 있다.

- (13) a. 그는 천천히 먹는다.
b. U sekin ye-ydi.
그-Ø 천천히 먹-현재어미

허용, 김선정(2013)에 따르면, 동사와 부사어의 어순은 문장 차원에서의 어순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데 OV 유형의 언어에서는 동사가 부사어 다음에 오고, VO 유형의 언어에서는 동사가 부사어 앞에 위치한다. 이러한 유형적 특징을 고려해 볼 때, 한국어와 우즈베크어의 ‘부사어 + 동사’의 어순은 유형적 보편성과 일치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동사와 부정소의 어순을 살펴보도록 한다. 일반적으로 부정소를 사용하여 부정문을 구성하는데 아래 예문에서와 같이 한국어와 우즈베크어에서는 ‘동사 + 부정소’의 어순을 보인다.

- (14) a. 나는 소고기를 먹지 않는다.
 b. Men mol go'shti-ni ye-may-man.
 나-Ø 소 고기-목적격 먹-부정-인칭어미

영어의 'I do not eat beef.', 중국어의 '我不吃牛肉(Wǒ bù chī niúròu).'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영어와 중국어는 '부정소 + 동사'의 특징을 보이고, 우즈베크어는 일본어 '私は牛肉を食べない(Watashi wa gyūniku o tabenai).'와 한국어 '나는 고기를 먹지 않는다.'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동사 + 부정소'의 특징을 보인다.

2.3 한국어와 우즈베크어의 문장 확대

2.3.1 한국어의 문장 체계와 복합문의 구조 및 종류

1) 한국어의 문장 체계

화자(말하는 이)는 어떤 동작이나 상태, 즉 상태에 대한 정보를 문장의 형식으로 표현하게 된다. 문장은 동작이나 상태의 주체인 주어와 동작이나 상태를 풀이하는 서술어를 기본 골격으로 한다. 문장은 주술 관계가 몇 번 나타나느냐에 따라 나눌 수 있다.

남기심(2001)에서는 주어와 서술어가 하나씩 있어서 그 관계가 한 번만 이루어져 있는 문장을 홑문장(단문)이라고 하고, 주어와 서술어 관계가 한 번 이상 이루어져 있는 문장을 겹문장(복문)이라고 하였다. 그런 다음 아래 예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복문에는 어떤 문장이 다른 문장 속에 한 성분으로서 들어가 안긴 것도 있고, 두 문장이 나란히 이어져 있는 것도 있다고 하였다.

- (15) a. 그가 돈이 많음이 분명하다.
 b. 먼동이 트고 별들이 사라진다.

예문 (15a)에서는 한 문장의 서술어가 전성어미 ‘-(으)ㄴ’을 취하여 형성되고 예문 (15b)에서는 연결어미 ‘-고’에 의해서 하나의 문장으로 이어진다. (15b)에서는 선행절과 후행절의 순서를 바꾸어도 문장이 성립하며 뜻도 달라지지 않는다. 이렇게 두 문장을 이어서 하나의 문장으로 만들어 주는 연결어미에는 ‘-고’, ‘-(으)며’, ‘-다가’, ‘-거나’, ‘-든지’ 등이 있다.

남기심(2001)의 문장 체계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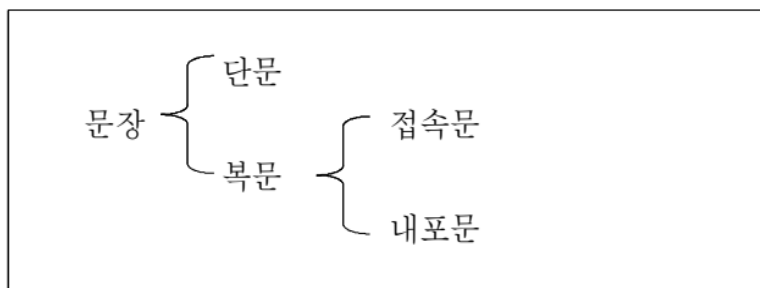


그림 1. 한국어의 문장 체계(남기심, 2001)

이익섭(2012, p. 340)은 문장에는 주어와 서술어가 하나씩 있는 단문과 더 복잡한 구조를 이루고 있는 문장이 있다고 하였고, 후자를 중문(병렬문)과 복문(내포문)으로 나누었다.

중문의 경우는 두 절이 대등하게 ‘병렬’의 방식으로 결합하며, 복문의 경우는 한 절이 다른 절의 성분 자격으로 들어가는 ‘내포’의 방식으로 결합한다. 그러나 그는 중문과 복문을 묶어 부르는 이름이 필요하지만 아직은 이를 위한 마땅한 용어가 없어 ‘합성문’이라고 칭한다고 하였다. 이익섭(2012)의 문장 분류 방법을 도식화하면 아래 그림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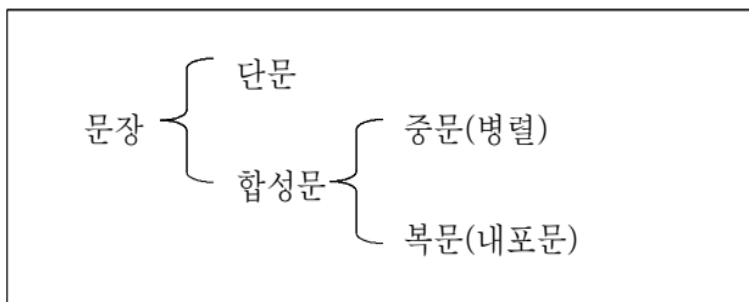


그림 2. 한국어의 문장 체계(이익섭, 2012)

유현경, 한재영, 김홍범, 이정택, 김성규, 강현화, 구본관, 이병규 황화상, 이징호(2018)는 남기심(2001)과 큰 차이가 나지 않는데 주술 관계가 한 번 나타나는 문장을 홑문장(단문)이라고 하고, 두 번 이상 나타나는 문장을 겹문장(복문)이라고 하였다. 절이 대등적이거나 종속적으로 이어지는 것을 ‘이어짐(접속)’이라고 하고 절이 다른 문장 속의 한 성분이 되는 것을 ‘안임(내포)’이라고 하였다. 접속문은 두 개의 절이 연결어미에 의하여 이어진 겹문장으로, 앞절과 뒷절의 의미적인 관계에 따라 대등적으로 이어진 문장과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으로 나뉜다.

아래 예문 (16)에서는 ‘산이 높-’과 ‘물이 맑-’이라는 두 개의 절이 연결어미 ‘-고’, ‘-(으)며’, ‘-지만’, ‘-(으)나’, ‘-거나’로 연결되어 있고, (17)에서는 ‘-(으)니까’, ‘-아서’, ‘-(으)르 수록’, ‘-(으)면’, ‘-거니와...’ 등으로 이어진 문장이다.

- (16) a. 산이 높-. 물이 맑-.
 → 산이 높고 물이 맑다.
 → 산이 높으며 물이 맑다.
 → 산이 높지만 물이 맑다.
 → 산이 높으나 물이 맑다.
 → 산이 높거나 물이 맑다.

- (17) a. 산이 높-. 물이 맑-.
 → 산이 높으니까 물이 맑다.
 → 산이 높아서 물이 맑다.
 → 산이 높을수록 물이 맑다.
 → 산이 높으면 물이 맑다.
 → 산이 높거니와 물이 맑다.

이어진 문장에서는 선행절의 용언 어간에 연결어미가 결합되고 후행절에는 종결 어미가 결합된다. 위의 예문 (16)은 대등적 연결어미(나열, 대조, 선택 등)에 의한 접속문으로 선행절과 후행절은 의미 관계가 대등적이다. (17)은 종속적 연결어미(원인, 이유, 조건 등)에 의한 접속문으로 선행절과 후행절의 의미 관계가 종속적이다.

아래 예문 (18a)와 (19b)에서 보듯이 안긴 절이 안은 절의 문장 성분으로 안길 때는 ‘-(으)ㄴ’, ‘-(으)ㄹ’ 등의 어미가 사용된다.

- (18) a. 수호가 결백하다 + ()이 밝혀졌다.
 → 수호가 결백함이 밝혀졌다. (명사절)
 b. 남자가 양복을 입었다 + () 남자가 내 앞을 지나갔다.
 → 양복을 입은 남자가 내 앞을 지나갔다. (관형절)

2) 한국어의 복합문의 구조 및 종류

허용 등(2005)에서도 문장을 주어와 서술어가 각각 하나씩 있는 홑문장(단문)과 두 개 이상의 주어와 서술어가 있는 겹문장(복문)으로 보고, 겹문장은 문장을 만드는 방식에 따라 접속문과 내포문으로 나누고 아래와 같은 그림을 통하여 설명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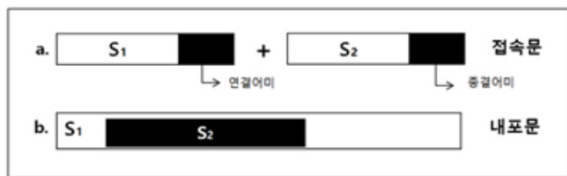


그림 3. 한국어의 접속문과 내포문 구조

접속문은 한 문장 S_1 과 다른 문장 S_2 를 연결어미로 나란히 잇는 방식으로 이어진 문장이고, 내포문은 큰 문장 S_1 의 구성성분의 하나로 또 다른 문장 S_2 가 들어 있는 문장 속의 문장이다. 내포문을 구성할 때는 S_2 의 문장에서의 기능에 따라 명사형 어미와 관형사형 어미를 사용한다.

요약하자면, 문장 속의 문장은 하나의 홑문장이 다른 문장에 안긴문장이고 이어진 문장은 두 개 이상의 홑문장이 나란히 연결된 문장이다. 안긴문장은 그 성격에 따라 명사절, 관형절, 부사절, 서술절, 인용절로 나뉜다. 이어진 문장에는 두 개의 홑문장이 동등하게 연결되는 대등적으로 이어진 문장과 앞 문장이 뒤 문장에 종속되는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 있다.

허용 등(2005)에서는 연결어미로 연결되는 문장들 사이의 의미 관계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열 가지의 의미 범주로 나누었다.

표 12. 연결어미 목록

의미 범주	어미
나열·병렬	-고, -(으)며
시간	-(으)면서, -(으)며, -자, -자마자
	-고, -아서/어서
	-다가

대조	-(으)나, -지만, -는데/-(으)ㄴ 데, -아도/어도
인과	-아서/어서, -(으)니, -(으)니까, -(으)므로, -느라고
조건	-(으)면, -(으)려면, -아야/-어야
목적·의도	-(으)러, -(으)려고, -도록, -게
가정·인정	-아도/-어도, -(으)더라도, -더라도
선택	-거나, -든지
수단·방식	-아서/어서, -고
배경	-는데/-(으)ㄴ 데, -(으)니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내포문은 선행절과 후행절로 이루어지지 않고 한 문장이 다른 문장 속에 들어가 문장 성분과 같은 일정한 역할을 한다. 내포문을 구성할 때에는 명사절, 관형절, 부사절, 서술절, 인용절이 문장 속에 들어가 문장의 안김 형태의 복문으로 이루어진다. 내포문을 만들 때는 내포문이 담당해야 하는 구성성분의 기능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전성어미를 활용한다(허용 등, 2005).

표 13. 전성어미 목록

내포문의 종류	어미 유형	어미
명사절로 안긴문장	명사형 전성어미	-(으)ㄴ, -기, -(으)ㄴ/는/ (으)ㄴ 것
관형절로 안긴문장	관형사형 전성어미	-는, -(으)ㄴ, -던, -왔던/ 었던, -(으)ㄴ
부사절로 안긴문장	부사형 전성어미	-이, -게, -도록
인용절로 안긴문장	인용적 조사	-고, -라고

명사절 내포문이란 명사형 전성어미 ‘-(으)ㄴ, -기’ 등이 결합하여 명사와 같은 기능을 하는 것을 말한다. 아래 예문을 보자.

- (19) a. 친구를 처음 만났을 때 일본 사람임을 알았다.
b. 외국어를 배우기가 어렵다.

예문 (19a)에서는 ‘일본 사람임을’이 목적어의 기능을 하며 (19b)에서는 ‘외국어를 배우기가’가 주어의 기능을 한다. 한 문장 속에 있는 다른 문장이 명사와 같은 기능을 하는 것을 명사절이라고 한다. 이러한 명사절을 구성할 때에는 ‘-(으)ㄴ, -기’와 같은 어미를 붙여서 만들거나 ‘관형사형 전성어미 -(으)ㄴ/는/(으)ㄴ/던 + 의존명사 것’으로 명사절을 만들기도 한다.

관형절 내포문은 문장에서 관형사와 같이 뒤에 오는 명사를 수식하는 기능을 하며 관형사형 전성어미로 만든다. 관형사형 전성어미에는 ‘-(으)ㄴ, -는, -(으)ㄴ, -던’ 등이 있다.

- (20) a. 어제 예쁜 꽃을 샀습니다.
b. 지금 보는 드라마가 재미있습니다.

위 예문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관형사형 전성어미는 동사인 지 형용사인 지, 시제는 무엇인지, 그리고 받침의 유무에 따라 형태가 다르다.

2.3.2 우즈베크어의 문장 체계와 복합문의 구조 및 종류

1) 우즈베크어의 문장 체계

두 개 이상의 문장을 결합하여 하나로 만든 문장이 한국어의 복합문이라면 우즈베크어의 ‘Qo‘shma gap’이 이에 해당한다. Tursunov 등(1992)은 주어와 서술어가 하나씩 있는 문장을 단문(Sodda gap), 주어와 서술어가 두 번 이상 있는 문장을 복합문(Qo‘shma gap)이라고 하였다.

우즈베키스탄 교육부(2014, p. 16-18)에서는 문장은 단문과 복합문으로 나뉘며 복합문이란 두 개 이상의 단문이 합쳐져 구성되는 문장이라고 하였다. 우즈베크어의 복합문은 접속사로 이어진 복합문과 접속사를 사용하지 않으면서 의미와 억양으로 접속되는 복합문으로 구분한다. 따라서 복합문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하였다. 그것은 대등적인 접속사와 어미로 결합한 문장과 종속적인 접속사와 어미로 결합한 문장, 접속사 비사용 문장이다.

우즈베크어에서는 한국어의 연결어미 기능을 하는 어미로 복합문을 구성할 수 있는데 때로는 복합문이 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Abdurahmonov 등(1993)에 따르면, 두 문장의 주어가 같으면 단문이고 다르면 복합문이다. 아래 예문을 보자.

(21) a. Qo'ng'iroq chalin-di **va** dars boshlan-di. (대등복합문)

종-Ø 울리-과거어미 **접속사** 수업-Ø 시작되-과거어미
종이 **울리고** 수업이 시작되었다.

b. Qo'ng'iroq chalin-**gani uchun** dars boshlan-di. (종속복합문)

종-Ø 울리-**연결어미** 수업-Ø 시작되-과거어미
종이 **울려서** 수업이 시작되었다.

c. Men qo'ng'iroq-ni chal-**gani-m uchun** dars-ni boshla-di-m. (단문)

나-Ø 종-목적격 울리-**어미**-인칭어미-**어미** 접속사 수업-목적격 시작되-과거-인칭어미

나는 종을 **울려서** 수업을 시작하였다.

(21a)와 (21b)는 접속사와 어미를 사용한 접속문의 예인데 밑줄 친 부분의 접속사와 어미가 앞에 오는 절과 뒤에 오는 절을 연결하는 기능을 하는 동시에, 앞 문장과 뒤 문장의 의미적 관계를 나타낸다. (21a)는 두 절이 대등적 관계를 맺고 있고, (21b)는 두 절이 종속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 이러한 우즈베크어의 문장은 한국어의 문장과 같다. 다시 말해, (21a)는 한국어의 대등접속문에 해당하고, (21b)는 종속접속문에 해당한다. 그러나 앞뒤 문장의 주어가 같은 (21c)의 경우는 우즈베크어에서는 복합문이 아닌 단문으로 분류한다.

2) 우즈베크어 복합문의 구조 및 종류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즈베크어의 복합문은 접속 방식에 따라 대등복합문과 종속복합문, 접속사 비사용 복합문으로 나눌 수 있다. 아래에서 우즈베크어의 복합문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자.

가. 대등복합문

Abdurahmonov 등(1993)에 의하면 대등복합문은 등위접속사로 두 문장을 대등하게 연결한 것이며, 등위접속사는 접속 방식에 따라 연합접속사, 반전접속사, 분할접속사로 나눈다. 현대 우즈베크어의 등위접속사의 유형과 그 예를 정리하면 아래 <표 14>와 같다.

표 14. 우즈베크어의 등위접속사 유형

유 형	예
연합접속사	va, hamda(그리고)
반전접속사	lekin, ammo, biroq(그러나)
분할접속사	yo(혹은), yoki(-거나), ba'zan(가끔)

등위접속사 중 연합접속사는 두 문장을 ‘나열’의 의미로 이어 주는 접속사로 ‘va’, ‘hamda(그리고)’ 등이 있다. 반전접속사는 두 문장을 ‘대립’과 ‘대조’의 의미로 연결해 주는 접속사로 주로 두 번째 문장이 첫 번째 문장에 반대될 때 쓰인다. 반전접속사에는 ‘lekin, ammo, biroq(그러나)’ 등이 있다.

분할접속사는 두 문장을 ‘선택’의 의미로 이어 주는 접속사로 ‘yo(혹은)’, ‘yoki(-거나)’, ‘ba'zan(가끔)’ 등이 있다. 이 접속사들은 두 가지 이상의 상황 중 하나를 선택할 때 사용한다.

나. 종속복합문

종속복합문은 앞 문장이 뒤 문장에 종속적으로 연결된 것으로 독립성이 있는 문장은 주절(bosh gap)이라 하고, 종속되는 문장은 종속절(ergash gap)이라 한다. 종속복합문은 보통 종속접속사로 구성되는데 가끔은 종속의 의미가 있는 어미도 종속복합문을 구성할 수 있다. 그러나 종속적인 어미로 두 문장을 합쳐 종속 복합문을 구성할 때는 두 문장의 주어가 달라야 한다. 만약 주어가 같으면, 문장이 길어도 단문으로 여겨진다. 종속접속사의 경우는 두 문장의 주어가 다르든 같은 복합문을 구성할 수 있다.

다음 <표 15>는 종속접속사와 종속의 의미가 있는 어미를 활용하여 종속복합문을 구성하는 것을 정리한 것이다.

표 15. 우즈베크어의 종속복합문

유 형	의미 범주
종속접속사	이유 관계
	조건 관계
	선택 관계
	목적 관계
종속어미	조건 관계
	수단·방식 관계
	이유 관계
	목적 관계
	가정·인정 관계

우즈베크어의 종속복합문은 두 문장을 종속접속사와 종속의 어미로 연결하여 하나의 문장으로 만들 수 있다. 그러나 위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우즈베크어 문법에서는 어미로 연결된 두 문장은 주어가 같으면 단문이고 주어가 다르면 복합문의

로 분류된다. 다시 말해, 두 문장을 어미로 합칠 때는 반드시 두 문장의 주어가 달라야 복합문이 된다.

아래 예문을 통해 종속접속사로 연결되는 접속문과 종속어미로 연결되는 접속문에 대해 알아보자.

(22) a. Men-ning ko‘z-im og‘ri-di, **shunung uchun**
(접속사)

kasalxona-ga bor-di-m. (복합문)

나-관형격 눈-인칭조사 아프-과거어미 **접속사**
병원-부사격

가-과거-인칭어미

나는 눈이 **아파서** 병원에 갔다.

b. Men-ning ko‘z-im og‘ri-**gani uchun**(어미)
kasalxona-ga

bor-di-m. (단문)

나-관형격 눈-인칭조사 아프-어미 병원-부사격
가-과거-인칭어미

나는 눈이 **아파서** 병원에 갔다.

위의 예문 (22)를 보면, 두 문장을 원인의 의미가 있는 접속사와 어미로 연결하여 하나의 문장으로 만든 것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22a)에서는 ‘shunung uchun’이라는 원인의 의미를 갖는 접속사를 사용하고 (22b)에서는 ‘-gani uchun’이라는 원인 관련 어미로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구성하고 있다. 그러나 접속사가 사용된 (22a)는 복합문으로 분류가 되는 데 반해 어미가 사용된 (22b)는 단문으로 분류된다. 이는 위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우즈베크어 문법에서는 두 문장이 어미로 연결될 경우 두 문장의 주어가 같으면 단문으로, 주어가 다르면 복합문으로 분류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아래 문장 (23a)는 복합문이 된다.

(23) Men-ning ko‘z-im og‘ri-**gani uchun** ona-m
kompaniya-ga
bor-a ol-ma-di.

나-관형격 눈-인칭조사 아프-어미 엄마-인칭조
사 회사-부사격 가 -가능성-부정-과거어미

내가 눈이 **아파서** 엄마가 회사에 갈 수 없었다.

위의 예문 (23)은 두 문장의 주어가 다르기 때문에 ‘-gani uchun’ 어미로 합쳐진 복합문이라 할 수 있다.

다. 접속사 비사용 복합문

우즈베크어에서는 접속사를 사용하지 않고 두 개의 단문을 결합하여 복합문을 만들 수 있다. 이때 문장 사이의 관계는 구어체에서는 억양으로 표시되고, 문어체에서는 쉼표(,)나 대쉬(-), 콜론(:), 세미콜론(;)과 같은 구두점으로 표시된다. 접속사 비사용 복합문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대등접속사 비사용 복합문이고 다른 하나는 종속접속사 비사용 복합문이다.

대등접속사 비사용 복합문은 앞 문장이 뒤 문장과 대등적으로 이어진 문장으로, 억양으로 연결할 수 있다. 이때 앞 문장의 동사 뒤에 쉼표를 찍거나 대쉬(-)를 사용함으로써 복합문을 표시한다. 쉼표는 앞뒤의 문장을 같은 무게로 대등하게 연결하거나 ‘동시’의 의미로 연결할 때 쓰이고, 대쉬는 앞 문장과 뒤 문장을 ‘대립, 대조’의 의미로 연결할 때 쓰인다. 아래 두 문장을 비교해 보자.

(24) a. Osmon baland, dengiz chuqur.

하늘-Ø 높다, 바다-Ø 깊다

하늘은 높고 바다는 깊다.

b. Ko‘prik-lar-ni yasa-di-k, zolim-lar - o‘t-di.

다리-복수-목적격 만들-과거-인칭어미 폭군-

복수 대쉬

지나가-과거어미
다리들을 만들었는데 폭군이 지나갔다.

예문 (24a)는 대등접속사 대신 쉼표를 사용한 대등복합문이고, (24b)는 대쉬로 두 문장을 대립적으로 연결한 문장이다. 이렇듯 우즈베크어에서는 앞 문장과 뒤 문장을 종속접속사나 어미 없이 쉼표나 대쉬로 연결하여 복합문을 만들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앞뒤 문장의 주어가 같아도 복합문으로 분류한다.

- (25) Kech uxla-di-m, kech qol-di-m. (이유)
늦잠을 자-과거-인칭어미, 지각-Ø 하-과거-인칭어미
늦잠을 자서 지각을 하였다. (이유)

위의 예문 (25)에는 두 문장 사이에 접속사나 어미가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듯 우즈베크어에서는 두 문장을 쉼표로 연결하거나 억양을 통해서도 복합문을 구성할 수 있다.

2.4 한국어와 우즈베크어의 문장 분류 대조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한국어와 우즈베크어는 알타이어족으로 같은 어족에 속하고, 서술어가 문장의 끝에 오는 SOV 형의 언어 구조를 가진다. 또한 두 언어 모두 조사와 어미 등의 문법 요소가 발달하여 어근에 형태소가 복잡하게 결합하는 교착어에 속한다.

한국어와 우즈베크어의 단문은 주어와 서술어가 한 번 나타나는 문장이고, 복합문은 주어와 서술어가 두 번 이상 나타나는 문장이다. 아래 <그림 4>는 한국어의 문장 분류 방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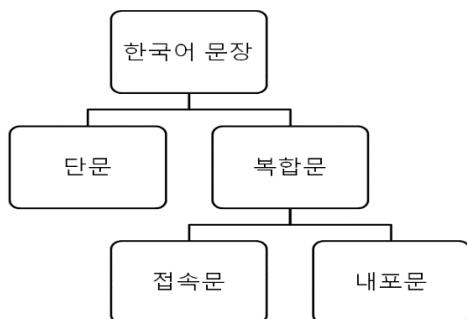


그림 4. 한국어의 문장 분류

한국어의 문장은 단문과 복합문으로 나뉜다. 복합문은 두 문장이 나란히 이어져 있는 접속문과 어떤 문장이 다른 문장 속에 한 성분으로서 들어가 안긴 내포문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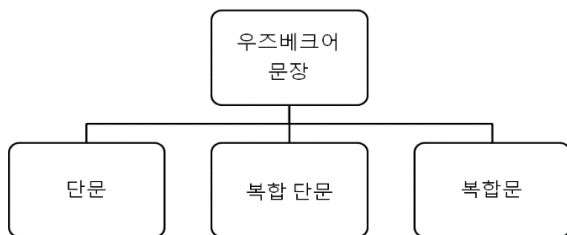


그림 5. 우즈베크어의 문장 분류

우즈베크어의 문장은 단문과 복합 단문, 복합문으로 나뉜다. 복합 단문은 한국어의 내포문에 해당한다. 한국어에서는 복합문에 접속문과 내포문이 포함되는 것과 달리 우즈베크어에서는 한국어의 내포문과 같은 ‘복합 단문’은 복합문이 아닌 단문으로 취급한다. 복합문은 앞 문장과 뒤 문장을 접속사나 어미로 구성하거나 접속사나 어미 없이 쉼표(,)나 대쉬(-)로 구성할 수 있다. 어미로 두 문장을 연결할 경우에는 앞뒤 문장의 주어가 같으면 단문으로 분류하고, 다르면 복합문으로 분류한다.

3. 한국어와 우즈베크어의 접속문 대조

문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주어와 서술어가 필요한데 문장에서 서술어가 하나만 나타나는 경우는 단문, 둘 이상이 나타나는 경우를 복합문이라고 한다. 복합문은 다시 접속문과 내포문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중 접속문은 연결어미를 사용하여 두 문장을 연결한 문장이다. 본 장에서는 한국어와 우즈베크어 접속문 구성의 특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3.1. 한국어의 접속문

한국어 접속문은 우선 크게 대등접속문과 종속접속문으로 구분할 수 있다. 앞 문장과 뒤 문장이 의미상 대등하게 연결된 문장을 대등접속문이라고 하고 앞뒤 문장이 원인과 결과의 관계 혹은 조건의 관계와 같은 의미상 종속 관계를 가지면서 연결된 문장을 종속접속문이라고 한다. 학교 문법에서는 이처럼 대등접속문과 종속접속문을 구분하여 설명하지만 한국어 교육 분야에서는 이에 대해서는 큰 의미를 두지 않는다(국립국어원, 2005, p. 111). 그보다는 연결되는 문장 사이의 의미 관계와 형태·통사 정보가 더 중요시된다. 앞 문장과 뒤 문장의 의미 관계에 따라 적절한 연결어미를 골라 쓰는 것이 중요하며 형태와 통사 정보를 알아야 정확한 문장을 생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 예를 보자.

- (1) a. 철수가 가니까 영희도 갔다. (이유)
b. 철수가 가면 영희도 갔다. (조건)
c. 철수가 가자마자 영희도 갔다. (시간)
d. 철수가 가거나 영희도 갔다. (선택)

위 예문들은 연결어미만 다를 뿐 앞 문장과 뒤 문장이 동일한 구성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연결어미가 무엇이냐에 따라 이유, 조건, 시간, 선택 등 다양한 의미 관계로 이해될 수 있다.

연결어미는 동일한 의미 범주에 속하는 것들이라고 해도 서로 맞바뀌 쓰는 것이 어색한 경우가 많다. 구어 상황에서 빈번하게 사용되는 것이 있는가 하면 문어체에서 자주 나타나는 것이 있다. 또 주로 부정적인 상황에 잘 어울리는 연결어미가 있는가 하면 실현 가능성 낮은 일과 잘 어울리는 것이 있기도 하다. 또 한 개의 연결어미가 여러 의미 범주에 포함되기도 한다. 이런 이유에서 외국인 학습자들은 앞 문장과 뒤 문장의 의미 관계를 안다고 해도 적절한 어미를 골라 쓰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앞뒤 문장의 의미 관계에 따른 연결어미의 분류는 연구자에 따라 다양하며 많게는 20가지 이상의 범주로 구분하기도 한다. 국어 문법서 중 하나인 남기심, 고영근, 유현경, 최형용(2019, p. 357)에서도 다음과 같이 연결어미를 의미 범주별로 분류하고 있다.

표 16. 남기심 등(2019)의 의미 범주별 연결어미

의미 범주	연결어미
한 가지 이상의 일을 나열	-고, -(으)며
한 가지 이상의 일이 동시에 일어남	-(으)면서
두 가지 일이 거의 동시에 잇달아 일어남	-자
서로 상반됨	-(으)나, -아도/어도/러도, -지마는, -라도, -되
조건이나 가정	-(으)면, -다면/라면, -거든, -더라도
이유나 원인	-(으)니까, -(으)므로, -아서/어서/러서
어떤 일의 결과나 상태의 지속	-아서/어서/러서
한 가지 일이 다른 일로 바뀌는 것	-다가
다른 일이 더 보태지거나 점점 더해감	-(으)ㄴ 뿐더러, -(으)ㄴ수록

의도	-(으)려고, -고자
목적	-(으)러
어느 쪽이나 상관이 없음	-거나, -든지
반드시 그래야 함	-아야/어야/러야
어떤 일의 배경	-는데 -(으)ㄴ 데
어떤 행위가 어떤 정도까지 이름	-도록

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연결어미 항목들을 의미 범주를 15개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아서/어서’나 ‘-아야/어야’ 등의 연결어미에서 ‘이르다, 푸르다’ 등의 어간의 활용형인 ‘-러서’나 ‘-러야’ 등이 함께 제시되어 있는 점이 특징적이다.

국립국어원(2005, p. 116)에서는 연결어미의 의미 범주를 10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그것은 각각 ‘나열, 시간, 대립·대조, 이유·원인, 조건, 목적, 인정, 선택, 방법·수단, 배경’이며 이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 17. 국립국어원(2005)의 의미 범주별 연결어미

의미 범주		어미
나열		-고, -(으)며
시간	동시	-(으)면서, -(으)며, -자, -자마자
	순서	-고, -아서/-어서
	전환	-다가
대립·대조		-(으)나, -지만, -는데/-(으)ㄴ 데, -아도/-어도
이유·원인		-아서/-어서, -(으)니, -(으)니까, -(으)므로, -느라고
조건		-(으)면, -(으)려면, -아야/-어야
목적		-(으)러, -(으)려고, -도록, -게
인정		-아도/-어도, -(으)ㄴ 지라도, -더라도
선택		-거나, -든지
방법·수단		-아서/-어서, -고
배경		-는데/-(으)ㄴ 데, -(으)니

또 다른 의미 범주별 분류법에는 허용 등(2005, pp. 209-301)가 있다. 허용 등(2005)의 『한국어 교육학 개론』에서 제시하고 있는 연결어미의 의미 범주의 종류는 2.3절에서 제시한 바 있다.

국립국어원(2005)이나 허용 등(2005)는 공통적으로 한국어교육 분야에서 활용을 염두에 둔 분류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거의 동일한 의미 범주에 따라 연결어미를 분류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허용 등(2005)의 의미 범주를 기준으로 우즈베크어 접속문을 살펴보기로 한다.

연결어미를 사용할 때에는 우선 올바른 형태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연결어미 중에는 변이형을 갖는 것이 있다. 이들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선행 용언의 어간 모음이 양성모음인가 음성모음인가가 기준이 되는 것이 있다. ‘-아도/어도, -아서/어서, -아야/어야’ 등은 선행 용언의 마지막 음절 어간이 ‘ㅏ, ㅑ’ 등일 경우 ‘-아도’, ‘-아서’, ‘-아야’와 결합하고 ‘ㅓ, ㅕ, ㅣ’ 등일 경우 ‘-어도’, ‘-어서’, ‘-어야’와 결합한다.

다음으로 선행 용언의 어간이 자음으로 끝나는가 혹은 모음으로 끝나는가를 고려해야 한다. 또 선행 용언의 마지막 음절이 자음으로 끝나면 ‘-으며’, ‘-으면서’, ‘-으나’, ‘-으니까’ 등과 결합하고 모음으로 끝나면 매개모음이 없는 ‘-며’, ‘-면서’, ‘-나’, ‘-니까’를 취한다.

또 선행용언이 동사인가 형용사인가가 기준이 되기도 한다. ‘-는데/(으)ㄴ데’가 대표적인데 동사 뒤에는 ‘-는데’가, 형용사 뒤에는 ‘-(으)ㄴ데’가 결합한다.

한편 연결어미를 사용할 때에는 통사 정보도 매우 중요하다. 연결어미를 사용할 때에는 제약에 대한 지식이 필요한데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시제 선어말어미 제약, 주어 일치 제약, 선행용언 제약, 문장형태 제약 등이다(허용 등, 2005, pp. 301-303). 개별 어미에 대한 상세한 정보에 대해서는 5장과 6장의 우즈베크어 번역문에 나타나는 특징을 분석하면서 다루기로 하고 여기서는 개괄적인 내용을 살펴보겠다.

연결어미를 사용할 때의 제약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있다.

첫째, 시제를 나타내는 선어말어미 ‘-았/었-’, ‘-겠-’과의 결합에 제약이 따르는 연결어미가 있다. 특히 ‘-고, -아서/어서, -(으)면서, -자마자’ 등 앞 문장과 뒤 문장의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거나 앞 문장의 사건이 먼저 일어난 다음에 뒤 문장의 사건이 일어나는 순차 관계에서는 ‘-았/었-, -겠-’ 등의 선어말어미가 나타나지 않는다.

- (2) a. *가을이 갔고 겨울이 왔다.
- b. *친구를 만났어서 영화를 봤다.
- c. *밥을 먹겠으면서 휴대폰으로 신문을 볼 것이다.
- d. *집에 도착하겠자마자 비가 올 것 같다.

위 예문들은 뒤 문장의 시제는 과거나 미래이지만 앞 문장에서는 ‘-았/었-’이나 ‘-겠-’이 올 수 없다. 이 경우 각각 ‘가고, 만나서, 먹으면서, 도착하자마자’로 써야 한다.

둘째, 앞 문장과 뒤 문장의 주어가 항상 같아야 하는 연결어미가 있다. ‘-(으)려고, -(으)러, -느라고, -(으)면서’ 등은 앞 문장과 뒤 문장의 주어야 같아야 하며 이 경우 뒤 문장의 주어는 항상 생략된다. 이와 달리 앞 문장과 뒤 문장의 주어가 항상 달라야 하는 것도 있는데 ‘-자’와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다.

- (3) a. *내가 입장권을 사려고 동생이 두 시간 동안 기다렸다.
- b. *내가 봄 옷을 사러 언니가 백화점에 갈 것이다.
- c. *내가 자느라고 엄마가 빗소리를 못 들었다.
- d. *내가 운동하면서 친구가 음악을 듣는다.

위 예문들은 앞 문장과 뒤 문장의 주어가 다르다. 이 경우 앞 문장의 행위자와 뒤 문장의 행위자가 같아야 하며 뒤 문장에는 주어를 쓰지 않아야 한다.

셋째, 앞 문장의 용언에 따라 결합에 제약이 있는 연결어미도 있다. 동사, 형용사, 서술격 조사 ‘이다’와 모두 결합할 수 있는 연결어미가 있는가 하면 순차 관계의 ‘-고’와 ‘-아서/어서’, ‘-자마자’와 목적 관계의 ‘-(으)려고’나 ‘-으러’, 이유 관계의 ‘-느라고’처럼 형용사나 ‘이다’와 결합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 (4) a. 날씨가 춥고 비가 왔다.
- b. 문제가 너무 어려워서 못 풀었다.
- c. *책이 많자마자 방이 좁아졌다.
- d. *돈이 많으려고 열심히 일한다.
- e. *좋은 학생이러 학교에 일찍 간다.
- f. *시계가 비싸느라고 사지 못했다.

위 예문들은 모두 앞 문장에 형용사나 ‘이다’가 나타난 경우이다. (4a)와 (4b) 문장은 각각 나열과 이유 관계로 해석될 수 있으며 나머지 문장은 비문이다.

넷째, 후행절의 문장 형태에서 제약이 있을 수 있다. 후행절이 평서문, 의문문, 청유문, 명령문 중 일부만 가능한 경우로 ‘-아서/어서, -느라고, -(으)려고, -자’ 등은 명령문이나 청유문과 결합하지 못한다.

- (5) a. *추워서 창문을 닫자.
- b. *기차가 도착하자 빨리 탑시다.
- c. *공부하려고 도서관에 가세요.
- d. *늦게까지 일하느라고 좀 기다려.

(5a)와 (5b) 문장은 청유문이고 (5c)와 (5d) 문장은 명령문이다. 위 문장들은 평서문과만 결합할 수 있다는 제약을 어겨 모두 비문이 된 경우이다.

다섯째, 기타 제약으로 긍정문이나 부정문이 어울릴 수 없는 연결어미가 있고 또 특정 종류의 용언과 결합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예컨대, ‘-느라고’의 경우 앞 문장에는 부정문이 올 수

없으며 뒤 문장에는 항상 부정적인 내용이 온다. 또 앞 문장의 용언은 순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동작은 올 수 없다. ‘-자마자’, ‘-자’ 등은 앞 문장과 뒤 문장 모두 부정문이 올 수 없다.

- (6) a. *과제를 안 하느라고 좋았다.
- b. *눈을 감느라고 아무것도 못 봤다.
- c. *출장에서 안 돌아오자마자 회사에 안 갔다.

예문 (6a)는 부정 표현이 올 수 없다는 제약을 어긴 경우이고 (6b)는 순간적으로 이루어지는 동작으로 어색한 문장이 되었다. (6c)의 경우는 앞 문장과 뒤 문장이 모두 잘못된 경우이다.

3.2 우즈베크어의 접속문

2장에서 밝힌 바와 같이 복합문을 구성하는 방식에는 접속사를 이용하는 방법과 어미를 이용하는 방법, 접속사 없이 쉼표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그중 한국어 접속문에 해당하는 것은 어미를 이용하여 복합문을 구성하는 것인데 우즈베크어에서는 선행절과 후행절의 주어가 다를 경우 복합 단문으로 분류된다. 따라서 여기서는 주어가 다른 선행절과 후행절의 연결에 사용되는 어미에 의한 복합문을 편의상 접속문으로 간주하고 한국어 연결어미 접속문과 대조해 보기로 한다.

우선 의미 범주별로 볼 때 우즈베크어의 어미들은 한국어에 비해 제한적이다. 앞서 3.1에서 소개한 바에 의한 한국어의 접속문 구성에 사용되는 연결어미들은 허용 등(2005)만 하더라도 의미 범주별로 적어도 10개로 분류될 수 있다. 그러나 우즈베크어에서는 한국어만큼 연결어미가 다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의미 범주별로도 제한적으로만 존재한다. 3.1에서 제시한 한국어 연결어미의 의미 범주를 우즈베크어에 적용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18. 한국어에 대응하는 우즈베크어의 복합문 구성 방법

의미 범주	한국어	우즈베크어	
		연결어미	접속사와 쉼표
나열·병렬	-고, -며		va, hamda, 쉼표
시간	-고, -아서/어서	-(i)b	
	-자마자	-(i)shi bilanoq	
	-다가	-(a)yotib	
대조	-지만, -(으)나		ammo, lekin, biroq, 쉼표
이유	-아서/어서, -(으)니까, -느라고, -(으)므로	-gani uchun	shuning uchun, 쉼표
조건	-(으)면	-sa	
	-(으)려면	-moqchi bo'lsa	
	-아야/어야	-sagina	
목적·의도	-(으)러, -(으)려고	-(i)sh uchun	deb, 쉼표
	-도록	-(a)digan qilib	
	-게	-ligi uchun	
가정·인정	-아도/어도, -더라도, -(으)르더라도	-sa ham	
수단·방식	-아서/어서, -고	-(i)b	
선택	-거나, -든지		yoki, 쉼표
배경	-아서/어서, -는데, -(으)니		쉼표

위 <표 18>에서 알 수 있듯이 우즈베크어의 연결어미는 제한적인 의미 범주에서만 사용된다. 나열·병렬 관계, 대조 관계, 선택 관계, 배경 관계의 연결어미가 존재하지 않으며, 이와 같은 의미 관계를 나타내어야 할 경우 우즈베크어에서는 접속사를 사용하거나 쉼표를 사용한다. 접속사로 두 문장을 이어 주는

경우 쉽표도 똑같은 의미 기능을 하지만, 어미와 접속사가 둘 다 존재하지 않는 의미 범주인 배경 관계에서는 쉽표가 앞 문장과 뒤 문장의 의미 관계를 표시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다. 또 나열·병렬 관계, 대조 관계의 접속사 ‘va’, ‘hamda’는 의미가 완전히 일치하는 데다가 사용에 별도의 제약이 없어서 서로 바뀌 써도 무방하다.

우즈베크어에서는 시간, 대조, 이유, 조건, 목적·의도, 양보, 수단·방식 관계를 나타내는 연결어미가 존재하는데 한국어 연결어미와 비교해 볼 때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진다.

첫째, 우즈베크어의 연결어미는 앞뒤 문장의 주어가 다른 경우에만 두 문장을 연결하여 복합문을 구성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앞 문장과 뒤 문장의 주어가 같을 경우 단문으로 분류되는 점이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다.

(7) a. Cholsu bosh-i og‘ri-**gani uchun** ona-si(주어) ish-ga bor-a ol-ma-di.(복합문)

철수-Ø 머리-인칭조사 아프-**어미** 어머니-Ø 회사-부사격
가-가능성-부정-과거어미

철수가 머리가 **아파서** 어머니는 회사에 못 갔다.

b. Cholsu(주어) bosh-i og‘ri-**gani uchun** Cholsu maktab-ga bor-a ol-ma-di.(단문)

철수-Ø 머리-인칭조사 아프-**어미** 철수-Ø 학교-부사격
가-가능성-부정-과거어미

철수가 머리가 **아파서** 철수가 학교에 못 갔다.

예문 (7a)와 (7b)는 앞 문장과 뒤 문장의 주어 일치 여부에 의해 전자는 복합문으로, 후자는 단문으로 분류된다. 한국어를 기준으로 볼 때 똑같은 구성을 보이지만 단지 주어가 일치하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의해 두 문장은 성격이 다른 문장으로 분류되는 것이다. 따라서 어미 중에는 앞 문장과 뒤 문장의 주어가 일치해야 한다는 제약을 가진 ‘수단·방법’의 ‘-(i)b’는 해당 어미를 이용하여 연결된 모든 문장이 단문일 수밖에 없다.

둘째, 한국어에서는 하나의 의미 범주 내에도 여러 개의 연결어미가 포함되지만 우즈베크어에서는 하나의 의미 범주에 하나의 연결어미만 존재할 뿐이다. 물론 조건 관계의 의미 범주에 속하는 ‘-(으)면’과 ‘-(으)려면’, ‘-아야/어야’의 경우 우즈베크어에서도 각각에 대응하는 연결어미가 있어서 외견상 ‘조건’의 의미 범주에는 여러 개의 연결어미가 존재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한국어의 ‘-(으)면’과 ‘-(으)려면’, ‘-아야/어야’의 경우 ‘조건’이라는 큰 범주에 속하기는 하지만 이들의 세부 의미와 사용 규칙이 각각 뚜렷하여 호환이 안 되는 것을 감안하면 우즈베크어에서도 세 개의 연결어미가 존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그 외 나머지 경우에는 한 의미 범주에 하나의 연결어미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 한국어에서 이유·원인의 의미로 이어지는 문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아서/어서, -(으)니까, -느라고, -(으)므로’ 등 다양한 어미가 사용되지만 우즈베크어에는 어미 ‘-gani uchun’ 이 그 모든 세부 의미에 두루 사용되고 있다.

또 한국어에서는 ‘-고’, ‘-아서/어서’ 등이 순차, 이유, 배경 등의 의미로 사용될 수 있는 것처럼 하나의 연결어미가 여러 의미 범주에 속하는 경우가 있지만 우즈베크어에서는 ‘-(i)b’만이 순차 관계와 수단·방식 관계에 공통으로 사용될 수 있다. 이를 통해 우즈베크어의 연결어미는 한국어에 비해 그 수가 제한적이며 사용 규칙 또한 단순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8) a. Yomg‘ir ko‘p yog‘-ayot-**gani uchun** soyabon-dan foydalan-ish kerak.

비-Ø 너무 오-현재어미-어미 우산-부사격 쓰-보조동사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우산을 써야 해요.

b. Ob-havo judayam issiq bo‘l-**gani uchun** iltimos eshik-ni och-ib yubor-ing.

날씨-Ø 너무 덥다 되-어미 문-목적격 열-보조동사-명령형어미

날씨가 너무 더우니까 문을 좀 열어 주세요.

예문 (8)의 한국어 연결어미 ‘-아서/어서’와 ‘-(으)니까’는 이유의 의미 범주에 속하는 것이고 뒤 문장의 종류에 따라 구별되어 사용된다. 그러나 우즈베크어에서는 모두 ‘-gani uchun’으로 문장을 연결하였으며 특별한 제약이 없다. 그러므로 우즈베크어 학습자들은 한국어 연결어미의 세부적인 의미와 기능을 이해하지 못해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한국어 연결어미 사용에서 용언의 어간이 자음으로 끝나는 경우와 모음으로 끝나는 경우 형태를 달리하는 변이형이 있듯이 우즈베크어의 연결어미도 한국어와 마찬가지로 선행용언이 자음으로 끝나는가 모음으로 끝나는가에 따라 변이형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우즈베크어의 -(i)shi bilanoq(-자마자)는 선행용언의 어간이 자음으로 끝나면 ‘-ishi bilanoq’, 모음으로 끝나면 ‘-shi bilanoq’가 온다. 또 -(a)yotib(-다가)도 선행용언이 자음으로 끝나면-ayotib과 결합하고, 모음으로 끝나면 -yotib과 결합한다.

(9) a. Cholsu ket-**ishi bilanoq** Yongi kel-di.

철수-Ø 가-어미 영이-Ø 오-과거어미

철수가 **가자마자** 영이가 왔다.

b. It-ni ushla-**shi-m bilanoq** men-ning qo‘l-im-ni tishla-di.

개-목적격 쓰다듬-어미-인칭어미 어미 나-관형격 손-인칭조사

-목적격 물-과거어미

개를 쓰다듬자마자 내 손을 물었다.

c. Men kitob-ni o‘qi-**yotib** uxla-b qol-ibman.

나-Ø 책-목적격 읽-어미 잠-보조동사-과거어미

나는 책을 **읽다가** 잠을 들었어요.

d. Shamol es-**ayotib** yomg‘ir yog‘-a boshladi.

바람-Ø 불-어미 비-Ø 오-보조동사

바람이 **불다가** 비가 오기 시작했어요.

예문 (9a)의 선행용언은 ‘ket-’ 즉 자음으로 끝났으므로 어미 ‘-ishi bilanoq’와 결합하였고, (9b)의 ‘ushla-’는 모음으로 끝났기에 어미 ‘-shi bilanoq’와 결합하였다. (9c)의 o‘qi-’는 모음으로 끝나서 ‘-yotib’과 결합하고, (9d)의 ‘es-’는 자음으로 끝나서 ‘-ayotib’과 결합한 것이다.

넷째, 한국어에서 연결어미는 어말어미이다. 즉 연결어미는 선행용언과 선어말어미 다음에 결합한다. 그러나 우즈베크어의 연결어미는 경우에 따라 뒤에 인칭어미가 결합할 수 있다. 인칭어미는 주어가 3인칭인 문장에서는 나타나지 않고 1인칭이나 2인칭 주어의 경우 사용된다.

(10) a. Men universitet-ga kir-**sa-m** men-ning ota-ona-m-ga yaxshi.

나 대학교-부사격 입학하-**어미**-인칭어미 나-관형격 부모님-

인칭조사-부사격 좋다

내가 대학교에 **입학하면** 나의 부모님이 좋아하신다.

b. Sen universitet-ga kir-**sa-ng** sen-ning ota-ona-n-ga yaxshi.

너 대학교-부사격 입학하-**어미**-인칭어미 너-관형격 부모님-인칭조사- 부사격 좋다-Ø

네가 대학교에 **입학하면** 너의 부모님이 좋아하신다.

c. U universitet-ga kir-**sa** u-ning ota-ona-si-ga yaxshi.

그 대학교-부사격 입학하-**어미** 그-관형격 부모님-인칭조사-부사격 좋다-Ø

그가 대학교에 **입학하면** 그의 부모님이 좋아하신다.

(10a)의 경우 선행문의 주어는 1인칭으로 이 경우 연결어미 ‘-sa’ 다음에 인칭어미 ‘m’이 결합하였고 (10b)는 2인칭 주어문으로 인칭어미 ‘ng’가 결합하였다. 그러나 (10c)에는 3인칭 주어가 사용되어 인칭어미가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인칭어미는 연결어미 사이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

- (11) Men bor-ma-**sa-m ham** u kut-a-di.
 나-Ø 가-부정-**어미**-인칭어미-**어미** 그-Ø 기다리-
 현재어미-인칭어미
 내가 안 **가도** 그는 기다린다.

예문 (11)를 보면 어미 ‘-sa ham’ 사이에 1인칭에 사용하는 인칭어미가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용 규칙은 띄어쓰기에 의해 구분되는 두 개의 형태소로 구성된 인칭어미에서 나타나지만 모든 두 개의 형태소에서 발견되는 것은 아니다. 원래부터 어미로 사용된 ‘기본 어미’ ‘-moqchi bo‘lsa’에는 인칭어미가 뒤에 결합한다. 그러나 명사형 어미(-(i)shi) + 후치사, 형동사형 어미(-gani) + 후치사, 조건 어미(-sa) + 후치사 결합에 의한 ‘2차 어미’ ‘-(i)shi bilanoq’, ‘-gani uchun’, ‘-(i)sh uchun’, ‘-ligi uchun’, ‘-sa ham’ 등에는 인칭어미가 두 구성 요소 사이에 나타난다.

다섯째, 우즈베크어 연결어미는 형용사와 명사에 결합하는 경우 반드시 ‘되다’에 해당하는 동사 ‘bo‘lmoq’를 사용해야만 두 문장을 연결할 수 있다. 즉, ‘되다’에 해당하는 동사 ‘bo‘lmoq’를 쓰지 않고 형용사와 명사에 그대로 쓰면 틀린 문장이 된다. 예를 들어 우즈베크어에서 ‘인정·가정’의 의미가 있는 연결어미 ‘-sa ham’은 동사, 형용사, 명사에 관계없이 잘 어울려 쓰인다. 그러나 형용사와 명사가 결합할 때에는 반드시 형용사와 명사 뒤에 ‘bo‘lmoq(되다)’가 와야 한다.

- (12) a. Ob-havo yaxshi bo‘l-**saham** u bora olmaydi.
 날씨-Ø 좋다 되-**어미** 그-Ø 가-가능성-부정-현재어미
 날씨가 **좋아도** 그는 가지 못한다.
 b. Men talaba bo‘l-**gani-m uchun** ona-m uy
 ishlar-ini

buyur-may-di.

나-Ø 학생 되-어미-인칭어미-어미 집안일-목적
격 시키-부정-
현재시제어미
나는 **학생이라서** 어머니는 집안일을 안 시킨다.

(12a)에는 형용사 ‘yaxshi’가 사용되었고 ‘bo‘lmoq’의 어간 ‘bo‘l’에 ‘-sa ham’이 결합하였다. 또 (12b)의 앞 문장에는 명사 ‘talaba’가 사용되어 여기서도 역시 ‘bo‘l-’이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4. 한국어의 내포문에 대응하는 우즈베크어 문장 대조

이 장에서는 한국어 내포문과 이에 대응하는 우즈베크어 문장과 대조를 통해 두 언어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우즈베키스탄 학습자가 한국어 내포문을 학습할 때 겪을 수 있는 어려운 점을 예측해 본다.

한국어와 우즈베크어는 교착어이기 때문에 다양한 격조사가 발달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사와 형용사 어간에 풍부한 어미가 첨가되어 활용되기 때문에 문장 성분을 비교적 쉽게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어는 우즈베크어보다 조사와 어미가 복잡하여 우즈베키스탄인 한국어 학습자가 한국어의 문장을 이해하고 구성하는 데에 큰 어려움을 겪는다. 남빅토르(2012)에 따르면 우즈베키스탄인 한국어 학습자들은 문법 중에서도 어미에서 가장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였고, 어미 중 대치 오류가 많이 나타났다고 하였다.

한국어와 우즈베크어의 문장구성법이나 어순 등 통사적 특징을 대조해 보면 큰 차이가 없지만 문장을 분류하는 방법에는 큰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한 문장이 다른 문장을 한 성분으로 안고 있는 내포문을 한국어에서는 복합문 중의 하나로 분류한다. 하지만 이에 대응하는 우즈베크어 문장은 이와는 달리 복합문으로 분류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 한국어의 내포문에 대응하는 우즈베크어 문장은 우즈베크어 문법에서 ‘sodda gap(단문)’ 또는 ‘murakkablashgan sodda gap(복합 단문)’으로 불린다. 이로 인해 우즈베키스탄인 한국어 학습자들은 한국어의 내포문을 단문으로 인식할 뿐만 아니라 한국어의 내포문을 구성할 때도 어려움을 겪는다.

이 장에서는 한국어의 내포문과 이에 대응하는 우즈베크어 복합 단문의 특징을 파악한 후 이를 대조해 본다.

4.1 한국어의 내포문

한국어 내포문은 명사절, 관형절, 부사절, 서술절, 인용절로 다른 문장 속에 안겨 있다. 이 장에서는 이들 중 연구의 대상이 되는 명사절 내포문과 관형절 내포문의 특징을 살펴보도록 한다. 먼저 명사절 내포문을 살펴보자.

명사절은 문장이 명사화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한 문장의 서술어가 명사형 전성어미 ‘-(으)ㄴ’이나 ‘-기’ 또는 ‘관형사형 전성어미 + 것’을 취하여 형성된 것이다. 남기심 등(2019)은 한국어의 명사절에 대해 명사화되어 명사가 쓰일 수 있는 자리에 오는 절로 격조사와 결합하여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 부사어 등 다양한 문장 성분으로 쓰인다고 하였다. 아래 예문을 보자.

- (1) a. 그가 범인임이 알려졌다.
- b. 나는 네가 행복하기를 바란다.
- c. 나는 네가 장학금을 받은 것을 기뻐한다.

(1a)에서는 안긴문장인 ‘그가 범인이다’가 명사형 전성어미 ‘-(으)ㄴ’과 결합하여 문장에서 주어의 역할을 하고, (1b)에서는 안긴문장인 ‘네가 행복하다’가 명사형 전성어미 ‘-기’와 결합하여 문장에서 목적어의 역할을 한다. 이때 각 문장의 서술어는 ‘알려지다’와 ‘바라다’이다. (1c)의 경우 ‘네가 장학금을 받다’에 관형사형 어미 ‘은’과 ‘것’이 결합하여 서술어의 목적어 역할을 한다.

‘-(으)ㄴ’ 명사절은 주로 ‘알려지다, 드러나다, 밝혀지다, 현명하다, 적합하다’ 등의 용언을 서술어로 하는 문장의 성분으로 쓰이며 ‘-기’ 명사절은 ‘바라다, 희망하다, 기대하다, 좋다’ 등의 용언을 서술어로 하는 문장의 성분으로 쓰인다. ‘-(으)ㄴ’의 경우 이미 이루어졌거나 결정된 일에 많이 사용되며, ‘-기’의 경우 아직 결정되지 않은 일이나 동작의 과정이나 방법을 나타내는 일에 주로 사용된다(허용 등, 2005).

명사형 어미 ‘-(으)ㄴ’, -기’와 어울리는 서술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9. 명사형 전성어미와 어울리는 서술어

‘-(으)ㄴ’과 어울리는 서술어	형용사	필요하다, 바람직하다, 중요하다, 마땅하다, 분명하다, 확실하다, 이상하다, 옳다, 어리석다 등
	자동사	알려지다, 드러나다, 밝혀지다 등
	타동사	보다, 발견하다, 듣다, 알다, 알리다, 밝히다, 깨닫다, 모르다, 기억하다, 짐작하다, 발표하다, 주장하다, 지적하다, 보고하다 등
	기타	사실이다, 잘못이다 등
‘-기’와 어울리는 서술어	형용사	적합하다, 적당하다, 알맞다, 쉽다, 어렵다, 좋다, 싫다. 괴롭다, 힘들다, 지루하다 등
	타동사	좋아하다, 싫어하다, 두려워하다, 바라다, 희망하다, 빌다, 기다리다, 기대하다, 그치다, 시작하다, 약속하다, 결심하다, 약속하다, 제안하다 등
	기타	일쭉이다, 심상이다, 예사이다 등

다음은 한국어의 관형절 내포문에 대해 알아보자. 관형절 내포문이란 안긴문장이 관형사와 같은 구실, 즉 뒤에 오는 명사를 수식하는 문장을 말한다. 아래 문장은 (2)로 표시된 안긴문장이 안은문장 안에서 관형어의 기능을 하여 뒤에 오는 명사를 수식함을 보여준다.

- (2) a. 너는 [유나가 결혼한다는] 소식을 들었니?
b. 나는 [어제 민수가 산] 꽃병을 깨버렸다.

예문 (2)의 괄호 속에 있는 문장은 각 문장에서 각각 뒤에 오는 ‘소식’과 ‘꽃병’을 꾸미는 관형어의 역할을 한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의 단어가 아니라 ‘주어 + 서술어’로 구성된 절로, 어

간에 ‘-는, -(으)ㄴ’을 붙여 구성되었다. 이러한 관형절을 구성하는 전성어미로는 위에 사용된 ‘-는, -(으)ㄴ’ 외에 다음과 같은 ‘-던, -(으)ㄹ’ 등이 있다.

- (3) a. 부산은 [내가 어릴 때 살던] 곳이다.
b. 이것은 [내가 입을] 옷이야.

관형절을 만드는 관형사형 전성어미는 결합하는 어간의 품사와 시제, 음운 정보에 따라 달라진다. 즉, 어간이 동사인지 형용사인지에 따라 어미의 형태가 다르고, 시제가 과거, 현재, 미래인지에 따라 어미의 형태가 다르다. 또한, 어간이 모음으로 끝나는지 자음으로 끝나는지도 관형사형 전성어미의 선택에 영향을 준다. 아래 표를 보자.

표 20. 관형사형 전성어미의 종류

품사 시제	동사		형용사	
	어미	예	어미	예
과거	-(으)ㄴ	(서울에) 간 사람 먹은 음식	-던	크던 집 작던 집
현재	-는	가는 사람 먹는 음식	-(으)ㄴ	큰 집 작은 집
미래	-(으)ㄹ	갈 사람 먹을 음식	-(으)ㄹ	클 작을

동사의 경우 과거에는 받침이 없으면 ‘-ㄴ’, 받침이 있으면 ‘-은’을 쓰고, 현재에는 받침의 유무와 상관없이 ‘-는’을 쓰며, 미래에는 받침이 없으면 ‘-ㄹ’, 받침이 있으면 ‘-을’을 쓴다. 형용사의 경우에는 과거에는 받침의 유무와 상관없이 ‘-던’을 쓰고, 현재에는 받침이 없으면 ‘-ㄴ’, 받침이 있으면 ‘-은’을 쓰고, 미래에는 받침이 없으면 ‘-ㄹ’, 받침이 있으면 ‘-을’을 쓴다. 그

러나 형용사의 경우 과거 ‘-던’은 회상의 의미를 갖고, ‘-(으)르’은 추정의 의미를 갖는다(허용 등, 2005).

4.2 우즈베크어의 복합 단문

우즈베크어 문법에서도 최소한 하나의 주어와 하나의 서술어가 있어야 하나의 문장으로 여긴다. 이렇게 하나의 주어와 하나의 서술어로 구성된 문장을 단문이라고 하며, 두 개 이상의 주어와 서술어로 구성된 문장을 복(합)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우즈베크어 문법에서 문장을 분류하는 방법은 한국어 문법에서 분류하는 방법과 다르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어 문법에서는 어느 문장의 성분으로 존재하는 문장을 내포문이라고 부르고 이를 복문으로 분류하지만, 우즈베크어 문법에서는 (복합)단문으로 분류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즈베크어의 학교 문법에 따른 분류 방식을 참조하여 문장 속의 문장이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우즈베크어의 복합 단문은 안긴문장이 안은문장 안에서 어떠한 성분의 역할을 하는지에 따라 명사형 어미, 형동사형 어미, 부사형 어미 등을 결합하여 구성한다. 아래 <표 21>에 제시된 우즈베크어의 복합 단문 구성 어미를 살펴보자.

표 21. 우즈베크어의 복합 단문 구성 어미

어미 유형	어미
명사형(harakat nomi) 어미	-(i)sh
형동사형(sifatdosh) 어미	-gan(과거), -(a)yotgan(현재), -(a)digan(미래)

먼저 ‘주어 + 서술어’가 명사형 어미와 결합하여 이루어지는 한국어의 명사절에 대응하는 문장에 대해 살펴보자. 우즈베크어에서 ‘주어 + 서술어’에 명사형 어미가 결합하면 안은 문

장 속에서 명사와 같은 역할을 한다. 즉, 주어나 목적어의 역할을 한다. 아래 (4)에서와 같이 안은문장 안에 명사의 역할을 하는 안긴문장을 넣을 때는 동사의 어간에 ‘-(i)sh’라는 명사형 어미를 붙여서 만든다.

(4) a. U Koreya-ga ket-ish-i aniq edi.

그-Ø 한국-부사격 가-명사형 어미-인칭어미 분명하다.
그가 한국을 떠났음이 분명하다.

b. Ingliz tili kitob-ni o‘qi-sh qiyin.

영어책-목적격 읽-명사형 어미 어렵다
영어책을 읽기가 어렵다.

c. Men u xato qil-ish-i-ni bil-ma-gan edi-m.

나-Ø 그-Ø 실수하-명사형 어미-인칭-목적격 알-부정-과거-인칭어미

나는 그가 실수한 것을 몰랐다.

d. Men kino ko‘r-ish-ni yoqtir-aman.

나-Ø 영화 보-명사형 어미-목적격 좋아하-현재어미
나는 영화 보기를 좋아한다.

예문 (4a)의 ‘U Koreyaga ketishi’와 (4b)의 ‘Ingliz tili kitobini o‘qish’는 서술어의 주어 역할을 한다. (4c)의 ‘u xato qilishi’와 (4d)의 ‘kino ko‘rish’는 서술어의 목적어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주어 + 서술어’가 어느 문장 안에서 주어나 목적어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어간 뒤에 ‘-(i)sh’를 붙여야 한다.

다음으로 ‘주어 + 서술어’가 뒤에 오는 명사를 수식하는 역할을 하는 문장, 즉 한국어의 관형절에 대응하는 문장에 대해 살펴보자. 이 경우 앞 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어에서는 결합하는 어간의 품사와 시제, 음운 정보에 따라 관형사형 어미의 형태를 달리 사용한다. 즉, 어간이 동사인지 형용사인지에 따라 어미의 형태가 다르고, 시제가 과거, 현재, 미래인지에 따라 어미의 형태가 다르다. 또한, 어간이 모음으로 끝나는지 자

음으로 끝나는지도 관형사형 전성어미의 선택에 영향을 준다. 그러나 우즈베크어의 형동사형 어미는 문법적인 기능 면에서는 한국어의 관형사형 어미와 유사하지만 한국어와는 달리 형용사와는 결합하지 못하고 동사와만 결합한다. 동사의 시제에 따라 ‘-gan(과거), -(a)yotgan(현재), -(a)digan(미래)’을 사용한다.

김병일(2006, p. 60)은 한국어의 관형사형 어미에 대응하는 우즈베크어의 어미를 ‘형동사’라고 부르고, 동사의 형태를 가지고 있어 동사의 범주에 속하지만 사전적 의미로 볼 때 형용사가 가깝다고 하였다. 동사는 주어의 행동을 규정하고 보어의 역할을 하지만 형동사는 한정어로서 수식어의 역할을 하고, 문장에서 명사와 함께 주어, 수식어, 보어의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그가 제시한 예문은 아래와 같다.

(5) Karim o‘qi-di. 카림은 읽었다.

카림 읽-과거형 어미

O‘qi-gan Karim 읽은 카림

읽-형동사형 어미 카림

아래 예문 (6)에서 우즈베크어에 해당하는 한국어 문장들은 각각 과거, 현재, 미래 시제를 나타내는 관형사형 전성어미와 결합된 관형절 내포문으로 뒤에 오는 명사를 수식한다.

(6) a. Kecha ko‘r-**gan** kino qiziqarli bo‘l-di.

어제 보-**형동사형 어미** 영화-Ø 재미있다 되-과거어미

어제 본 영화가 재미있었다.

b. Men ana u yer-da ket-**ayotgan** odam-ni bil-a-man.

나-Ø 저기-부사격 가-**형동사형 어미** 사람-목적격 알-현재 어미-인칭어미

나는 저기 가는 사람을 안다.

c. U yer-ga bor-**adigan** odam men-ning do‘st-im.

거기-부사격 가-형동사형 어미 사람-Ø 나-관형격 친구-인칭어미
 거기에 갈 사람은 내 친구이다.

두 언어의 관형절 내포문은 모두 명사를 수식해 주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동일하다고 하겠다. 하지만 위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우즈베크어의 경우에는 형용사 뒤에 형동사형 어미를 결합하여 안긴문장을 만들 수 없다는 점이 한국어와 다르다. 아래 예문은 이를 잘 보여준다.

(7) a. Men **kichkina** uy-ni sotib ol-yap-man.

나-Ø 작다-Ø 집-목적격 사-미래-인칭어미

나는 작은 집을 살 거다.

b. *Men **kichkina-gan/yotgan** uy-ni sotib ol-yap-man.

나-Ø 작다-형동사형 어미 집-목적격 사-미래-인칭어미

나는 작은 집을 살 거다.

마지막으로 동사의 형태를 가지는 문장, 즉 한국어의 부사절에 대응하는 문장에 대해 살펴보자.

김병일(2006, p. 63)은 한국어의 부사형 전성어미에 대응하는 우즈베크어의 어미를 ‘부동사’라고 부르고, 동사의 형태를 가지고 있으나 인칭, 수, 시제와는 상관없고 의미적으로 부사의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부동사의 형성 방법으로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동사어간에 접사 ‘-(i)b, a/y’를 첨가하여 만들고 두 번째는 ‘-gali, -guncha, -gach’를 첨가하여 만든다고 하였다.

(8) a. Mashina-ni to‘xtat-**ib** yubor-ing.

자동차-목적격 세워-부사형 어미 주-명령형 어미

자동차를 세워 주세요.

b. U o'yla-y-o'yla-y uy-dan chiq-ib ket-di.

그-Ø 생각하-부사형 어미 생각하-부사형 어미 집-부사격

나가-보조동사 -과거어미

그는 생각하고 생각하여 집에서 나가 버렸다.

c. (Men) sen-ning yaxshilig-ing-ni o'l-guncha unut-may-man.

너-관형격 선행-인칭조사-목적격 죽-부사형 어미 잊-부정-인칭어미

너의 선행을 죽을 때까지 잊지 않을 것이다.

지금까지 한국어의 내포문에 대응하는 우즈베크어의 복합 단문을 대조해 보았다. 한국어에서 명사절과 관형절 내포문을 만드는 어미와 이에 대응하는 우즈베크어 어미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22. 한국어 내포문과 우즈베크어 복합 단문 구성 어미

	어미 유형	어미
한국어 내포문	명사형 어미	-(으)ㅁ, -기, -(으)ㄴ/는 것
	관형사형 어미	-는, -(으)ㄴ, -던, -(으)ㄹ
우즈베크어 복합 단문	harakat nomi (명사형 어미)	-(i)sh
	sifatdosh (형동사형 어미)	-gan(과거), -(a)yotgan(현재) -(a)digan(미래)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 한국어와 우즈베크어는 문장을 구성하는 방법이나 어순 등 통사적 측면에서 큰 차이가 없지만, 문장을 분류하는 방법에는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한국어에서는 한 문장이 그 속에 다른 문장을 한 성분으로 안고 있는 문장을 내포문이라고 부르고, 이를 접속문과 함께 복합문

으로 분류하는 데 반해 우즈베크어에서는 안긴문장이 안은문장의 하나의 성분의 역할을 한다는 점에 초점을 두어 이를 ‘sodda gap(단문)’ 또는 ‘murakkablashgan sodda gap(복합 단문)’으로 분류한다.

이어지는 장에서는 우즈베키스탄 학습자들이 우즈베크어를 한국어로 번역한 문장에 나타난 특징을 접속문(5장)과 내포문(6장)의 순으로 제시한다.

5. 우즈베크어·한국어 번역에 나타난 접속문 특성 연구

이 장에서는 우즈베크어·한국어 번역에 나타난 접속문의 특성을 분석한다. 3장에서의 한국어와 우즈베크어를 대조·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어에서는 연결어미를 사용하여 접속문을 만들지만 우즈베크어에서는 어미뿐만 아니라 접속사나 쉼표를 이용해서도 접속문을 만들 수 있었다. 따라서 우즈베크어를 모어로 하는 한국어 학습자들이 우즈베크어를 한국어로 번역할 때 우즈베크어의 간접이 나타날 것으로 예측된다.

5.1 우즈베크어·한국어 번역에 나타난 연결어미 사용 수

한국어의 연결어미는 그 종류가 많다. 또한, 서로 다른 어미가 유사한 의미나 기능을 가져 그 체계가 아주 복잡하다고 할 수 있다. 역으로 같은 의미 범주에 속하는 어미들도 각각의 고유한 제약이 있어 교체하여 쓸 수 없는 경우가 있다는 특징을 갖는다. 그러므로 우즈베크스탄인 학습자들이 한국어의 연결어미를 학습할 때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이 절에서는 우즈베크스탄인 한국어 학습자의 우즈베크어·한국어 번역 문장에 나타난 연결어미의 특징에 대하여 살펴본다. 또한, 두 문장을 연결할 때 연결어미를 사용하지 않을 시 접속사나 쉼표 등 어떠한 방법을 사용하는지도 파악해 보고자 한다.

1.3절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초급 학습자 65명과 중급 학습자 65명, 총 130명의 우즈베크스탄인 학습자들에게 각각 우즈베크어로 된 36개의 문장을 한국어로 번역할 것을 요청하였다. 이 중 연결어미를 사용할 것으로 예측한 문장이 18개 문장이다. 우즈베크어·한국어 번역을 요청한 우즈베크어 문장을 한국어 번역문과 함께 의미 범주를 명시화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23. 번역에 사용된 우즈베크어 문장과 한국어 대역문 1

연번	의미 범주	우즈베크어와 한국어 대역문
1	나열·병렬	Men ashula aytdim, ukam raqsga tushdi. (나는 노래를 부르고 동생은 춤을 추었다.)
		Men TV ko‘rdim, do‘stim radio eshitdi. (나는 TV를 보았으며 친구는 라디오를 들었다.)
2	시간	Men yuvinaman, keyin nonushta qilaman. (나는 세수를 하고 아침을 먹겠다.)
		U ertalab turib, maktabga ketdi. (그는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에 갔다.)
3	이유	Kamola kech uxlagani uchun maktabga kech qoldi. (카몰라는 늦잠을 자서 학교에 지각하였다.)
		Ob-havo sovuq bo‘lgani uchun kiyim kiyib ol. (날씨가 추우니까 옷을 입어라.)
4	목적·의도	Nodir pulni olish uchun bankga bordi. (노디르는 돈을 찾으러 은행에 갔다.)
		Koreys tili o‘qituvchisi bo‘lish uchun qattiq shug‘ullanish kerak. (한국어 교사가 되려고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
5	대조	Akam qaytdi, ammo ukam qaytmadi. (형은 집에 돌아왔지만, 동생은 돌아오지 않았다.)
		Men tushlik qildim, ammo qornim hamon och. (나는 점심을 먹었으나 배는 여전히 고팠다.)
6	조건	Agar sen borsang, men ham boraman. (만약에 당신이 간다면 나도 가요.)
		Institutga kirmoqchi bo‘lsang qattiq shug‘ullanish kerak. (대학교에 입학하려면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
7	가정·인정	U kelsa ham, men kuta olmasam kerak. (그가 와도 나는 기다리지 못할 거예요.)

8	수단·방식	Biz samolyotga o'tirib Jeju orolga boraylik. (우리는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에 갑시다.)
		Tuxumni qaynatib yeyish kerak. (달걀을 삶아서 먹어야 한다.)
9	선택	Uning bo'yi baland yoki past, bu muhim emas. (그 사람의 키가 크거나 작거나 중요하지 않다.)
10	배경	U yoshligidan Amerikada yashagan. (그는 젊어서 미국에서 살았다.)
		Keyingi hafta konferensiya bo'ladi, adashmasam ishtirokchilar bo'lmaydi. (다음 주에 학회가 열리는 데 아마도 참석할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다.)

수집된 번역 문장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연결어미를 사용한 문장의 수는 총 2,340개의 문장 중 984개로 나타났다. 다음은 허용 등(2005)에서 제시한 연결어미의 의미 범주를 기준으로 우즈베키스탄인 학습자의 접속문 번역에서 사용된 연결어미의 수를 정리한 것이다.

표 24. 등급별 연결어미의 사용 수

연번	의미 범주	연결어미	사용 수		
			초급	중급	합계
1	나열·병렬	-고	41	77	118
		-(으)며	1	5	6
2	시간	-고	64	65	129
		-아서/어서	27	32	59
3	이유	-아서/어서	19	37	56
		-(으)니까	17	18	35
4	목적·의도	-(으)려고	13	24	37
		-(으)러	9	23	32

5	대조	-(으)나	4	8	12
		-지만	56	80	136
6	조건	-(으)면	47	62	109
		-(으)려면	26	30	56
7	가정·인정	-아도/어도	16	12	28
8	수단·방식	-아서/어서	9	32	41
		-고	20	28	48
9	선택	-거나	26	40	66
10	배경	-아서/어서	0	1	1
		-는데/(으)ㄴ 데	6	9	15
응답 총계			401	583	984
무응답			769	587	1,356
질문 총계			1,170	1,170	2,340

위의 <표 24>를 보면 우즈베키스탄인 한국어 학습자들의 한국어 번역에 나타난 구체적인 연결어미의 사용 수를 알 수 있다. 초급의 경우 사용 수가 가장 높은 연결어미는 시간 관계의 ‘-고’, 대조 관계의 ‘-지만’, 조건 관계의 ‘-(으)면’ 순이었다. 이에 반해, 배경 관계의 ‘-아서/어서’는 전혀 사용하지 않았고, 나열·병렬 관계의 ‘-(으)며’와 대조 관계의 ‘-(으)나’의 경우에도 사용 수가 극히 낮았다. 중급의 경우 사용 수가 가장 많은 연결어미는 대조 관계의 ‘-지만’, 나열·병렬 관계의 ‘-고’, 시간 관계의 ‘-고’ 순으로 높게 나타났고, 초급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배경 관계의 ‘-아서/어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았고, 나열·병렬 관계의 ‘-(으)며’와 대조 관계의 ‘-(으)나’의 경우에도 사용 수가 극히 낮았다. 즉 연결어미의 사용에서 초급과 중급에서 가장 차이가 나는 어미는 나열·병렬 관계의 ‘-고’와 수단·방식 관계의 ‘-아서/어서’, 이유 관계의 ‘-아서/어서’ 순이었다.

우즈베키스탄인 학습자의 한국어 번역 문장에 나타난 연결어미 수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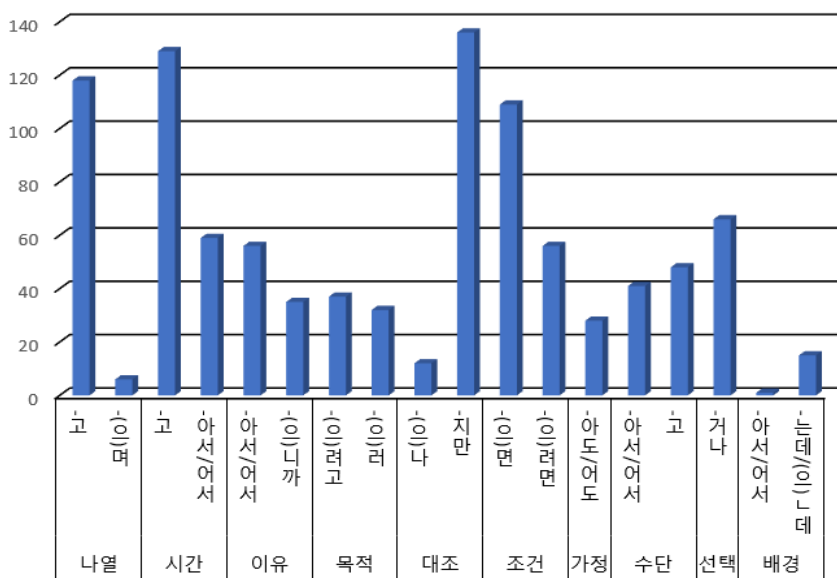


그림 6. 우즈베키스탄·한국어의 번역문에 나타난 연결어미 사용 수

위 <그림 6>의 우즈베키스탄인 학습자의 번역 문장에 나타난 연결어미의 수를 보면, 대조 관계의 연결어미 ‘-지만’이 가장 많이 사용되었고 다음으로 시간 관계의 연결어미 ‘-고’, 나열·병렬 관계의 연결어미 ‘-고’, 조건 관계의 연결어미 ‘-(으)면’의 순으로 많이 사용된 것을 알 수 있다.

초급 학습자의 번역 문장과 중급 학습자의 번역 문장을 비교해 보았을 때 초급 학습자의 번역 문장에 나타난 연결어미의 사용 수가 401개로 583개인 중급의 경우보다 낮은 편인데 이는 한국어 숙달도가 낮은 초급 학습자들은 연결어미를 사용하여 문장을 확대하지 못하고 단문을 생성하는 데 그쳤기 때문으로 보인다. 연결어미의 사용 수를 보면 숙달도에 따른 명확한 차이가 나타나는데 숙달도가 높아지면서 연결어미의 사용 수가

증가한다. 그러나 우즈베키스탄인 학습자의 초·중급 한국어 번역 문장에 나타난 전체적인 특징을 살펴보면 다양한 연결어미를 사용하여 번역하지 않고 익숙한 연결어미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번역하였다는 특징이 있다.

다음은 우즈베키스탄 학습자의 우즈베크어·한국어 번역 문장에 나타난 특성을 의미 범주별로 나누어 예시와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5.2 우즈베크어·한국어 번역에 나타난 접속문의 특성 분석

5.2.1 나열·병렬 관계의 연결어미

나열·병렬 관계의 연결어미는 앞뒤의 문장을 단순히 나열이나 병렬관계로 이어 주는 연결어미인데 여기에는 ‘-고’, ‘-(으)며’ 등이 해당한다. ‘-고’는 구어체나 문어체에 널리 사용되는 데 반해, ‘-(으)며’는 문어체에서 많이 사용된다(허용 등, 2005). 우즈베키스탄 학습자들은 한국어 번역문에서 ‘-(으)며’를 거의 사용하지 않고, ‘-고’를 집중적으로 사용하였다.

한 가지 눈에 띄는 점은 우즈베크어를 한국어로 번역할 때 우즈베크어와 마찬가지로 접속사나 쉼표를 이용하여 복합문을 구성한 예가 있다는 점이다. 아래 예문 (1a)는 우즈베크어 예문이며, (1b)는 그에 대한 한국어 번역 문장이다.

(1) a. Men ashula ayt-di-m, uka-m raqs-ga tush-di.

나-Ø 노래 부르-과거-인칭어미, 동생-인칭조사 춤-부사격 추-과거

b. 나는 노래를 부르고 동생은 춤을 추었다.

c. 나는 노래를 불렀다, 그리고 동생은 춤을 추었다.

d. 나는 노래를 부른다, (부르고) 동생은 춤을 추었다.

(1c)는 학습자가 앞뒤 문장을 그대로 둔 채 앞 문장 뒤에 쉼표를 찍고, 뒤 문장 앞에 접속부사를 붙여 연결한 문장이고,

(1d)는 접속부사도 없이 앞 문장 뒤에 쉼표만을 찍어 접속문을 구성한 예이다.

3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영어는 한국어와 달리 ‘and’, ‘but’ 등의 접속사를 사용하여 두 문장을 연결하여 접속문을 만든다. 우즈베크어 또한 접속사인 ‘va’, ‘hamda’, ‘ammo, lekin, biroq’ 등으로 두 문장을 연결하여 하나의 문장으로 만드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한국어의 경우에는 ‘그리고’, ‘그러나’, ‘그러므로’와 같은 접속부사가 의미적으로는 두 문장의 연결 관계를 나타낼 수 있어도 접속문을 만들지는 못한다. 즉, ‘나는 노래를 불렀다. 그리고 동생은 춤을 추었다.’는 여전히 두 개의 문장인 것이다. 이러한 한국어와 우즈베크어의 차이로 인해 일부 우즈베키스탄인 학습자들은 한국어에서도 접속부사를 사용하거나 쉼표를 붙임으로써 복합문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고, (1c)나 (1d)와 같은 문장을 생성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 예문은 우즈베키스탄인 학습자들이 우즈베크어·한국어 번역에서 나열·병렬 관계의 연결어미 ‘-고’를 바르게 선택하였으나 시제를 잘못 사용한 예이다.

- (2) a. 나는 노래를 불고 (부르고) 동생은 춤을 추었다.
b. 나는 노래를 부렀고 (불렀고) 동생은 춤을 추었다.

위의 예문 (2a), (2b)는 연결어미 ‘-고’는 올바르게 선택했으나 시제를 잘못 적용함으로써 형태 오류를 범한 것이다. (2a)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부르다’보다는 ‘불러요’, ‘불렀어요’에 많이 노출된 학습자들이 동사의 원형을 몰라 일으킨 오류로 보인다. (2b)의 경우는 ‘부르다’라는 원형은 알았으나 ‘부르다’가 ‘으 탈락’ 동사가 아니고 ‘르 불규칙’ 동사임을 몰랐거나 ‘르 불규칙’ 동사의 활용을 몰라 생성한 형태 오류로 보인다.

다음으로 ‘-(으)며’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으)며’는 ‘-고’와 아주 유사한 의미 기능을 가지고 있어 서로 교체가 가능한 경우도 많다. 다만, 위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으)며’는

주로 문어체에 사용되고, ‘-고’는 구어체와 문어체에 두루 쓰이는 특징이 있다. 아래 예문 (3a)는 번역문에 사용된 우즈베크어 예문이며, (3b)는 한국어 대역 문장이다.

(3) a. Men TV **ko‘r-di-m**, do‘st-im radio-Ø eshit-di.

나-Ø TV **보-과거-인칭어미** 친구-인칭조사 라디오 듣-
과거

b. 나는 TV를 **보았으며** 친구는 라디오를 들었다.

우즈베키스탄 학습자의 번역 문장에서는 연결어미 ‘-(으)며’의 사용 수가 아주 낮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초·중급의 우즈베키스탄 학습자들이 나열·병렬 관계의 연결어미 ‘-(으)며’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초급의 경우에는 ‘-(으)며’를 아직 학습하지 않은 학생도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미 해당 연결어미를 학습한 중급 학습자의 경우에도 연결어미 ‘-(으)며’의 사용 수 면에서 초급 학습자와 큰 차이가 나지 않았다. 즉, 나열·병렬 관계의 연결어미 ‘-(으)며’는 초·중급 학습자 모두에게 익숙하지 않은 연결어미로 나타났다. 다음 예문을 보자.

(4) a. 나는 TV를 **봤어요, (보았으며)** 친구는 라디오를 들었다.

b. 나는 TV를 **보며 (보았으며)** 친구는 라디오를 들었다.

위의 예문 (4a)는 우즈베크어의 영향으로 두 문장 사이에 쉽표만을 사용한 예이고, (4b)는 ‘-(으)며’를 사용하여 번역은 하였으나 시제 오류를 범한 예이다.

이러한 결과는 우즈베크어와 한국어의 차이에서 기인했다고 할 수 있다. 허용 등(2005)에 따르면, ‘-(으)며’는 ‘-고’와 달리 시제선어말어미 제약이 있다. 시제가 과거일 경우 ‘-고’는 과거시제 선어말어미와의 결합에 제약이 없어 ‘-았/었-’을

써도 좋고 쓰지 않아도 되지만 ‘-(으)며’는 과거의 경우 반드시 ‘-았/었-과 함께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한국어 나열·병렬관계의 연결어미 ‘-고’와 ‘-(으)며’는 다 같이 우즈베크어의 대등접속사 ‘va’, ‘hamda’에 대응한다. 이러한 이유로 우즈베크어인 한국어 학습자들은 ‘-고’와 ‘-(으)며’의 두 연결어미가 가지고 있는 제약의 차이를 문장 구성에 반영하지 못하는 오류를 범하기도 한다. 따라서 한국어 교사가 우즈베크어인 한국어 학습자에게 ‘-고’와 ‘-(으)며’를 가르칠 때 한국어 ‘-고’와 ‘-(으)며’는 모두 의미적으로는 우즈베크어의 ‘va’, ‘hamda’에 대응되지만 한국어의 ‘-고’와 ‘-(으)며’에는 제약에 차이가 있음을 설명하고 다양한 예문을 통해서 그 차이를 익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5.2.2 시간 관계의 연결어미

시간 관계의 연결어미에는 두 사건이나 상황이 같은 시간에 이루어지는 동시 관계의 연결어미와 시간적 순서에 따라 이루어지는 순차 관계의 연결어미가 있다. 전자에는 ‘-(으)면서’, ‘-(으)며’ 등이 있으며 후자에는 ‘-고’와 ‘-아서/어서’ 등이 있다 (허용 등, 2005). 그러나 우즈베크어·한국어 번역에서는 두 문장의 행동이 동시에 일어나는 문장은 제시하지 않았고, 앞뒤 문장의 행동이 순서대로 일어나는 문장만을 제시하였다.

아래 예문 (5a)는 번역문에 사용된 우즈베크어 예문이며, (5b)는 그에 대한 한국어 번역 문장이다.

- (5) a. Men **yuvin-a-man**, keyin nonushta-Ø qil-a-man.
 나-Ø 세수하-미래-인칭어미, 그런 다음 아침-Ø 먹-미래-인칭어미
 b. 나는 세수를 하고 아침을 먹겠다.

순차 관계의 연결어미 ‘-고’는 앞 문장의 행동이 완료된 후에 뒤 문장의 행동이 이어지는 의미적 특성이 있다(허용 등, 2005). 이때 ‘-고’는 시제 형태소와 결합할 수 없다. 다음은 우즈베키스탄 학습자들이 번역한 한국어 대응문이다.

- (6) a. 나는 세수를 **해요**. 그리고 아침을 먹겠다.
 b. 나는 세수를 **한 후에** 그리고 아침을 먹겠다.

위 예문 (6a)에서 보듯이 우즈베키스탄인 초급 학습자들은 두 개의 단문으로 번역하고 뒤 문장의 앞에 ‘그리고’라는 접속 부사를 넣어 구성하였다. (6b)의 경우에는 연결어미를 사용하여 번역을 하라는 지침에도 불구하고 ‘-(으)ㄴ 후에’로 문장을 구성하였다. 우즈베크어 문장을 살펴보면 접속사 기능을 하는 ‘keyin’이 사용되는데 이는 앞 문장의 행동이 끝난 다음에 뒤 문장이 행동이 이어짐을 나타낸다. 어미 ‘keyin’은 두 문장을 대등적으로 연결하는 접속사 ‘va’, ‘hamda’와 달리 두 문장을 종속적으로 연결한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우즈베크어 문법에서는 한국어의 ‘-고’에 해당하는 어미로 연결된 경우 앞뒤 문장의 주어가 달라야 복합문으로 여겨진다. 즉, 앞뒤 문장의 주어가 같으면 복합문이 될 수 없다. 그러나 접속사로 연결된 경우에는 앞뒤 문장의 주어가 다르거나 같거나 복합문으로 분류된다.

이어서 시간 관계의 연결어미 ‘-아서/어서’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고’는 앞 문장의 행위가 완전히 끝난 후에 뒤 문장의 행위가 이루어질 때 쓰는 반면, ‘-아서/어서’는 앞 문장의 행위가 이루어진 다음 그 행위의 결과가 뒤 문장의 행위가 이루어지는 동안에도 계속 지속될 때 사용하는 연결어미이다(허용 등, 2005). 아래 예문 (7a)는 실험에 사용된 우즈베크어 예문이며, (7b)는 그에 대한 한국어 번역 문장이다.

(7) a. U ertalab **tur-ib**, maktab-ga ket-di.

그-Ø 아침-Ø 일어나-어미 학교-부사격 가-과거어미

b. 그는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에 갔다.

이어서 우즈베키스탄인 학습자 우즈베크어·한국어 번역 문장에 나타난 시간 관계 연결어미 ‘-아서/어서’의 특징을 확인해 보도록 한다. 무엇보다도 눈에 띄는 점은 초급 학습자의 경우 연결어미 ‘-아서/어서’를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8) a. U ertalab **tur-ib**, maktab-ga ket-di.

그-Ø 아침-Ø 일어나-어미 학교-부사격 가-과거어미

b. 그는 아침에 일어나고 (일어나서) 학교에 갔다.

예문 (8)은 아침에 일어나 그 상태가 계속되는 가운데 ‘학교에 가는’ 행동이 이어지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에 갔다.’로 번역했어야 한다. 그러나 우즈베키스탄인 학습자들은 ‘아침에 일어나고’라고 번역하였다. ‘-아서/어서’와 ‘-고’는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앞뒤 문장의 행위가 순서대로 일어남을 나타내는 연결어미이지만 ‘-아서/어서’는 앞뒤 문장의 행동이 이어질 때 사용되고, ‘-고’는 앞의 행동이 완료된 후에 뒤의 행동이 일어날 때 사용된다는 차이점이 있다. 그러나 우즈베크어에서는 접속사 ‘va’, ‘hamda’와 연결어미 ‘-(i)b’가 이러한 구별 없이 사용된다. 다시 말해, ‘-고’와 ‘-아서/어서’는 둘 다 우즈베크어 ‘va’, ‘hamda’, ‘-(i)b’에 대응한다. 이러한 이유로 우즈베키스탄인 한국어 학습자들은 한국어의 연결어미 ‘-고’와 ‘-아서/어서’를 사용할 때 두 연결어미가 가지고 있는 ‘완결성’ 면에서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사용하는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우즈베키스탄인 한국어 학습자들에게 ‘-고’와 ‘-아서/어서’를 가르칠 때 한국어 ‘-고’와 ‘-아서/어서’는 모두 우즈베크어 ‘va’, ‘hamda’, ‘-(i)b’에 해당하지만 두 연결어미가 갖

는 차이를 설명하고 다양한 예문을 통해서 이를 익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5.2.3 이유 관계의 연결어미

이유 관계 연결어미는 두 문장을 이유 관계로 이어주는 연결어미이다. ‘이유 관계’ 연결어미는 앞 문장이 뒤 문장의 이유나 원인이 되고 뒤 문장은 그로 인한 결과나 결과와 관련된 내용이 된다(허용 등, 2005). 이유 관계 연결어미에는 ‘-아서/어서’와 ‘-(으)니까’ 등이 있다. ‘-아서/어서’는 명령문이나 청유문에서 사용할 수 없고, 과거 시제선어말어미 ‘-았/었-’과 결합할 수 없는 등 사용상의 제약이 있다.

아래 예문 (9a)는 우즈베크어 문장이며 (9b)는 한국어 대역 문장이다. 그리고 (9c)는 우즈베크인 학습자가 번역한 문장이다.

(9) a. Kamola kech **uxla-gani uchun** maktab-ga kech qol-di.

카몰라-Ø 늦잠 **자-어미** 학교-부사격 지각 하-과거어미

b. 카몰라는 늦잠을 **자서** 학교에 지각하였다.

c. 카몰라는 늦잠을 **자고 (자서)** 학교에 지각하였다.

(9c)와 같은 문장은 순차의 의미를 나타내는 연결어미 ‘-고’와 이유·원인의 의미를 나타내는 연결어미 ‘-아서/어서’를 구별하지 못하여 생긴 오류 문장이다. 선행절의 늦잠을 잔 행동이 후행절의 학교에 지각을 하게 된 이유가 된다. 따라서 이유·원인의 연결어미 ‘-아서/어서’를 사용하여 번역했어야 한다.

우즈베크어 문장을 보면 두 문장이 접속사가 아닌 어미로 연결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즈베크어에서는 어미로 구성된 앞뒤 문장의 주어가 같은 문장은 복합문으로 볼 수 없다. 이를 기준으로 하면 위 문장은 복합문이

아니라 단문이 된다. 그러나 위 문장을 접속사로 연결하면 주어가 같은 다르든 복합문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우즈베키스탄인 학습자들에게 한국어에서 연결어미로 연결된 접속문을 가르칠 때는 우즈베크어의 접속사와 대응시켜 가르치는 것이 효과적이다. 우즈베크어의 어미와 대응시켜 가르칠 때는 앞 문장과 뒤 문장의 주어가 다른 문장을 활용하는 것이 학습자들에게 한국어의 복합문을 이해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다음은 이유·원인의 연결어미 중 ‘-(으)니까’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아래 예문 (10a)는 우즈베크어 문장이며 (10b)는 그에 대응하는 한국어 번역 문장이다.

(10) a. Ob-havo sovuq **bo‘l-gani uchun** kiyim kiy-ib ol.

날씨-Ø 춥다 되-어미(이유) 옷-Ø 입-명령형

b. 날씨가 추우니까 옷을 입어라.

c. 날씨가 추워서 (추우니까) 옷을 입어라.

‘-(으)니까’의 경우는 같은 의미를 가진 ‘-아서/어서’보다 제약이 적은 편이다. 다시 말해, ‘-아서/어서’가 명령문이나 청유문에서 사용할 수 없고, 과거시제 선어말어미 ‘-았/었-’과 결합할 수 없는 등 사용상의 제약이 있는 반면에 ‘-(으)니까’는 이러한 제약이 없다. 그러나 우즈베크인 한국어 학습자들은 ‘-(으)니까’보다 ‘-아서/어서’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이유로 우즈베크인 한국어 학습자들이 이유·원인 관계의 연결어미를 사용할 때 자주 오류를 일으킨다. 예문 (11c)는 ‘-(으)니까’를 사용해야 할 자리에 ‘-아서/어서’를 잘못 사용하여 나타난 오류 문장이다.

우즈베키스탄 학습자들은 ‘-아서/어서’와 ‘-(으)니까’가 모두 이유 관계의 연결어미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지만 두 연결어미의 차이점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아서/어서’와 ‘-(으)니까’를 우즈베크어의 문법 항목과 대응시키면 접

속사 ‘shuning uchun, shu sababli’ 또는 어미 ‘-gani uchun’에 해당하는데 이들 항목은 한국어의 ‘-아서/어서’와 ‘-(으)니까’가 갖는 것과 같은 차이가 없이 사용된다. 다만 위의 예문 (11a)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형용사가 어미와 결합할 때는 반드시 bo‘lmoq’을 붙여야 하지만 ‘Ob-havo sovuq, shuning uchun/shu sababli kiyim kiy-ib ol.’에서와 같이 접속사를 사용하여 두 문장을 연결할 경우에는 bo‘lmoq’를 붙이지 않는다. 따라서 한국어 교사가 우즈베키스탄인 한국어 학습자에게 이 유 관계 연결어미를 가르칠 때는 ‘-아서/어서’가 갖는 서술어에 있는 문장 형태 제약이나 결합하는 선행용언 제약에 대해 특별히 강조하여야 할 것이다.

5.2.4 목적·의도 관계의 연결어미

목적·의도 관계의 연결어미란 두 문장을 목적 관계로 이어주는 연결어미를 말하며 ‘-(으)러, -(으)려고, -도록, -게’ 등이 여기에 속한다(허용 등, 2005). ‘-(으)러’와 ‘-(으)려고’는 두 문장의 주어가 같아야 한다는 제약이 있다. 이러한 문장은 우즈베크어의 문장 분류 기준에 따르면 복합문이 아닌 단문이 된다. ‘-(으)러’와 ‘-(으)려고’는 형용사와는 결합할 수 없고 동사와만 결합할 수 있다. 특히, ‘-(으)러’는 뒤 문장의 서술어에 ‘가다, 오다, 다니다’와 같은 일부 동사들이 올 때만 사용이 가능하고, ‘-(으)려고’는 명령문과 청유문과는 어울리지 않는다(허용 등, 2005).

먼저 우즈베키스탄 학습자의 한국어 번역 문장에 나타난 목적·의도 관계의 연결어미 ‘-(으)러’에서 나타난 특징을 알아보자. 아래 예문 (12a)는 번역문에 사용된 우즈베크어 예문이며 (11b)는 그에 대한 한국어 대역문이고, (11c)는 학습자들이 번역한 문장이다.

- (11) a. Nodir pul-ni **ol-ish uchun** bank-ga bor-di.
 노디르-Ø 돈-목적격 **찾-어미** 은행-부사격 가-
 과거어미
- b. 노디르는 돈을 **찾으러** 은행에 갔다.
 c. 노디르는 돈을 **찾기 위해서** 은행에 갔다.

예문 (11c)는 우즈베키스탄인 한국어 학습자가 작성한 예문이다. 이 문장에서는 연결어미 ‘-(으)러’를 사용하지 않고, ‘-기 위해서’를 사용하였다. 우즈베크어의 경우 어미인 ‘-(i)sh uchun’과 접속사인 ‘-deb’이 한국어에서 목적 관계를 나타내는 ‘-(으)러’, ‘-(으)려고’, ‘-기 위해서’에 해당한다. 그러나 우즈베크어에서 목적을 나타내는 어미 ‘-(i)sh uchun’과 접속사인 ‘-deb’은 위의 (12a)와 ‘Nodir pul-ni ol-aman, **deb** bank-ga bor-di.’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특별한 제약 없이 자유롭게 쓰인다. 따라서 학습자들이 우즈베크어 문장을 한국어로 번역할 때 한국어의 ‘-(으)러’, ‘-(으)려고’, ‘-기 위해서’의 의미와 기능이 비슷하다고 생각하여 이들을 혼용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시켜야 한다.

다음으로 목적·의도 관계 연결어미 중 ‘-(으)려고’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아래 예문 (12a)는 번역문에 사용된 우즈베크어 예문이며 (12b)는 그에 대한 한국어 번역 문장이다.

- (12) a. Koreys tili o‘qituvchi-si **bo‘l-ish uchun** qattiq shug‘ullan-ish kerak.
 한국 언어 교사-인칭조사 **되-어미** 열심히 공부하-보조동사
- b. 한국어 교사가 **되려고**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
 c. 한국어 교사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

위 예문과 같이 대부분의 학습자들은 ‘-(으)려고’ 대신 ‘-기 위해서’를 사용하였다. ‘-기 위해서’는 목적이나 의도를 나타

낸다는 점에서 ‘-(으)려고’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으나 연결어미를 사용하여 문장을 번역할 것을 요청하였으므로 요청에 부합한다고는 할 수 없다. 이는 우즈베크어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접속문을 만들기 때문일 것이다. 다시 말해, 우즈베크어에서는 앞 문장이 뒤 문장의 의도·목적을 나타내는 경우 위의 (12a)에서와 같이 ‘-(i)sh uchun’을 이용하여 문장을 구성하든, 아니면 접속사인 ‘-deb’을 이용하여 ‘Men koreys tili o‘qituvchi bo‘l-a-man, **deb** qattiq shug‘ullan-yap-man.’처럼 구성하든 선택에 제약이 없다.

이렇듯 한국어의 목적 관계 연결어미 ‘-(으)러’와 ‘-(으)려고’ 사이에는 쓰임에 큰 차이가 있지만, 이에 대응되는 우즈베크어의 연결어미 ‘-(i)sh uchun’와 접속사 ‘deb’은 두 단문을 제약 없이 연결하여 문장을 구성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어 교사가 우즈베키스탄인 한국어 학습자에게 ‘-(으)러’와 ‘-(으)려고’를 가르칠 때는 두 연결어미의 제약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다양한 예문을 통해서 차이를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5.2.5 대조 관계의 연결어미

대조 관계의 연결어미는 두 문장을 대조 관계로 이어주는 연결어미로 다른 어미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제약이 적다는 특징이 있다. 먼저 우즈베키스탄인 한국어 학습자들의 번역 문장에 나타난 ‘-지만’의 특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아래 예문 (13a)는 번역문에 사용된 우즈베크어 예문이며 (13b)는 그에 대한 한국어 번역 문장이다.

- (13) a. Aka-m qayt-di, **ammo** uka-m qayt-ma-di.
형-인칭조사 돌아오-과거어미, 접속사 동생-인칭조사 돌아오-부정-과거어미
b. 형은 집에 돌아왔지만, 동생은 돌아오지 않았다.
c. 형은 집에 돌아오지만 (돌아왔지만) 동생은 돌아오지 않았다.

위의 예문 (13b)를 통해 과거의 경우 ‘-지만’ 앞에 과거 시제 선어말어미 ‘-았/었-’이 결합해야 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우즈베키스탄인 학습자들은 의미적으로는 적합한 ‘-지만’을 선택하였지만 활용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오류를 범하였다.

앞뒤 문장의 대조 관계를 나타내는 연결어미 ‘-(으)나’에 대해 살펴보자. 아래 예문 (14a)는 번역문에 사용된 우즈베크어 예문이며 (14b)는 그에 대한 한국어 번역 문장이다.

- (14) a. Men tushlik qil-di-m, **ammo** hamon och-man.
나-Ø 점심 하-과거-인칭어미 **접속사** 여전히 배고프-현재인칭어미
b. 나는 점심을 **먹었으나** 배는 여전히 고평다.

‘-(으)나’의 경우 번역 문장 중 초급단계에서는 1명, 중급단계에서는 4명만이 정확하게 사용하였다. 이를 통해 초·중급 학습자들이 대조 관계 연결어미에 속하는 ‘-(으)나’에 대한 인식이 매우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초급의 경우 ‘-(으)나’를 아직 학습하지 않아 사용 수가 극히 낮은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중급도 초급 학습자와 사용 수를 비교했을 때 별로 큰 차이가 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해당 문법은 학습자들이 학습 수준이 높아지더라도 이를 내재화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한국어 대조 관계의 연결어미 ‘-지만’과 ‘-(으)나’는 모두 우즈베크어에서 접속사 ‘ammo, lekin, biroq’에 해당한다. 다시 말해, 우즈베크어에서는 앞뒤 문장이 대조 관계를 형성하는 경우 어미로는 연결하지 못하고, ammo, lekin, biroq 등의 접속사와 쉼표로 연결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어 교사가 우즈베키스탄인 학습자에게 대조 관계의 연결어미를 가르칠 때는 ‘-지만’과 ‘-(으)나’가 우즈베크어 ‘ammo, lekin, biroq’에 해당하지만, 두 어미 모두 시제선어말어미와 결합해야 한다는 제약이 있고, ‘-(으)나’는 주로 문어체에 쓰이고, ‘-지만’은 문어체이든 구어체이든 널리 사용이 되고 있음을 가르쳐야 할 것이다.

5.2.6 조건 관계의 연결어미

조건 관계의 연결어미는 두 문장을 조건 관계로 이어주는 연결어미에는 ‘-(으)면’과 ‘-(으)려면’이 있는데 앞 문장이 뒤 문장의 조건이 된다. 먼저 연결어미 ‘-(으)면’의 사용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살펴본다. 아래 예문 (15a)는 번역문에 사용된 우즈베크어 예문이며 (15b)는 그에 대한 한국어 번역 문장이다.

(15) a. Agar-da sen **bor-sa**-ng, men ham bor-a-man.

만약-부사격 당신-Ø 가-어미-인칭어미 나 보조
사 가-미래-

인칭어미

b. 만약에 당신이 가면 나도 가요.

조건 관계의 연결어미 ‘-(으)면’은 특별한 제약이 없으므로 ‘-(으)면’이 어미 ‘sa’에 대응된다는 사실만 알면 쉽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은 우즈베키스탄 한국어 학습자들의 번역 문장이다.

(16) a. 만약에 당신이 가요. (가면) 나도 가요.

b. 만약에 당신이 갈 때 (가면) 저도 가요.

위의 예문 (16a)와 (16b)에서는 볼 수 있듯이 일부 학습자들은 문장을 단문으로 쓰거나 ‘-(으)ㄴ 때’를 사용하여 문장을 구성하였다. 하지만 대부분의 우즈베키스탄인 학습자들은 예상대로 조건 관계의 어미는 큰 어려움 없이 잘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학습자가 조건관계 연결어미 ‘-(으)려면’에 나타난 특징에 대해 살펴본다. 아래 예문 (17a)는 번역을 요청한 우즈베크어 문장이고, (17b)는 그에 대응하는 한국어 문장이다.

(17) a. Institut-ga **kir-moqchi bo'l-sa**-ng qattiq shug'ullan-ish kerak.

대학교-부사격 입학하-어미(려면)-인칭어미 열심히 공부하-

아야 한다

b. 대학교에 입학하려면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

예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앞 문장은 뒤 문장의 내용이 이루어지기 위한 조건이 된다. 많은 학습자들은 ‘-(으)려면’을 사용하여 문장을 잘 구성하였으나 일부 학습자들은 아래와 같이 ‘-(으)려면’ 대신 ‘희망’이나 ‘바람’의 의미를 강조하여 보조 용언 ‘-고 싶다’와 결합한 ‘-고 싶으면’을 사용하여 문장을 구성하였다.

(18) 대학교에 입학하고 싶으면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

우즈베크어의 ‘-moqchi bo'lsa’라는 표현은 조건 관계를 나타내는 어미로 한국어로 ‘-(으)려면’으로 번역할 수도 있고, ‘-고 싶으면’으로도 번역할 수 있다.

5.2.7 가정·인정 관계의 연결어미

가정·인정 관계의 연결어미는 두 문장을 가정·인정 관계로 이어주는 연결어미로, 미래에 일어날 일을 가정하여 표현할 때 사용된다. 우즈베키스탄인 한국어 학습자들이 가정·인정 관계 연결어미 ‘-아도/어도’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지를 다음 문장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19) a. U **kel-sa ham**, men kut-a ol-ma-sa-m kerak.

그-Ø 오-어미(아도) 나-Ø 기다리-가능성-부정-미래-인칭-추측

- b. 그가 **와도** 나는 기다리지 못할 거예요.
- c. 그가 **오면도 (와도)** 나는 기다리지 못할 거예요.

위 예문 (19b)는 ‘가정·인정’ 관계의 연결어미로 앞뒤 문장이 연결되어 있다. 그러나 (19c)에서는 조건 관계 연결어미 ‘-(으)면’이 첨가의 의미를 갖는 보조사 ‘도’와 결합되어 있는 형태 오류를 범하고 있다. 우즈베크어의 경우에는 ‘-아도/어도’ 연결어미에 해당하는 어미가 ‘-sa(-(으)면 + ham(-도)’의 형태로 나타나므로 이를 그대로 한국어로 번역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연결어미 ‘-아/어도’ 대신에 ‘-(으)면도’를 사용하여 발생한 오류는 중국어권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이윤진(2002)에서도 나타난다.

길혜빈(2018)에서는 ‘-(으)면’과 ‘-어도’의 대치 오류를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았는데 하나는 ‘-(으)면’이 ‘-어도’와 대치된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으)면’이 ‘-(으)면도’로 잘못 사용된 경우이다. 이 중 전자보다 후자의 오류가 더 많았는데 이에 대해 연구자들은 학습자들이 연결어미 ‘-아도/어도’를 모르거나 ‘-아도/어도’와 ‘-(으)면’을 정확히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하였다.

5.2.8 수단·방식 관계의 연결어미

다음으로 우즈베키스탄인 한국어 학습자들의 수단·방식 관계의 연결어미 ‘-고’와 ‘-아서/어서’의 번역에 나타난 특징을 알아본다. 허용 등(2005)에 따르면, ‘-고’와 ‘-아서/어서’는 둘 다 어떠한 행위를 하는 데 있어 그 행위를 어떠한 방식이나 수단으로 하는지를 말해주는 어미이다. 이 두 어미는 과거 선어말어미와 결합하지 못하고, 두 문장의 주어가 같아야 하는 특징이 있다. 이뿐만 아니라 이 두 어미는 형용사와는 결합할 수 없고 동사와만 결합할 수 있다. 또한 ‘-고’는 타동사와 어울리고, ‘-아서/어서’는 자동사와 어울린다.

먼저 ‘-고’를 살펴보자. 아래 예문 (20a)에 제시된 문장은 우즈베크어 예문이며 (20b)는 그에 대한 한국어 번역 문장이다. (20c)는 우즈베크인 학습자들이 생성한 오류 문장이다.

(20) a. Biz samolyot-ga **o‘tir-ib** Jeju orol-ga bor-aylik.

우리-Ø 비행기-부사격 **타-어미** 제주도-부사격 가-청유형

b. 우리는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에 갑시다.

c. 우리는 비행기를 **타서** (□**타고**) 제주도에 갑시다.

연결어미 ‘-아서/어서’는 목적어가 없는 자동사와 함께 사용된다. 그러나 우즈베크인 학습자들은 ‘-아서/어서’가 갖는 이러한 특징을 몰라 ‘타다’가 ‘비행기’라는 목적어를 갖고 있는 타동사임에도 불구하고 ‘-아서/어서’를 사용하는 오류를 범하였다. 우즈베크어에서는 ‘-고’와 ‘-아서/어서’에 해당하는 어미가 ‘-ib’ 하나라서 일부 학습자들이 ‘-고’와 ‘-아서/어서’ 중 어느 것을 선택하여 사용해야 하는지를 아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다음으로 ‘-아서/어서’에 대해 살펴보자. 아래 예문 (21a)는 번역문에 사용된 우즈베크어 예문이며 (21b)는 그에 대한 한국어 번역문이다.

(21) a. Tuxum-ni **qaynat-ib** ye-yish kerak.

달걀-목적격 **삶-어미** 먹-보조동사(아야 한다)

b. 달걀을 **삶아서** 먹어야 한다.

c. 달걀을 **삶고** (□**삶아서**) 먹어야 한다.

위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연결어미 ‘-고’는 목적어가 있는 타동사와 함께 사용된다. 그러나 목적어가 있다고 하더라도 앞 문장과 뒤 문장의 목적어가 같으면 ‘-고’가 아니라 ‘-아서/

어서’를 사용한다. 예문 (21)에서 ‘삶다’는 목적어를 갖는 타동사이므로 ‘-고’를 사용해야 할 것으로 보이나 앞 문장의 목적어인 ‘달걀’이 뒤 문장의 목적어 역할도 한다. 다시 말해, (21)의 문장은 ‘달걀을 삶아서 (달걀을) 먹어야 한다.’와 같은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고’가 아닌 ‘-아서/어서’를 사용해야 한다.

수단·방식 관계의 연결어미 ‘-고’와 ‘-아서/어서’는 우즈베키스탄인 학습자들의 한국어 번역문에서 비교적 잘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고’와 ‘-아서/어서’를 혼동하여 사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오류는 비교적 잦은데 이는 우즈베크어의 경우 한국어의 ‘-고’와 ‘-아서/어서’에 해당하는 어미가 ‘-(i)b’ 하나이기 때문이다.

다음은 연결어미 ‘-고’의 번역에 나타난 특징을 파악해보자. (22a)는 우즈베크어 문장이고 (22b)는 한국어 대역문이다.

(22) a. Bu mahalladagi bola-lar piyoda yur-ib, maktab-ga bor-adi-lar.

이 동네 아이-복수-Ø **걸-어미** 학교-부사격 가-현재어미-복수

b. 이 동네 아이들은 **걸어서** 학교에 간다.

c. 이 동네 아이들은 **걸어서** (□**걸어서**) 학교에 간다.

위의 문장에서 ‘걷다’는 목적어가 없는 자동사이므로 ‘-아서/어서’를 사용하여 번역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우즈베키스탄인 학습자들의 경우에는 ‘-아서/어서’는 잘 선택하였으나 ‘걷다’라는 불규칙 동사의 활용 방법을 몰라 형태 오류를 범하였다.

5.2.9 선택 관계의 연결어미

선택 관계의 연결어미는 두 문장을 선택 관계로 이어 주는 연결어미로 ‘-거나’와 ‘-든지’ 등이 있다. 이들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하거나 둘 다 선택을 해도 상관이 없다는 의미로 사용된다. 아래 예문 (23a)는 실험에 사용된 우즈베크어 예문이며, (23b)는 그에 대한 한국어 번역 문장이다. (23c)는 우즈베크스탄인 학습자가 번역한 문장이다.

(23) a. U-ning bo'y-i baland **yoki** past, bu muhim emas.

그사람-관형격 키-인칭조사 크다 **접속사** 작, 이것 중요하-부정

b. 그 사람의 키가 크든지 작든지 중요하지 않다.

c. 그 사람의 키가 큰지 작은지 (□크든지 작든지) 중요하지 않다.

위의 예문 (23c)를 보면 학습자가 선택 관계의 연결어미 ‘든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큰지 작은지 모르겠다’의 문형에서 ‘큰지 작은지’와 같은 형태를 취함으로써 오류를 범하였음을 알 수 있다.

5.2.10 배경 관계의 연결어미

다음은 배경관계의 연결어미에 대해 알아보자. 배경관계의 연결어미는 앞뒤 문장을 배경관계로 이어주는 어미로 ‘-아서/어서, -는데/(으)ㄴ데’가 있다. 전자는 시간적 배경을, 후자는 상황적 배경을 나타내는 데 사용된다(허용 등, 2005). 아래 (24a)에 제시된 예문은 우즈베크어 문장이고 (24b)는 한국어 대역문이다.

(24) a. U **yoshlig-idan** Amerika-da yasha-gan.

그-Ø 젊-부사격 미국-부사격 살-과거어미

b. 그는 젊어서 미국에서 살았다.

예문 (24b)에서 ‘젊다’는 ‘한국에서 살다’의 시간적 배경을 나타내므로 연결어미 ‘-어서’가 사용된다.

우즈베키스탄인 학습자 번역문에 나타난 배경 관계 연결어미 ‘-아서/어서’의 특징을 살펴보면, 초급단계에서는 바르게 사용한 경우가 하나도 없었으며 중급단계에서는 한 명의 학습자만이 정확하게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 예문 (25)에서 볼 수 있듯이 학습자들은 배경관계의 연결어미 ‘-아서/어서’ 대신에 연결어미는 아니지만 자주 노출된 ‘-(으)ㄴ 때’나 ‘명사 + 부터’로 번역한 것을 알 수 있다.

- (25) a. U **yoshlig-idan** Amerika-da yasha-gan.
 b. 그는 **젊었을 때** 미국에서 살았다.
 c. 그는 **어린 시절부터** 미국에서 살았다.

예문 (25b)는 ‘-(으)ㄴ 때’를 이용하여 지금은 미국에서 살지 않지만 ‘젊은 시절’에 미국에서 살았음을 정확히 번역하였다. 하지만 ‘부터’라는 조사를 이용한 (25c)는 ‘지금까지’의 의미를 포함하므로 정확한 번역이 될 수 없다. 다만 우즈베크어에서는 위 예문 (25a)와 같이 접속사나 어미를 사용하지 않은 문장은 단문으로 분류된다.

다음은 상황과 관련된 배경 관계의 연결어미 ‘-는데/(으)ㄴ데’에 대해 알아보자. 아래 (26a)에 제시된 예문은 우즈베크어 문장이고 (26b)는 한국어 대역문이다.

- (26) a. Keyingi hafta konferensiya **bo‘l-adi**, adash-masam shtirokchi-lar deyarli bo‘l-may-di.

다음 주-Ø 학회-Ø **열리-미래시제**, 아마도 참석할 사람-복수 있(**bo‘l**)-부정-미래어미

b. 다음 주에 학회가 **열리는데** 아마도 참석할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다.

c. 다음 주에 학회가 **열려요, (열리는데)** 아마도 참석할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다.

위 예문 (26b)에서 앞 문장은 뒤 문장에 대한 상황적 배경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26a)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연결어미 ‘-는데/(으)ㄴ데’는 우즈베크어에서는 특별한 어미나 접속사를 사용하지 않고 쉼표만으로 앞 문장과 뒤 문장을 접속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우즈베키스탄인 학습자는 (26a)와 같은 한국어 문장을 구성할 때 (26c)와 같은 오류 문장을 구성하게 된다.

지금까지 우즈베키스탄인 학습자들이 우즈베크어의 문장을 한국어의 연결어미를 사용하여 문장을 번역할 때 나타나는 특징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무엇보다도 특징적인 것은 우즈베크어의 전이가 많이 나타난다는 점이다. 이는 우즈베크어의 경우 연결어미뿐만 아니라 접속사를 사용하거나 쉼표나 억양을 사용하여 문장을 접속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나열·병렬관계의 연결어미를 사용해야 하는 문장 접속에서 어떠한 연결어미도 사용하지 않고 두 문장을 그대로 각각 번역하거나, 우즈베크어의 접속사에 해당하는 한국어 접속부사를 사용하여 두 문장을 연결하였다.

그리고 초급 학습자의 경우에는 시간 관계의 ‘-고’, 대조 관계의 ‘-지만’, 조건 관계의 ‘-(으)면’ 순으로 연결어미를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배경 관계의 연결어미 ‘-아서/어서’는 전혀 사용하지 않았고 나열·병렬 관계의 연결어미 ‘-(으)며’와 대조 관계의 ‘-(으)나’의 경우에도 사용 수가 극히 낮은 특징을 보였다. 중급 학습자의 경우에는 대조 관계의 ‘-지만’, 나열·병렬 관계의 ‘-고’, 시간 관계의 ‘-고’ 순으로 연결어미의 사용 수가 높게 나타났고, 초급 학습자와 마찬가지로 배경 관계의 연결어미 ‘-아서/어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 또한, 나열·병렬 관계의 연결어미 ‘-(으)며’와 대조 관계의 ‘-(으)나’의 경우에도 사용 수가 극히 낮았다.

다음 장에서는 우즈베크어·한국어 번역 문장에 나타난 한국어 내포문의 특징에 관하여 살펴본다.

6. 우즈베크어·한국어 번역에 나타난 내포문(복합 단문) 특성 연구

이 장에서는 우즈베키스탄인 학습자의 한국어 번역에 나타난 내포문(복합 단문)의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어의 내포문은 우즈베크어의 복합 단문에 해당하는 것으로, 4장에서 한국어와 우즈베크어를 대조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어에서는 전성어미를 사용하여 내포문을 만드는 데 우즈베크어에서도 어미를 사용하여 만들었다. 다만, 한국어에서는 내포문을 복합문으로 분류하지만 우즈베크어에서는 복합 단문으로 분류한다는 차이점이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이 장에서는 우즈베크어·한국어 번역에 나타난 한국어 내포문의 특성에 대해 알아본다.

6.1 우즈베크어·한국어 번역에 나타난 전성어미 사용 수

4장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한국어 내포문은 한 문장이 다른 문장을 한 성분으로 안고 있는 문장으로 명사절과 관형절이 있다. 명사절은 문장이 명사화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한 문장의 서술어가 명사형 전성어미 ‘-(으)ㄴ’이나 ‘-기’ 또는 ‘관형사형 전성어미 + 것’을 취하여 형성된 것으로 명사가 쓰일 수 있는 자리에 오는 절이다. 따라서 격조사와 결합하여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 부사어 등 다양한 문장 성분으로 쓰인다. 관형절 내포문이란 안긴문장이 관형사와 쓰이는 자리에 오는 절로 명사를 수식하는 문장을 말한다. 관형절을 만드는 관형사형 전성어미는 결합하는 어간이 동사인지 형용사인지에 따라 어미의 형태가 다르고 시제에 따라서도 어미의 형태가 다르다. 또한, 어간이 모음으로 끝나는지 자음으로 끝나는지에 따라서도 어미의 형태가 다르다.

우즈베크어의 복합 단문은 안긴문장이 안은문장 안에서 어떠한 성분의 역할을 하는지에 따라 명사형 어미, 형동사형 어미, 부사형 어미 등을 결합하여 구성한다.

다음은 우즈베키스탄 한국어 학습자에게 한국어로 번역할 것을 요청한 우즈베크어 문장을 한국어와 함께 제시한 것이다.

표 25. 번역에 사용된 우즈베크어 문장과 한국어 대역문 2

연번	어미 유형	번역문
1	명사형 전성 어미	Avval sen salomlashishing to‘g‘ri bo‘ladi. (네가 먼저 인사함이 옳다.)
		Cholsu yaxshi universitetga kirishi aniq edi. (철수는 좋은 대학교에 입학했음이 확실하다.)
		Men, Sizlar baxtli bo‘lishingizni tilayman. (나는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바란다.)
		Olya matematika fanini o‘rganishni yoqtiradi. (올라는 수학 공부하기를 좋아한다.)
		Sen imtihondan o‘tishingni bilmagan edim. (네가 시험에 합격한 것을 몰랐다.)
		Bu narsa men xohlayotgan narsa emas. (이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다.)
2	관형 사형 전성 어미	Ana u yerda serial ko‘rayotgan odam- menning ayam. (저기서 드라마를 보는 사람이 우리 엄마이다.)
		Ana u yerda kitob o‘qiyotgan odam- menning ukam. (저기서 책을 읽는 사람이 내 동생이다.)
		Bu kitob o‘tgan hafta sotib olgan kitobim. (이 책은 지난 주말에 산 책이다.)
		Bir oz avval yegan kimbap juda shirin edi. (아까 먹은 김밥은 아주 맛있었다.)
		Dam olish kunida biz borayotgan joyimiz- Seul. (다음 주말에 우리가 갈 곳은 서울이다.)
		Men o‘qimoqchi bo‘lgan kitobni akam olib ketdi. (내가 읽을 책을 형이 가지고 갔다.)
		Men chiroyli gulni yoqtiraman. (나는 예쁜 꽃을 좋아한다.)

2	관형사형 전성어미	Notiqlik san'ati tanloviga ko'p talabalar keldi. (말하기 대회에 많은 학생이 왔다.)
		O'tgan yili bo'yi kichik bo'lgan bolaning bo'yi o's-di. (작년에는 키가 작던 아이가 많이 컸다.)
		Osoyishta bo'lgan maktab dars boshlanishi tufayli shovqinga aylandi. (조용하던 학교가 개강이 되어서 시끄러워졌다.)
		Mening oyligim sening oyligingga qaraganda kam bo'lsa kerak.(내 월급은 너의 월급보다 작을 것이다.)
		Ertaga ob-havo iliq bo'lsa kerak. (내일은 날씨가 따뜻할 것이다.)

학습자들은 우즈베크어로 된 복합 단문을 한국어로 번역하였다. 연구자는 학습자들이 우즈베크어 복합 단문을 한국어 내포문으로 번역할 때 한국어 전성어미를 사용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본 실험에서 제시한 문장은 총 18개였으며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학습자들이 번역할 때 어떤 어미를 많이 사용하여 복합문을 구성하는지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우즈베키스탄인 학습자들이 한국어로 번역한 전성어미와 관련된 번역문을 살펴보기 위하여 먼저 등급별 전성어미 사용수를 명사형 전성어미와 관형사형 전성어미로 나누어 확인해보도록 한다.

표 26. 등급별 전성어미 사용 수

연번	어미 유형	형태	사용 수			
			초급		중급	
1	명사형	-(으)口	-	-	-	-
		-	-	-	-	-
		-기	30	58	50	100
			28		50	
		-(으)ㄴ/는 것	60	85	70	120
			25		50	

2	관형사형	동사	-는	60	120	72	144
				60		72	
			-(으)ㄴ	60	120	70	140
				60		70	
			-(으)ㄴ	61	94	65	118
				33		53	
		형용사	-(으)ㄴ	55	85	68	108
				30		40	
			-던	5	5	20	30
				-		10	
			-(으)ㄴ	58	116	62	119
				58		57	
	응답 총수			683		879	
	무응답			487		291	
	질문 총수			1,170		1,170	

연구자가 제시한 우즈베크어 문장 36개 중에서 한국어 전성어미로 번역을 해야 하는 문장은 18개였다. 분석 결과 초급 학습자의 번역문에서는 전성어미가 총 683회 사용되었으며, 중급 학습자의 번역 자료에는 총 879회 사용되어 전성어미의 총 사용 횟수는 1,562회로 나타났다. 연결어미를 사용한 횟수가 984회였던 점을 고려할 때, 우즈베키스탄인 학습자의 경우 전성어미의 사용보다 연결어미의 사용에서 더 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아마도 연결어미의 의미 범주가 다양하고 의미 범주별로도 연결어미의 수가 많으며 사용에서도 많은 제약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위의 <표 25>에서 우즈베키스탄인 학습자들의 경우 명사형 전성어미 ‘-(으)ㄴ’을 사용하여 문장을 구성한 학습자가 전혀 없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기’보다는 ‘(으)ㄴ/는 것’을 사용하여 명사절을 만드는 학습자가 훨씬 더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중급 학습자보다 초급 학습자에게서 더 확연히 나타났다. 그리고 관형사형 전성어미의 경우 ‘-던’의 사용이 다른 어미의 사용보다 현저하게 낮다는 특징을 보였다. 또한

한국어 수준이 향상될수록 전성어미의 사용 수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초급단계에서는 많이 사용하지 않은 전성어미 ‘-기’의 경우 중급단계에서는 그 사용 수치가 두 배 이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즈베키스탄인 학습자의 한국어 번역 문장에 나타난 연결어미 수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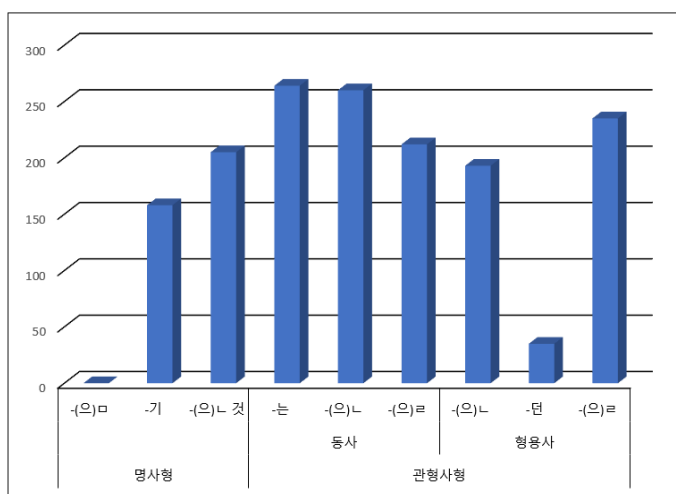


그림 7. 우즈베키스탄·한국어의 번역문에 나타난 전성어미 사용 수

외국어로서 한국어를 학습하는 학습자는 고급 수준으로 올라갈수록 문장구조가 복잡한 문장을 구성하게 된다. 다양한 구조의 문장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연결어미뿐만 아니라 전성어미의 사용이 필수적이라고 하겠다.

본 연구에서도 우즈베키스탄인 한국어 학습자가 번역한 문장을 분석한 결과 학습자들의 한국어 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내포문의 사용 빈도도 함께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학습자들의 한국어 실력이 높을수록 더 복잡한 문장을 구성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적지 않은 학습자들이 두 문장을 전성어미를 활용하여 합칠 때 여러 오류를 일으키는 것 또한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 절에서는 우즈베크어·한국어 번역에 나타나는 한국어 내포문의 특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6.2 우즈베크어·한국어 번역에 나타난 내포문(복합 단문)의 특성 분석

이 절에서는 우즈베키스탄인 한국어 학습자의 번역에 나타난 특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초급 학습자의 번역문에서 ‘관형사형 전성어미 + 것’의 사용 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관형사형 전성어미 ‘-(으)르, -(으)ㄴ, -는’이 그 뒤를 이었다. 그러나 명사형 전성어미 ‘-(으)ㄴ’은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6.2.1 명사형 전성어미

명사형 전성어미란 ‘주어 + 서술어’ 구성의 어간에 결합하여 안긴문장을 명사절로 만들어 주는 어미를 말한다. 명사형 전성어미에는 ‘-(으)ㄴ’과 ‘-기’가 있고, 명사형 전성어미는 아니지만 ‘관형사형 전성어미 + 것’도 명사형 전성어미와 같은 기능을 한다.

우즈베키스탄 학습자들의 우즈베크어·한국어 번역에 나타난 명사형 전성어미의 특징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가. ‘-(으)ㄴ’ 전성어미

명사형 전성어미 ‘-(으)ㄴ’은 ‘주어 + 서술어’ 절에서 명사가 하는 기능을 부여하는 어미로 주로 ‘알려지다, 드러나다, 밝혀지다, 현명하다, 적합하다’ 등의 용언을 서술어로 하는 문장의 성분으로 쓰인다. 명사형 어미 ‘-기’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일이나 동작의 과정이나 방법을 나타내는 일에 주로 사용되는

데 반해 ‘-(으)□’은 이미 이루어졌거나 결정된 일에 많이 사용된다(허용 등, 2005).

다음 예문을 보자. 아래 예문 (1a)는 번역을 요청한 우즈베크어 문장이고 (1b)는 한국어 대역문이다.

(1) a. Avval sen **salomlash-ishi**-ng to‘g‘ri bo‘ladi.

먼저 너-Ø 인사하-명사형 어미-인칭어미 옳다

b. 네가 먼저 인사함이 옳다.

c. 네가 먼저 인사하는 것이 옳다.

d. 네가 먼저 인사하면 (□인사함이) 옳다. (중급)

위의 예문 (1b)를 보면 ‘네가 인사하다’라는 문장의 서술어 어간 ‘인사하다’에 명사형 전성어미 ‘-(으)□’이 결합하여 문장에서 주어로 사용된다. 안은문장의 서술어가 ‘옳다’이므로 ‘옳다, 필요하다, 중요하다, 분명하다, 듣다, 알다, 깨닫다, 모르다’ 등의 서술어와 어울려 쓰이는 명사형 전성어미 ‘-(으)□’이 사용되었다. 그러나 우즈베크스탄인 학습자들의 번역문에서는 (1b)와 같은 문장이 전혀 제시되지 않았다. (1c)는 서술어의 어간 ‘인사하다’에 ‘관형사형 어미 + 것’이 결합하여 역시 주어의 역할을 한다. 이러한 ‘관형사형 전성어미 + 것’의 형태는 아주 높은 사용 수를 보였다. 하지만 (1d)는 명사형 전성어미를 잘못 사용한 오류 문장으로 주어의 기능을 하도록 문장을 구성해야 하는데 조건절을 구성하는 오류를 범하였다.

다음 예문을 보자. 아래 예문 (2a)는 번역을 요청한 우즈베크어 문장이고 (2b)는 한국어 대역문이다.

(2) a. Cholsu yaxshi universitet-ga kir-**ishi** aniq edi.

철수-Ø 좋다 대학교-부사격 입학하-명사형 어미 확실하다

b. 철수는 좋은 대학교에 입학했음이 확실하다.

c. 철수는 좋은 대학교에 입학한 것이 확실하다.

예문 (2b)의 문장이 (2a)에 대응하는 문장으로 기대하였으나 대부분의 우즈베키스탄인 학습자는 (2c)와 같이 ‘관형사형 어미 + 것’을 사용하여 번역하였다. (2b)와 같은 문장은 답으로 전혀 번역하지 않았다. 이는 우즈베키스탄인 학습자들에게 ‘-(으)ㄴ’보다는 ‘관형사형 전성어미 + 것’이 더 익숙하기 때문일 것이다. 한국어 모어 화자의 경우에도 (2b)보다 (2c)의 사용 빈도가 높은 것을 고려할 때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나. ‘-기’ 전성어미

허용 등(2005)에 따르면, 명사형 전성어미 ‘-기’는 ‘주어 + 서술어’ 절에서 명사가 하는 기능을 부여하는 어미로 주로 ‘바라다, 희망하다, 기대하다, 좋다’ 등의 용언을 서술어로 하는 문장의 성분으로 쓰인다. ‘-(으)ㄴ’이 이미 이루어졌거나 결정된 일에 많이 사용되는 반면에 ‘-기’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일이나 동작의 과정이나 방법을 나타내는 일에 주로 사용된다.

다음 예문을 보자.

(3) a. Men, Sizlar baxtli bo‘l-**ish**-ingiz-ni tila-y-man.

나-Ø 여러분-Ø 행복하다 되-**명사형 어미**-인칭(2인칭 복수)어미- 목적격 바라-현재시제-인칭어미

b. 나는 여러분이 **행복하는 것을** (□행복하기를) 바란다.

위 예문과 같이 우즈베키스탄인 초·중급 학습자들은 명사절을 만들 때 ‘-기’를 사용해야 하는 곳에 ‘관형사형 전성어미 + 것’을 사용하였다. 명사형 전성어미 ‘-기’와 ‘관형사형 전성어미 + 것’은 모두 우즈베크어의 ‘-(i)sh’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기’ 전성어미보다 자주 쓰는 ‘관형사형 전성어미 + 것’을 써서 한국어 문장을 구성한 예가 많았다.

(4) a. Olya matematika fan-ini o'rgan-**ish**-ni yoqtir-adi.

올라-Ø 수학-목적격 공부하-**명사형 어미**-목적격 좋아하-

현재어미

b. 올라는 수학 공부하기를 좋아한다.

c. 올라는 수학 공부하는 것을 좋아한다.

위 예문 (4b)와 (4c)는 모두 (4a)의 번역문으로 합당하다고 하겠다. (4b)는 목적어의 기능을 담당하는 ‘기 명사절’이 ‘좋아하다’를 서술어로 갖고 있고, (4c)는 목적어의 기능을 하는 ‘관형사형 전성어미 + 것’으로 구성된 명사절이 ‘좋아하다’를 서술어로 갖는 문장이다. 명사형 전성어미 ‘-기’는 주로 ‘바라다, 기대하다, 싫다, 좋다’와 같은 서술어와 같이 쓰이기 때문에 두 문장 모두 바른 문장이 된다.

한국어의 명사형 전성어미와 함께 사용되는 서술어와 우즈베키스탄인 한국어 학습자들이 번역한 문장의 특성을 고려할 때 우즈베키스탄인 한국어 학습자들에게 한국어의 명사형 전성어미를 교육할 때는 ‘-(으)ㄴ/이 옳다’, ‘-(으)ㄴ/이 확실하다’, ‘-기를 바란다’, ‘-기를 좋아한다’와 같이 문형으로 제시하면 학습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다음은 명사절의 기능을 담당하지만 명사형 전성어미가 아닌 형태로 명사절을 구성하고 명사형 전성어미보다 더 자주 쓰이는 ‘관형사형 전성어미 + 것’에 대해 살펴본다.

다. ‘관형사형 전성어미 + 것’

‘-(으)ㄴ/는 것’은 관형사형 전성어미에 의존명사 ‘것’이 결합한 형태로 ‘-(으)ㄴ, -기’와 같이 문장에서 명사절의 역할을 한다(허용 등, 2005; 김미경, 2014). 다시 말해, 주어나 목적어의 기능을 한다. 더욱이 이 결합은 명사형 전성어미보다 사용 빈도가 높다.

다음 예문을 보자. (5a)는 번역을 요청한 우즈베크어 문장이고, (5b)는 한국어 대역문이다.

(5) a. Sen imtihon-dan o't-**ish**-ing-ni bil-ma-gan edi-m.

너-Ø 시험-부사격 합격하-**명사형 어미**-인칭어미-목적격 알- 부정-과거-인칭어미

b. 네가 시험에 **합격한** 것을 몰랐다.

c. 네가 시험에 **합격하는** 것 (□**합격한** 것)을 몰랐다.

d. 네가 시험에 **합격한** 지를 (□**합격한** 것/**합격한** 줄)을 몰랐다.

위의 예문 (5c)는 ‘관형사형 전성어미 + 의존명사 것’의 형태로 명사형 전성어미의 기능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과거 시제를 사용해야 할 상황에서 현재 시제를 사용하여 ‘-는 것’으로 구성함으로써 오류를 범하였다. (5d)의 경우에는 ‘-(으)ㄴ 것’으로 번역하는 대신 ‘-(으)ㄴ지’를 활용해 번역하였으나 ‘-(으)ㄴ 줄 알다/모르다’의 문형을 모르고 ‘합격한 지를 몰랐다’로 번역한 오류를 범하였다. 다음 예문을 보자.

(6) a. Bu narsa men **xohla-yotgan** narsa emas.

이것-Ø 나-Ø 원하-**형동사형 어미**-인칭어미 것-Ø 아니다.

b. 이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다.

c. 이것은 내가 **원한** (□**원하는**) 것이 아니다.

(6a)는 우즈베크어 문장이고, (6b)는 그에 대응하는 한국어 번역 문장이다. (6c)는 ‘관형사형 전성어미 + 것’은 바르게 선택하였으나 시제 오류를 범한 문장이다.

‘관형사형 전성어미 + 것’의 결합 형태를 사용한 명사절은 한국어 모어 화자의 언어생활에서나 우즈베키스탄인 학습자들의 번역 자료에서 빈도가 높은 항목이다. 그러나 우즈베키스탄

인 한국어 학습자들의 우즈베크어·한국어 번역에서는 관형사형 전성어미의 시제를 바르게 선택하지 못하는 데서 발생하는 오류가 많았다. 따라서 한국어 교사가 우즈베키스탄인 한국어 학습자들에게 ‘관형사형 전성어미 + 짓’을 교육할 때에는 상황에 맞는 시제를 선택하는 방법을 정확히 강조하여 지도해야 할 것이다.

6.2.2 관형사형 전성어미

관형사형 전성어미란 ‘주어 + 서술어’ 구성의 어간에 결합하여 안긴문장을 관형절로 만들어 주는 어미를 말한다. 관형절은 문장에서 관형사와 같은 역할, 즉 뒤에 오는 명사를 수식해 준다. 그러나 2.3절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한국어에서는 동사와 형용사가 모두 관형사형 전성어미와 결합하여 관형절을 구성할 수 있다. 하지만 우즈베크어에서 동사는 동형사형 어미와 결합하여 뒤에 오는 명사를 수식하지만 형용사의 경우에는 원래부터 수식의 기능을 가지고 있어 그대로 뒤에 오는 명사를 수식할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단순화하기에는 한국어 관형사형 어미의 형태가 너무 다양하다. 3장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한국어의 관형사형 전성어미는 동사의 경우 과거에는 받침이 없으면 ‘-ㄴ’, 받침이 있으면 ‘-은’을 쓰고, 현재에는 받침의 유무와 상관없이 ‘-는’을 쓰며, 미래에는 받침이 없으면 ‘-ㄹ’, 받침이 있으면 ‘-을’을 쓴다. 형용사의 경우 과거에는 받침의 유무와 상관없이 ‘-던’을 쓰고, 현재에는 받침이 없으면 ‘-ㄴ’, 받침이 있으면 ‘-은’을 쓰고, 미래에는 받침이 없으면 ‘-ㄹ’, 받침이 있으면 ‘-을’을 쓴다(허용 등, 2005). 또한 우즈베크어에서는 수식을 받는 명사 앞에 동사가 오면 동사 뒤에 한국어의 관형사형 전성어미에 대응하는 ‘-gan(과거), -(a)yotgan(현재), -(a)digan(미래)’을 붙여야 한다. 이러한 한국어 전성어미의 복잡함과 한국어와 우즈베크어의 차이점으로 인해 우즈베키스탄인 한국어 학습자는 한국어의 관형사형 전성어미를 사용하는 데에 있어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이에 동사와 관형사형 전성어미가 결합한 형태와 형용사와 관형사형 전성어미가 결합한 형태로 나누어 우즈베키스탄인 학습자들이 구성한 한국어 내포문에 나타난 특징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가. 동사 + 관형사형 전성어미

관형사형 전성어미와 결합하는 용언이 동사인 경우 현재에는 ‘-는’이 사용되고 과거에는 ‘-(으)ㄴ’이 사용되며, 미래에는 ‘-(으)ㄹ’이 사용된다. 다음 예문을 보자.

(7) a. Ana u yer-da serial ko‘r-**ayotgan** odam- men-ning ona-m.

저기-부사격 드라마-Ø 보-**형동사형 어미** 사람-Ø 나-의 엄마 - 인칭어미

b. 저기서 드라마를 **보는** 사람이 우리 엄마이다.

c. 저기서 드라마를 **본** (□**보는**) 사람이 우리 엄마이다.

d. 저기서 드라마를 **보고 있는** 사람이 우리 엄마이다.

‘드라마를 보다’라는 절은 뒤에 오는 명사 ‘사람’을 수식하는데 ‘보다’는 동사이고 시제는 현재이다. 따라서 (7b)와 같이 관형사형 전성어미 ‘-는’을 사용하여 ‘드라마를 보는 사람’으로 번역해야 한다. 그러나 위의 예문 (7c)를 보면 초·중급 학습자들은 시제가 현재임에도 불구하고 관형사형 어미를 ‘-는’ 대신 ‘-(으)ㄴ’으로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7d)는 일부 중급 학습자들이 ‘-는’ 대신 진행의 의미를 첨가하여 ‘-고 있는’을 사용한 예이다. 이와 같은 오류는 아래 예문에서도 보인다.

(8) a. Ana u yer-da kitob o‘qi-**yotgan** odam- men-ning uka-m.

저기-부사격 책-Ø 읽-**형동사형 어미** 사람-Ø 나-의 동생-

인칭어미

b. 저기서 책을 읽은 (□읽는) 사람이 내 동생이다.

다음은 관형절이 과거 시제인 경우를 살펴보자. 이런 경우 관형사형 어미 ‘-(으)ㄴ’을 사용하는데 이 어미는 다른 관형사형 어미와 비교할 때 비교적 사용을 잘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관형사형 어미 ‘-(으)ㄴ’의 오류는 아래 예문 (9b, c)에서와 같이 ‘-던’이나 ‘-는’으로 대치하는 경우가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 (9) a. Bu kitob- o‘tgan hafta-Ø sotib ol-**gan** kitob-im.
이 책 지나-형동사형 어미 주말-Ø 사-형동사형 어미 책-인칭어미
b. 이 책은 지난 주말에 샀던 (□산) 책이다.
c. 이 책은 지난 주말에 사는 (□산) 책이다.

예문 (9b, c)처럼 한국어 학습자들은 받침이 없는 경우에 사용하는 동사의 과거 관형사형 전성어미 ‘-ㄴ’을 ‘-았던’과 ‘-는’으로 대치하는 오류를 범하였다. 아래 예문은 받침이 있는 경우에 사용하는 동사의 과거 관형사형 전성어미 ‘-은’이 사용되어야 할 상황에서 발생한 오류 문장이다.

- (10) a. Bir oz avval ye-**gan** kimbap juda shirin edi.
아까 먹-형동사형 어미 김밥-Ø 아주 맛있다-과거
b. 아까 먹은 김밥은 아주 맛있었다.
c. 아까 먹던 (□먹은) 김밥은 아주 맛있었다.

위의 예문 (10b)는 말을 하는 시점보다 ‘김밥을 먹은 일’이 앞서므로 과거 관형사형 전성어미 ‘은’을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우즈베키스탄인 한국어 학습자들은 ‘먹던’을 선택하여 번역하였다.

다음은 미래형의 관형사형 어미의 사용 특징에 대해 알아본다. 아래 예문을 보자. (11a)는 우즈베키스탄인 학습자들에게 번역을 요청한 문장이고, (11b)는 그에 대응하는 한국어 문장이다.

(11) a. Dam olish kuni-da biz bor-**ayotgan** joy-imiz-Seul.

다음 주말-부사격 우리-Ø 가-**형동사형** 어미 곳-인칭조사 서울-Ø

b. 다음 주말에 우리가 **갈** 곳은 서울이다.

c. 다음 주말에 우리가 **가는 (□갈)** 곳은 서울이다.

d. 다음 주말에 우리가 **가려고 하는** 곳은 서울이다.

위의 예문 (11b)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동사 ‘가다’는 받침이 없는 동사이므로 미래형에 ‘-ㄹ’이 결합하여 뒤에 오는 ‘곳’을 수식한다. 그러나 (11c)에서는 시제를 미래 ‘-(으)ㄹ’이 아닌 현재 ‘-는’으로 사용한 것이다. 물론 한국어에서도 이 경우 현재형의 ‘-는’을 사용하기도 한다. 예문 (11d)는 중급 학습자의 예문으로 화자의 의도와 계획을 강조하여 ‘-(으)ㄹ’ 대신 ‘-(으)려고 하는’과 같은 형태를 사용하여 문장을 구성한 예이다. 다음은 ‘-(으)ㄹ’ 대신 ‘-(으)려고 하는’과 ‘-고 싶은’을 사용하여 번역문을 구성한 예이다.

(12) a. Men o‘qi-**moqchi bo‘lgan** kitob-ni aka-molib ket-di.

나-Ø 읽-**형동사형** 어미 책-목적격 형-인칭조사 가져가-과거어미

b. 내가 **읽을** 책을 형이 가지고 갔다.

c. 내가 **읽으려고 하는** 책을 형이 가지고 갔다.

d. 내가 **읽고 싶은 (□읽을)** 책을 형이 가지고 갔다.

(12b)는 (12a)에 대응하는 한국어 문장이다. ‘형이 책을 가지고 간’ 상황이 발생한 시점에서는 ‘내가 그 책을 읽지 않았기 때문’에 (12b)처럼 ‘읽을’이라는 미래형 관형사형 어미를 사용하여 관형절을 구성해야 한다. 그러나 (12c)는 위 예문(11d)와 마찬가지로 일부의 중급 학습자들이 의도나 목적을 강조하여 ‘-(으)려고 하는’을 사용하여 번역을 한 문장이고, (12d)는 희망을 강조하여 ‘-고 싶은’을 사용한 문장이다. (12d)의 경우는 ‘책을 읽고 싶지 않으나 읽어야 할 경우’가 있을 수 있어 본래의 의미와는 다소 거리가 있다고 하겠다.

다음은 형용사에 관형사형 전성어미가 결합하는 예를 살펴보자.

나. 형용사 + 관형사형 전성어미

관형사의 기능을 담당하는 ‘주어 + 서술어’에서 서술어가 형용사인 경우 현재에는 받침의 유무에 따라 ‘-(으)ㄴ’을 붙이고, 과거에는 ‘-던’을, 미래에는 ‘-(으)ㄹ’을 붙인다. 이 경우 과거 ‘-던’은 회상의 의미를 갖고, ‘-(으)ㄹ’은 추정의 의미를 갖는다(허용 등, 2005).

형용사의 현재 관형사형 어미가 결합한 다음 예문을 보자. (13a)는 우즈베키스탄인 학습자들에게 번역을 요청한 문장이고, (13b)는 그에 대응하는 한국어 번역 문장이다.

(13) a. Notiqlik san’ati tanlovi-ga **ko’p** talaba-lar kel-di.

말하기 대회-부사격 많다-Ø 학생-복수-Ø 오-과
거어미

b. 말하기 대회에 **많은** 학생이 왔다.

c. 말하기 대회에 **많다**(□많은) 학생이 왔다.

d. 말하기 대회에 **많이**(□많은) 학생이 왔다.

예문 (13c, d)는 각각 초급, 중급 학습자들이 범한 오류이다. 두 경우 모두 ‘관형사 전성어미 + 명사’와 같은 한국어의 문장 구조를 어기고 있다. 우선 (13c)의 오류 유형을 살펴보도록 한다. 이는 초급 한국어 학습자들이 형용사 뒤에 아무런 어미를 붙이지 않은 누락 오류의 예이다. 이는 우즈베크어에서는 형용사가 아무런 어미와의 결합 없이 뒤에 오는 명사를 수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부의 학습자들이 한국어와 우즈베크어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차이를 인지하지 못하여 오류를 생성한 것이다. (13d)는 ‘학생’이 명사이기 때문에 ‘많다’에 관형사형 전성어미와 결합한 형태인 ‘많은’을 사용해야 하나 ‘많이’와 같은 부사를 사용한 대치 오류의 예이다.

다음은 받침이 없는 형용사 뒤에 명사가 오는 예문을 살펴보자. (14a)는 우즈베크어 문장이고, (14b)는 이에 대응하는 한국어 번역 문장이다.

- (14) a. Men **chiroyli** gul-ni yoqtir-a-man.
 나-Ø 예쁘다-Ø 꽃-목적격 좋아하-현재어미-인칭어미
 b. 나는 예쁜 꽃을 좋아한다.
 c. 나는 예쁘다 (□예쁜) 꽃을 좋아한다.

예문 (14c)는 형용사 뒤에 아무런 어미를 붙이지 않고 원형을 그대로 사용함으로써 일으킨 누락 오류 문장이다. 이는 위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우즈베크어에서는 형용사가 다른 어미의 도움 없이 그 자체로 뒤에 오는 명사를 수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은 관형사형 전성어미가 사용된 예를 살펴보자. 다음 예문 (15a)와 (16a)는 우즈베크어 문장이고, (15b)와 (16b)는 한국어 대역문이다.

(15) a. O'tgan yili bo'y-i kichik **bo'l-gan** bola-ning bo'y-i o's-di.

작년-Ø 키-인칭조사 작 되-형동사형 어미 아이-부사격

키-인칭조사 크다-과거어미

b. 작년에는 키가 작던 아이가 많이 컸다.

c. 작년에는 키가 작은 (□작던) 아이가 많이 컸다.

(16) a. Osoyishta **bo'l-gan** maktab dars boshlanishi tufayli shovqin-ga aylan-di.

조용하-되-형동사형 어미 학교-Ø 개강-Ø

시작하-연결어미(어서) 시끄럽-보조동사(-아지다)-과거어미

b. 조용하던 학교가 개강이 되어서 시끄러워졌다.

c. 조용한 (조용하던) 학교가 개강이 되어서 시끄러워졌다.

위의 예문 (15b)와 (16b)를 보면, 각각 ‘키가 작던 때’와 ‘조용하던 때’를 회상하는 상황이므로 ‘-던’을 사용하여 문장을 구성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우즈베키스탄인 한국어 학습자들은 각각 현재 관형사형 전성어미인 ‘-(으)ㄴ’을 사용하여 ‘작은’과 ‘조용한’으로 구성함으로써 대치 오류를 범하였다. 이러한 오류는 우즈베키스탄인 한국어 학습자들이 ‘-던’과 ‘-(으)ㄴ’을 우즈베크어의 형동사형 어미 ‘-gan’으로 여긴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위의 예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우즈베키스탄인 한국어 학습자들은 ‘-던’을 써야 할 자리에 자주 ‘-(으)ㄴ’을 사용하였다. 따라서 우즈베키스탄인 학습자들에게 한국어의 관형사형 전성어미를 교육할 때는 ‘형용사 + -(으)ㄴ’과 ‘형용사 + -던’의 차이를 분명히 교육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다음은 형용사에 관형사형 전성어미 ‘-(으)ㄴ’이 결합한 예문에 대해 살펴보자. 다음 예문 (17a)와 (18a)는 우즈베크어 문장이고, (17b)와 (18b)는 그에 대응하는 한국어 번역 문장이다.

(17) a. Men-ning oyliq-im sen-ning oyliq-ing-ga qaraganda kam **bo‘l-sa kerak**.

나-의 월급-인칭조사 너-의 월급-인칭조사(2인칭)-보다 작다

되-추측형 어미

- b. 내 월급은 너의 월급보다 작을 것이다.
- c. 내 월급은 너의 월급보다 작은(□작을) 것이다.
- d. 내 월급은 너의 월급보다 작을 것 같다.

(18) a. Ertaga ob-havo iliq **bo‘l-sa kerak**.

내일-Ø 날씨-Ø 따뜻하다-되-추측형 어미

- b. 내일은 날씨가 따뜻할 것이다.
- c. 내일은 날씨가 따뜻한(□따뜻할) 것이다.
- d. 내일은 날씨가 따뜻할 것 같다.

형용사에 ‘-(으)ㄴ’이 붙으면 미래의 뜻보다 추측이나 추정의 뜻을 나타내게 된다(허용 등, 2005). 위의 예문 (17c)과 (18c)의 두 문장은 추측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으)ㄴ’이 아닌 ‘-(으)ㄴ’을 사용하여 각각 ‘작을 것’, ‘따뜻할 것’으로 구성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의 중급 학습자들은 (17d)와 (18d)에서와 같이 형용사 어간에 어미 ‘-(으)ㄴ’은 사용하였으나 ‘추측’의 의미를 강조하여 ‘-(으)ㄴ 것 같다’라는 문형을 사용하여 문장을 구성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지금까지 한국어·우즈베크어의 번역 문장에 나타난 한국어의 내포문에 나타난 특징을 명사절과 관형절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명사절의 경우에는 ‘-(으)ㄴ’이나 ‘-기’보다는 ‘관형사형 전성어미 + 것’의 형태를 더 자주 사용하였으나 ‘관형사형 어

미'의 선택 시에 형태 오류를 많이 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형절의 경우에는 우즈베크어의 영향으로 동사에서보다는 형용사에서 오류를 범하는 예가 더 많았다. 그리고 명사절의 '관형사형 전성어미 + 것'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관형사형 전성어미의 시제에 따른 적절한 형태를 사용하는 데 있어 범하는 오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종합해 볼 때, 우즈베키스탄인 학습자들에게 한국어의 내포문을 가르칠 때는 무엇보다도 시제에 따른 형태 변화를 강조해야 할 것이다.

다음 장에서는 이 논문의 결론을 제시한다.

7. 결 론

한국어와 우즈베크어는 모두 알타이어족의 언어로 교착어적 성격이 강하여 어근에 조사와 어미 등 문법 요소가 결합하여 사용되는 등 유사점이 많다. 그러나 두 언어 모두에 복합문은 있으나 복합문을 구성하는 방식이 상이하여 우즈베키스탄인 학습자들이 한국어의 복합문을 만들 때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와 우즈베크어의 복합문의 유형과 구성 방식에 대해 비교·대조하고, 우즈베키스탄인 학습자의 우즈베크어·한국어 번역에 나타난 한국어 복합문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우즈베크어·한국어 번역에 나타난 한국어 복합문의 특징은 우즈베키스탄 현지 대학에서 한국어를 전공하고 있는 130명의 학생들에게 연결어미를 사용할 것으로 예측한 문장 18개와 전성어미를 사용할 것으로 예측한 문장 18개를 번역한 자료를 분석하여 파악하였다.

먼저 한국어와 우즈베크어의 복합문의 유형과 구성 방식에 대해 비교·대조한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우즈베크어와 한국어는 문장을 구성하는 방법이나 구성성분의 순서 등 통사적 측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지만, 문장을 분류하는 방법에는 작지 않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한국어 문법에서는 문장은 단문과 복합문으로 나누고, 복합문은 다시 두 문장이 나란히 이어져 있는 접속문과 어떤 문장이 다른 문장 속에 한 성분으로서 들어가 안긴 내포문으로 분류한다. 즉, 한국어에서는 한 문장이 그 속에 다른 문장을 한 성분으로 안고 있는 문장을 내포문이라고 부르고, 이를 접속문과 함께 복합문으로 분류한다.

이에 반해, 우즈베크어 문법에서는 문장은 단문과 복합 단문, 복합문으로 나눈다. 한국어에서는 복합문에 접속문과 내포문이 포함되는 것과 달리 우즈베크어에서는 한국어의 내포문과 같은 복합 단문을 복합문이 아닌 단문으로 취급한다. 즉, 우

즈베크어에서는 안긴문장이 안은문장의 하나의 성분의 역할을 한다는 점에 초점을 두어 안긴문장을 ‘sodda gap (단문)’ 또는 ‘murakkablashgan sodda gap (복합 단문)’으로 분류한다. 복합문은 앞 문장과 뒤 문장을 접속사나 어미로 구성하거나 접속사나 어미 없이 쉼표(,)나 대쉬(-)로 구성한다. 어미로 두 문장을 연결할 경우에는 앞뒤 문장의 주어가 같으면 단문으로 분류하고, 다르면 복합문으로 분류한다.

연결어미의 의미에 따른 한국어의 접속문과 이에 대응하는 우즈베크어의 문장을 대조한 결과 한국어에서는 연결어미를 사용해야만 두 문장을 나란히 이어줄 수 있으나 우즈베크어에서는 어미뿐만 아니라 접속사나 쉼표(,), 대쉬(-) 등으로도 두 문장을 연결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우즈베크어에서 어미로 두 문장을 연결할 경우 앞뒤 문장의 주어가 다른 경우에만 복합문으로 보고, 주어가 같은 경우에는 단문으로 본다.

한국어 내포문과 이에 대응하는 우즈베크어 문장을 대조해 본 결과에 의하면, 한국어와 우즈베크어 두 언어 모두에서 구성성분으로 하여금 명사의 기능을 하게 하는 명사형 전성어미와 뒤에 오는 명사를 수식하는 관형사형 전성어미(우즈베크어의 형동사형 전성어미)가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한국어의 명사절은 문장이 명사화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한 문장의 서술어가 명사형 전성어미 ‘-(으)ㄴ’이나 ‘-기’ 또는 ‘관형사형 전성어미 + 것’을 취하여 형성된다. 관형절을 만드는 관형사형 전성어미는 결합하는 어간의 품사와 시제, 음운 정보에 따라 달라진다. 즉, 어간이 동사인지 형용사인지에 따라 어미의 형태가 다르고, 시제가 과거, 현재, 미래인지에 따라 어미의 형태가 다르다. 또한, 어간이 모음으로 끝나는지 자음으로 끝나는지도 관형사형 전성어미의 선택에 영향을 준다. 동사의 경우 과거에는 받침이 없으면 ‘-ㄴ’, 받침이 있으면 ‘-은’을 쓰고, 현재에는 받침의 유무와 상관없이 ‘-는’을 쓰며, 미래에는 받침이 없으면 ‘-ㄹ’, 받침이 있으면 ‘-을’을 쓴다. 형용사의 경우에는 과거에는 받침의 유무와 상관없이 ‘-던’을 쓰고, 현재에는 받침이

없으면 ‘-ㄴ’, 받침이 있으면 ‘-은’을 쓰고, 미래에는 받침이 없으면 ‘-ㄹ’, 받침이 있으면 ‘-을’을 쓴다. 그러나 형용사의 경우 과거 ‘-던’은 회상의 의미를 갖고, ‘-(으)ㄹ’은 추정의 의미를 갖는다(허용 등, 2005).

한국어의 명사형 어미에 대응하는 우즈베크어의 명사형 어미(harakat nomi)는 ‘-(i)sh’이고, 한국어의 관형사형 어미의 기능을 하는 형동사형 어미(sifatdosh)는 시제에 따라 ‘-gan(과거), -(a)yotgan(현재), -(a)digan(미래)’를 사용한다.

다음으로 우즈베크어·한국어의 번역 문장에 나타난 한국어 접속문과 내포문에 나타난 특성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즈베크스탄인 한국어 학습자들은 초급에서 중급으로 올라갈수록 복합문의 사용량이 많아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초급에서는 연결어미의 사용이 적었다. 초급 학습자들은 접속문에서는 목적 관계 연결어미 ‘-(으)면’, 나열·병렬관계 연결어미 ‘-고’, 시간 관계 연결어미 ‘-고’, 대조관계 연결어미 ‘-지만’의 사용이 많이 나타났다. 중급 학습자들의 경우에는 초급 학습자들보다 사용 횟수는 늘었지만, 사용 양상은 비슷하였다. 중급 학습자들의 번역문에서도 초급 학습자의 번역문과 마찬가지로 나열·병렬관계 연결어미 ‘-고’, 시간 관계 연결어미 ‘-고’, 목적 관계 연결어미 ‘-(으)면’, 대조관계 연결어미 ‘-지만’의 사용이 많이 나타났다.

초급의 경우 사용 수가 가장 높은 연결어미는 시간 관계의 ‘-고’, 대조 관계의 ‘-지만’, 조건 관계의 ‘-(으)면’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에 반해, 배경 관계의 ‘-아서/어서’는 전혀 사용하지 않았고, 나열·병렬 관계의 ‘-(으)며’와 대조 관계의 ‘-(으)나’의 경우에도 사용 수가 극히 낮았다. 중급의 경우 사용 수가 가장 많은 연결어미는 대조 관계의 ‘-지만’, 나열·병렬 관계의 ‘-고’, 시간 관계의 ‘-고’ 순으로 높게 나타났고, 초급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배경 관계의 ‘-아서/어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았고, 나열·병렬 관계의 ‘-(으)며’와 대조 관계의 ‘-(으)나’의 경우에도 사용 수가 극히 낮았다. 연결어미의 사용에서 초급과 중급

에서 가장 차이가 나는 어미는 나열·병렬 관계의 ‘-고’와 수단·방식 관계의 ‘-아서/어서’, 이유 관계의 ‘-아서/어서’ 순이었다.

한국어 숙달도가 낮은 초급 학습자들이 연결어미를 사용하여 문장을 확대하지 못하고 단문을 생성하는 데 그치는 특징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결어미의 사용 수를 보면 숙달도에 따른 명확한 차이가 나타나는데 숙달도가 높아지면서 연결어미의 사용 수가 증가한다. 그러나 우즈베키스탄인 학습자의 초·중급 한국어 번역 문장에 나타난 전체적인 특징을 살펴보면 다양한 연결어미를 사용하여 번역하지 않고 익숙한 연결어미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번역하였다는 특징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우즈베키스탄 학습자의 경우 전성어미의 사용보다 연결어미의 사용에서 더 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아마도 연결어미의 의미 범주가 다양하고, 의미 범주별로도 연결어미의 수가 많고, 사용에서도 많은 제약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우즈베크인 초·중급 학습자들의 우즈베크어·한국어 번역문에 나타난 내포문의 특징을 보면, 학습자들의 경우 명사형 전성어미 -(으)口’을 사용하여 문장을 구성한 학습자가 전혀 없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기’보다는 ‘(으)ㄴ/는 것’을 사용하여 명사절을 만드는 학습자가 훨씬 더 많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중급보다 초급에서 더 확연히 나타났다. 관형사형 전성어미의 경우 ‘-던’을 제외하고 다른 전성어미는 활발하게 사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국어 수준이 향상될수록 전성어미의 사용 수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초급단계에서는 많이 사용하지 않은 전성어미 ‘-기’의 경우 중급단계에서는 그 사용 수치가 두 배 이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어로써 한국어를 학습하는 학습자는 고급 수준으로 올라갈수록 문장구조가 복잡한 문장을 구성하게 된다. 다양한 구조의 문장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연결어미뿐만 아니라 전성어미의 사용이 필수적이라고 하겠다. 우즈베키스탄인 한국어 학습

자가 번역한 문장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학습자들의 한국어 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내포문의 사용 빈도도 함께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학습자들의 한국어 실력이 높을수록 더 복잡한 문장을 구성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적지 않은 학습자들이 두 문장을 전성어미를 활용하여 합칠 때 여러 오류를 일으키는 것 또한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한국어와 우즈베크어의 복합문의 유형과 구성 방식에 대해 비교·대조함으로써 양 언어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파악할 수 있었다. 또한 우즈베키스탄인 학습자의 우즈베크어·한국어 번역에 나타난 한국어 복합문의 특징을 살펴봄으로써 우즈베키스탄 학습자의 복합문 습득 과정에 나타난 특징을 파악해볼 수 있었다. 본 연구는 한국어와 우즈베크어의 복합문 대조에 관한 처음 시도된 연구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또한, 한국어와 우즈베크어의 복합문 대조에 머무르지 않고, 초·중급 학습자들의 우즈베크어·한국어의 번역 문장을 분석하여 학습자 언어의 특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분석 자료의 표본 수가 적고 자유 작문을 활용하지 않고 단순히 번역 문장에 나타난 특징을 분석하였다는 데 한계가 있다고 하겠다. 이와 같은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 결과는 우즈베키스탄인 한국어 학습자들이 한국어를 배우는 데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문헌

- 공나형. (2020). 한국인 모어 화자와 우즈베키스탄 유학생의 조언 화행 비교 연구. **새국어교육**, 124, 257-296.
- 구자로바 딜푸자. (2020). **한국어·우즈베크어 의성어 대조 연구**. 석사학위논문, 경상대학교.
- 국립국어원. (2005).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 1**.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길혜빈. (2018). 장르-텍스트-문법을 활용한 한국어 조건 연결어미 사용 특성 분석 연구. **한국문법교육학회 제28차 학술대회발표논문집**, 113-131.

김경령. (2019). 아동반 한글학교 교사의 민족 정체성 교육에 대한 실태 조사 연구: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을 중심으로. **한국언어문화학**, 16(2), 1-30.

김마리나. (2005). **우즈베크어를 모어로 하는 한국어 학습자의 조사 사용 오류분석**. 석사학위논문, 호서대학교.

김미경. (2014). **한국어 접문장 쓰기 능력 향상을 위한 방안 연구: 중급학습자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김미영. (2017). **우즈베키스탄 대학 내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현지화 교재 개발 방안 연구**. 석사학위논문, 배재대학교.

김병일. (2006). **우즈베크어: 문법+회화+사전**. 서울: 한반도국제대학원대학교 출판부.

김소영. (2016). **외국인 유학생의 한국어 복합문 구성능력 연구: ‘대조’의 연결어미 사용 양상 분석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김영순, 갈라노바 딜노자. (2017). 재한 우즈베키스탄 유학생들의 한국어 의사소통능력 함양을 위한 한국어교육 방안. **인문사회** 21, 8(3), 547-564.

김용경. (2020). 우즈베키스탄 초급 학습자 작문에 나타난 문법 범주별 오류 양상 연구. **한말연구**, 55, 79-107.

김유보비. (2009). **우즈베키스탄의 한국어 교육 및 학습자 언어 연구: 러시아어 화자 한국어 학습자 오류 분석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김지혜. (2009). **한국어 이유 표현 교육 연구**. 박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김진수. (1987). **국어접속문 연구**. 박사학위논문, 충남대학교.

남기심, 고영근. (1998). **표준국어문법론**. 서울: 탑출판사.

남기심, 고영근, 유현경, 최형용. (2019). **표준국어문법론**. 서울: 한국문화사.

남기심. (1978). **국어 연결어미의 활용적 기능**.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남기심. (2001). **현대 국어 통사론**. 서울: 태학사.

남빅토르. (2012). **우즈베키스탄의 쓰기 교육과정 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당홍반. (2015). **한국어 내포문 교육방안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딜푸자, 박덕유. (2020). 우즈베크인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우즈베크어 격조사 대조 연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0(16), 1-27.

민혜경, 이영희. (2020). 국내 우즈베키스탄 유학생들의 문화충격 요인에 대한 질적 연구: 포커스그룹인터뷰를 중심으로. **한국민족문화**, 76, 321-350.

박안토니나. (2012). 우즈베키스탄의 한국문학 교육의 현황과 과제. **우리말교육현장연구**, 6(2), 257-285.

박안토니나. (2013). 우즈베키스탄 고려인 문학의 연구 필요성과 방향. **한민족어문학**, 63, 69-94.

박안토니나. (2015). **우즈베키스탄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현대소설 감상 교육 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박지영. (2016). 한국어 교육을 위한 계기의 연결어미 ‘-고’와 ‘-어서’의 교육방법 연구. **언어과학연구**, 78, 169-187.

박향란. (2016). **한국어 시간 관계 연결어미에 관한 연구: ‘-고’, ‘-(으)면서’, ‘-(으)며’, ‘-자마자’, ‘-자’, ‘-아서/어서’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백연화. (2019). 한국어 학습자의 모어 간섭에 의한 오류에 대하여: 우즈베키스탄 학습자의 말하기에 나타난 조사 사용을 중심으로. **이중언어학**, 74, 149-178.

서정수. (1994). **국어문법**. 서울: 뿌리깊은나무.

서정수. (2005). **한국어의 부사**.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솔레바 디라프루즈. (2019). 우즈베키스탄 한국어문화교육의 현황과 발전 방안. **한국학논집**, 77, 189-215.

심현주, 김선정. (2015). 우즈베키스탄 학습자의 한국어 과열음 특성 분석. *언어과학연구*, 75, 151-168.

심현주. (2017). 한국어 학습자의 모음 변별에 한국어 무성모음화가 미치는 영향 연구: 우즈베키스탄 한국어 학습자의 모음 / ɪ/와 / ʌ/ 대치 오류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

안수현. (2019). 우즈베키스탄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발음 교육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안여경. (2012). 우즈베키스탄 한국어교육의 역사와 현황. *한어문교육*, 26, 45-71.

오현진. (2019). 우즈베크인과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서술어 사용 양상 연구. 석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

우미드존. (2018). 우즈베키스탄 초급 학습자를 위한 한국문화 교육 방안: 대학의 한국어 교재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상명대학교.

우즈베키스탄 교육부. (2014). 우즈베키스탄 학교 문법. 타슈켄트: Tasvir.

유단단. (2016). 외국인 유학생의 부사절 사용 능력 연구: 학부 유학생의 글쓰기 자료 분석을 바탕으로.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유승만. (2009a). 우즈베크어와 한국어의 형태적 특징 비교연구. *슬라브학보*, 24(2), 109-136.

유승만. (2009b). 유라시아 읽기: 우즈베크어와 한국어의 유사성에 대한 소고. *e-Eurasia*, 13, 20-21.

유언가. (2017). 학부 유학생의 글쓰기에 나타난 연결어미 ‘-고’의 사용 양상과 복합문 구성능력 연구.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유영지. (2011). 우즈베키스탄의 한국어 교재 분석 및 개선 방안. 석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유종원. (2017). 우즈베크어 모어 한국어 학습자의 쓰기 오류 연구: 중·고급 학습자의 한국어능력시험 쓰기 자료를 바탕으로.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유현경, 한재영, 김홍범, 이정택, 김성규, 강현화, 구본관, 이병규, 황화상, 이진호. (2018). **한국어 표준문법**. 서울: 집문당.

유현경. (1986). 국어 접속문의 통사적 특질에 대하여. **한글**, 191, 77-109.

유호. (2015). **관형사절을 활용한 한국어 복합문구성 능력 연구**.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이가원. (2019). 비교문학 관점에서 본 설화의 한국어 문화 교육적 의의와 가치 연구: 한국, 베트남, 우즈베키스탄의 흥부 놀부형 설화를 중심으로. **한국문예비평연구**, 62, 355-391.

이소영. (2003). **한국어와 우즈베크어의 격표지 기능 비교 연구**. 석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이순자. (1987). **영어화자의 한국어 습득과정에서 일어난 오류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이윤진. (2002). **한국어 학습자의 연결어미 사용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이익섭. (2012). **한국어 문법**.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이정명. (2019). **우즈베키스탄 한국어 학습자의 발음 오류 양상과 교육방안 연구**. 석사학위논문, 인하대학교.

이지훈. (2011). **러시아어권 학습자의 한국어 격조사 오류분석 연구: 러시아어, 카자흐어, 우즈베크어, 학습자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한국외국어대학교.

장현아. (2018). **우즈베키스탄 학습자의 한국어 발음 특성 연구: 자음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

주라예브 마함마드. (2018). **한국어와 우즈베크어 문법 요소의 대응에 관한 연구: 격조사 대조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중부대학교.

차류버비. (2008). **우즈베키스탄 고려말의 용언 불규칙 활용에 대하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최권진. (2019). **우즈베키스탄 유학생의 한국어언어문화 적응 연구.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53, 151-178.

최수경. (2015). **한국어 외래어 교육 방안: 한국어 중급 우즈베키스탄 학습자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코밀로브 베크조드. (2019). **우즈베키스탄 근로자의 한국 입국 전후 한국어 습득 경험에 대한 내러티브 탐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허용, 강현화, 고명균, 김미옥, 김선정, 김재옥, 박동호. (2005).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학 개론**. 서울: 박이정.

허용, 김선정. (2013). **대조언어학**. 안양: 소통.

Abdurahmonov, X., Rafiyev, A., & Shodmonqulova, D. (1993). *O'zbek tilining amaliy grammatikasi*. Toshkent: O'qituvchi.

Abdurahmonov, G'. (1973). *O'zbek tilining tarixiy grammatikasi*. Toshkent: O'qituvchi.

Gaffarova, M. (2017). **한국어와 우즈베크어 관용어 대조 연구: '머리'와 '얼굴' 관련 신체 관용어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Hoshimov, G'. (1991a). *Qo'shma gaplar*. Toshkent: Fan.

Hoshimov, G'. (1991b). *O'zbek tili*. Toshkent: O'qituvchi.

Hujanazarova, N. (2019). **우즈베크인 한국어 학습자의 호칭어, 지칭어 사용 양상 연구**. 석사학위논문, 영남대학교.

Ismatullayev, X. (1991). *O'zbek tili*. Toshkent: O'qituvchi.

Lee, B. S. (2010). 우즈베키스탄 교육기관에서의 한국어. **한어문교육**, 23, 113-129.

Mahmudov, N., Nurmonov, A., & Sobirov, A. (2014). *O'zbek tili*. Toshkent: Tasvir.

Nam, V. (2006). 우즈베키스탄의 한국어교육. **어문논집**, 34, 63-76.

Rasulova, N., & Supiyeva, B. (2016). *Ona tilidan ma'ruzalar*. Toshkent: Navro'z.

Saparova, S. (2017). Виды сложных предложений с точки зрения функциональных отношений между его частями. *Молодой ученый*, 31, 92-93.

Sattorova, P. (2018). 우즈베키스탄 대학 한국어 전공 학습자 대상 한국어 문화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요구분석 연구.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Tursunov, U., Muxtorov, A., & Rahmatullayev, Sh. (1992). *Hozirgi o'zbek adabiy tili*. Toshkent: O'zbekiston.

Vakhabova, M. (2020). 한국어와 우즈베크어의 조어법 대조 연구. 석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G'ulomov, A., & Asqarova, M. (1965). *Hozirgi o'zbek adabiy tili*. Toshkent: O'qituvchi.

<교재>

고려대학교 한국어문화교육센터. (2009). 재미있는 한국어 1. 서울: 교보문고.

고려대학교 한국어문화교육센터. (2009). 재미있는 한국어 2. 서울: 교보문고.

고려대학교 한국어문화교육센터. (2009). 재미있는 한국어 3. 서울: 교보문고.

고려대학교 한국어문화교육센터. (2009). 재미있는 한국어 4. 서울: 교보문고.

<웹 사이트>

한국국제교류재단 통계센터:

<http://www.kf.or.kr/koreanstudies/koreaStudiesMap.do>

<부록 1> 우즈베크어·한국어 번역문 1

안녕하십니까?

먼저 실험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실험은 한국어와 우즈베크어의 복합문을 대조하기 위하여 계획된 것이며, 실험 결과는 제 박사학위 논문의 주제인 한국어와 우즈베크어의 복합문 대조 연구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아래에 제시된 우즈베크어의 예문을 한국어로 번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즈베크어 문장을 한국어로 번역할 때에는 한국어의 연결어미를 활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귀한 시간을 내주시고 실험에 협조해 주심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명대학교 대학원 글로벌한국어문화교육학과 아바소바
딜푸자 드림

■ 실험 참여자 정보

1. 나이: _세 성별: ☐ 남 / ☐ 여
2. 모어: ☐ 우즈베크어 / ☐ 러시아어 / ☐ 기타
3. 한국어 학습 기간: 년_월
4. 한국어 수준: TOPIK 급 / ☐ 기타

1. Men ashula aytdim, ukam raqsga tushdi.
2. Men TV ko‘rdim, do‘stim radio eshitdi.
3. Men yuvinaman, keyin nonushta qilaman.
4. U ertalab turib, maktabga ketdi.
5. Kamola kech uxlagani uchun maktabga kech qoldi.
6. Ob-havo sovuq bo‘lgani uchun kiyim kiyib ol.

7. Nodir pul olish uchun bankga bordi.
8. Koreys tili o'qituvchisi bo'lish uchun qattiq shug'ullanishi kerak.
9. Akam qaytdi, ammo ukam qaytmadi.
10. Men tushlik qildim, ammo hamon ochman.
11. Agar sen borsang, men ham boraman.
12. Institutga kirmoqchi bo'lsang qattiq shug'ullanish kerak.
13. U kelsa ham, men kuta olmasam kerak.
14. Biz samolyotga o'tirib Jeju oroliga boraylik.
15. Tuxumni qaynatib yeyish kerak.
16. Uning bo'yi baland yoki past, bu muhim emas.
17. U yoshligidan Amerikada yashagan.
18. Keyingi hafta konferensiya bo'ladi, adashmasam ishtirokchilar bo'lmaydi.

<부록 2> 우즈베크어·한국어 번역문 2

안녕하십니까?

먼저 실험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실험은 한국어와 우즈베크어의 복합문을 대조하기 위하여 계획된 것이며, 실험 결과는 제 박사학위 논문의 주제인 한국어와 우즈베크어의 복합문 대조 연구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아래에 제시된 우즈베크어의 예문을 한국어로 번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즈베크어 문장을 한국어로 번역할 때에는 한국어의 전성어미를 활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귀한 시간을 내주시고 실험에 협조해 주심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명대학교 대학원 글로벌한국어문화교육학과 아바소바
딜푸자 드림

■ 실험 참여자 정보

1. 나이: _세 성별: ☐ 남 / ☐ 여
2. 모어: ☐ 우즈베크어 / ☐ 러시아어 / ☐ 기타
3. 한국어 학습 기간: 년_월
4. 한국어 수준: TOPIK 급 / ☐ 기타

1. Avval sen salomlashsang to'g'ri bo'ladi.
2. Cholsu yaxshi universitetga kirishi aniq edi.
3. Men, Sizlar baxtli bo'lishingizni tilayman.
4. Olya matematika fanini o'rganishni yoqtiradi.
5. Sen imtihondan o'tishingni bilmagan edim.
6. Bu narsa men xohlayotgan narsa emas.

7. Ana u yerda serial ko'rayotgan odam- mening onam.
8. Ana u yerda kitob o'qiyotgan odam- mening ukam.
9. Bu kitob o'tgan hafta sotib olgan kitobim.
10. Bir oz avval yegan kimbap juda shirin edi.
11. Dam olish kunida biz borayotgan joyimiz- Seul.
12. Men o'qimoqchi bo'lgan kitobni akam olib ketdi.
13. Notiqlik san'ati tanloviga ko'p talabalar keldi.
14. Men chiroyli gulni yoqtiraman.
15. O'tgan yili bo'yi kichik bo'lgan bolaning bo'yi o'sdi.
16. Osoyishta bo'lgan maktab dars boshlanishi tufayli shovqinga aylandi.
17. Mening oyligim sening oyligingga qaraganda kam bo'lsa kerak.
18. Ertaga ob-havo iliq bo'lsa kerak.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Complex Sentences in Uzbek-Korean Translations

Abbasova Dilfuza

Department of Global Korean Language and Culture

Education

Graduate School

Keimyung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essor Kim, Seon Jung)

(Abstract)

The aim of this study is to compare and contrast the types and formation methods of complex sentences in Korean and Uzbek, and to examine the characteristics of Korean complex sentences in Uzbek-Korean translations of Uzbek Korean learners. For this reason, we performed an analysis of Uzbek-Korean sentences written by 130 learners of Korean at universities in Uzbekistan.

Firstly, the results of the comparison and contrast of the types and formation methods of complex sentences in Korean and Uzbek are as follows. Uzbek and Korean, two agglutinative languages belonging to the Altaic family, do not differ much when it comes to macroscopic aspects, such as the sentence formation method or the constituent order. However, there is a difference in the sentence categorisation method and the complex sentence formation method. Korean grammar divides sentences into simple and complex, and complex sentences are then sorted into conjunctive sentences, where two equal sentences are joined together, and into embedded sentences, where one

sentence includes the other as one of its constituents. On the contrary, Uzbek grammar splits sentences into simple, complex simple, and complex. Complex simple sentences are similar to Korean embedded sentences in that one sentence is included in the other as its constituent, but in Uzbek they are in fact classified as simple sentences rather than complex sentences. While Korean requires the use of conjunctive endings in order to create conjunctive sentences, Uzbek allows characters like comma (,) or dash (-) to be used to connect two sentences in addition to using endings. Yet, in the case of sentences connected with an ending, those with identical subjects are classified as simple, and those with different subjects as complex. Embedded sentences in both languages are created with noun transformative endings formed with ‘subject + prediate’, and adnominal transformative endings (or adjectival verb endings in Uzbek). Noun clauses in Korean are formed with either the noun transformative endings ‘-(으)ㄴ’ or ‘-기’, or the ‘adnominal transformative ending + 것’ added to the predicate. In the case of the noun transformative ending ‘-(으)ㄴ’, ‘-은’ is used when the predicate ends with a consonant, and ‘-ㄴ’ when it ends with a vowel. Adnominal transformative endings form adnominal clauses, and their form is dependent on the predicate’s part of speech, tense, and phonology. Namely, the form changes depending on whether the predicate is a verb or an adjective, and also whether the tense is present or future. Moreover, whether the stem ends with a vowel or a consonant also has impact on choosing the adnominal transformative ending. In Uzbek, the noun ending (harakat nomi) ‘-(i)sh’ becomes ‘-ish’ when the

predicate ends with a consonant, and ‘sh’ when it ends with a vowel. Adjective verb endings (sifatdosh) have the same function as adnominal endings in Korean, i.e. they connect with verbs and become ‘-gan (past), -(a)yotgan (present), and -(a)digan (future)’ depending on the tense. However, in the case of present, ‘-ayotgan’ is used when the predicate ends with a consonant, and ‘-yotgan’ when it ends with a vowel.

Next, we can summarise the characteristics of Korean conjunctive and embedded sentences in Uzbek-Korean translations as follows. We discovered that the intermediate Uzbek Korean learners in comparison to the beginner learners used more conjunctive endings, and they were also better at forming complex sentences. It was characteristic for the beginner learners that they were unable to use conjunctive endings to expand sentences, and that their sentences were limited to simple ones. The most used conjunctive endings by the beginner learners were the time-related ‘-고’, the contrast-related ‘-지만’, and the condition-related ‘-(으)면’. On the other hand, the background-related ‘-아서/어서’ was not used at all, and the enumerative-parallel-related ‘-(으)며’ and the contrast-related ‘-(으)나’ were used extremely rarely. In the case of the intermediate learners, the most used conjunctive ending was the contrast-related ‘-지만’, the enumerative-parallel-related ‘-고’, and the time-related ‘-고’. Similarly to the beginner learners, there were almost no cases of the background-related ‘-아서/어서’, and the enumerative-parallel-related ‘-(으)며’ and the contrast-related ‘-(으)나’ were very rare. When it comes to using line endings, the most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beginner- and intermediate-level learners was the usage of the enumerative-parallel-related ‘-고’, the means-method-related ‘-아서/어서’, and the reason-related ‘-아서/어서’. If we examine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conjunctive endings displayed in the translated sentences of the beginner and intermediate Uzbek Korean learners, we can see that the learners preferred to repeatedly use and translate the endings that were familiar to them instead of trying to use and translate more diverse endings.

The characteristics of embedded sentences displayed in the Uzbek-Korean translations by the beginner- and intermediate-level Uzbek Korean learners are as follows. There were absolutely no cases of using the noun transformative ending ‘-(으)ㄴ’ to form sentences. In addition, many more learners used ‘(으)ㄴ/는 것’ rather than ‘-기’ in order to form noun clauses. The intermediate learners used more transformative endings than the beginner learners. In particular, in the case of the transformative ending ‘-기’, there was little usage of it at the beginner level, yet its usage doubled at the intermediate level. As for the adnominal transformative endings, almost all of them were widely used, with the exception of ‘-던’.

We confirmed that the Uzbek learners had more difficulties in using conjunctive endings than transformative endings. This is likely due to the fact that conjunctive endings are rich in semantic categories, there is a large number of them in each of the categories, and their usage is limited in many ways. Furthermore, the variety of methods to form conjunctive sentences in Uzbek likely interfered in their learning of Korean.

This study compared and contrasted the types and formation methods of complex sentences in Korean and Uzbek, which then allowed us to better understand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the two languages. Moreover, we examined the characteristics of Korean complex sentences in Uzbek–Korean translations by Uzbek Korean learners. On that basis, we were able to grasp the characteristics of the complex sentence learning process by Uzbek learners.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lies in the fact that it is the first attempt to contrast complex sentences in Korean and Uzbek. Furthermore, the study is not limited only to contrasting complex sentences, but it also analyses translated sentences by beginner- and intermediate-level learners of the two languages, which has a significant meaning in terms of empirically analys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learners' language. We hope that the results of this study will provide baseline data for future Korean education for Uzbek learners of the language.

우즈베크어·한국어 번역에 나타난 복합문의 특성 연구

아바소바 딜푸자
계명대학교 대학원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학과
지도교수 김 선 정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어와 우즈베크어의 복합문의 유형과 구성 방식에 대해 비교·대조하고, 우즈베키스탄인 학습자의 우즈베크어·한국어 번역에 나타난 한국어 복합문의 특징을 살펴보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우즈베키스탄 현지 대학에서 한국어를 전공하고 있는 130명의 학생들에게 의뢰하여 수집한 우즈베크어·한국어 문장을 분석하였다.

먼저 한국어와 우즈베크어의 복합문의 유형과 구성 방식을 비교·대조한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우즈베크어와 한국어는 알타이어족에 속하는 교착어이므로 문장을 구성하는 방법이나 구성성분의 순서 등 거시적인 통사적 측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지만, 문장을 분류하는 방법과 복합문을 구성하는 방식 등에서는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한국어 문법에서는 문장을 단문과 복합문으로 나누고, 복합문은 다시 두 문장이 나란히 이어져 있는 접속문과 어떤 문장이 다른 문장 속의 한 성분으로 들어가 안긴 내포문으로 분류한다. 이에 반해, 우즈베크어 문법에서는 문장을 단문과 복합 단문, 복합문으로 나눈다. 복합 단문은 한국어의 내포문과 같이 어떤 문장이 다른 문장 속에 한 성분으로 들어가 있는 문장을 포함하고 있는 문장으로 복합문이 아닌 단문으로 분류한다. 한국어에서는 연결어미를 사용해야만 접속문을 만들 수 있으나 우즈베크어에서는 어미뿐만 아니라 접속사나 쉼표(,), 대쉬(-) 등을 활용해서도 두 문장을 연

결합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다만, 어미로 두 문장을 연결할 경우 앞뒤 문장의 주어가 같으면 단문으로 분류하고, 다르면 복합문으로 분류한다. 내포문의 경우에는 두 언어 모두에서 ‘주어 + 서술어’를 명사의 기능을 하게 하는 명사형 전성어미와 뒤에 오는 명사를 수식하게 하는 관형사형 전성어미(우즈베크어의 경우, 형동사형 전성어미)를 활용하여 만든다. 한국어의 명사절은 용언에 명사형 전성어미 ‘-(으)ㄴ’이나 ‘-기’ 또는 ‘관형사형 전성어미 + 것’을 더하여 형성한다. 명사형 전성어미 ‘-(으)ㄴ’은 결합하는 용언에 받침이 있으면 ‘-음’을 사용하고, 받침이 없으면 ‘-ㄴ’을 사용한다. 관형절을 만드는 관형사형 전성어미는 결합하는 용언의 품사와 시제, 음운 정보에 따라 형태가 달라진다. 즉, 용언이 동사인지 형용사인지에 따라 어미의 형태가 다르고, 시제가 과거, 현재, 미래인지에 따라 어미의 형태가 다르다. 또한, 어간이 모음으로 끝나는지 자음으로 끝나는지도 관형사형 전성어미의 선택에 영향을 준다. 우즈베크어의 명사형 어미(harakat nomi)는 ‘-(i)sh’인데 결합하는 용언이 자음으로 끝나면 ‘-ish’를 사용하고, 모음으로 끝나면 ‘sh’를 사용한다. 한국어의 관형사형 어미의 기능을 하는 형동사형 어미(sifatdosh)는 동사와 결합하는데 시제에 따라 ‘-gan(과거), -(a)yotgan(현재), -(a)digan(미래)’를 사용한다. 다만, 현재의 경우 결합하는 용언이 자음으로 끝나는지 모음으로 끝나는지에 따라 ‘-ayotgan’과 ‘-yotgan’을 선택하여 사용한다.

다음으로 우즈베크어·한국어 번역에 나타난 한국어 접속문과 내포문에 나타난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즈베크어·한국어 중급 학습자들이 초급 학습자들보다 사용한 연결어미의 수도 많고, 복합문도 잘 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어 숙달도가 낮은 초급 학습자들은 연결어미를 사용하여 문장을 확대하지 못하고 단문을 생성하는 데 그치는 특징이 있었다. 초급의 경우 사용 수가 가장 많은 연결어미는 시간 관계의 ‘-고’, 대조 관계의 ‘-지만’, 조건 관계의 ‘-(으)면’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에 반해, 배경 관계의 ‘-아서/어서’는 전혀 사

용하지 않았고, 나열·병렬 관계의 ‘-(으)며’와 대조 관계의 ‘-(으)나’의 경우에도 사용 수가 극히 낮았다. 중급의 경우 사용 수가 가장 많은 연결어미는 대조 관계의 ‘-지만’, 나열·병렬 관계의 ‘-고’, 시간 관계의 ‘-고’ 순으로 높게 나타났고, 초급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배경 관계의 ‘-아서/어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았고, 나열·병렬 관계의 ‘-(으)며’와 대조 관계의 ‘-(으)나’의 경우에도 사용 수가 극히 낮았다. 연결어미의 사용에서 초급과 중급에서 가장 차이가 나는 어미는 나열·병렬 관계의 ‘-고’와 수단·방식 관계의 ‘-아서/어서’, 이유 관계의 ‘-아서/어서’ 순이었다. 우즈베키스탄인 학습자의 초·중급 한국어 번역 문장에 나타난 연결어미에 관한 전체적인 특징을 살펴보면 다양한 연결어미를 사용하여 번역하지 않고 익숙한 연결어미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번역하였다는 특징이 있었다.

우즈베키스탄인 초·중급 학습자들의 우즈베크어·한국어 번역에 나타난 내포문의 특징을 보면, 명사형 전성어미 ‘-(으)□’을 사용하여 문장을 구성한 학습자가 전혀 없었다. 또한 ‘-기’ 보다는 ‘(으)ㄴ/는 것’을 사용하여 명사절을 만드는 학습자가 훨씬 더 많음을 알 수 있다. 중급이 초급보다 전성어미의 사용 수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초급단계에서는 많이 사용하지 않은 전성어미 ‘-기’의 경우 중급단계에서는 그 사용 수치가 두 배 이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형사형 전성어미의 경우에는 ‘-던’을 제외하고 다른 어미는 활발하게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즈베키스탄인 학습자의 경우 전성어미의 사용보다 연결어미의 사용에서 더 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아마도 연결어미의 의미 범주가 다양하고, 의미 범주별로도 연결어미의 수가 많고, 사용에서도 많은 제약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게다가 우즈베크어에서 접속문을 만드는 방법이 다양하여 한국어 학습에 간섭을 일으켰기 때문으로 보인다.

본 연구를 통해 한국어와 우즈베크어의 복합문의 유형과 구성 방식에 대해 비교·대조함으로써 양 언어의 공통점과 차이점

을 파악할 수 있었다. 또한 우즈베키스탄인 학습자의 우즈베크어·한국어 번역에 나타난 한국어 복합문의 특징을 살펴봄으로써 우즈베키스탄 학습자의 복합문 습득 과정에 나타난 특징을 파악해볼 수 있었다. 본 연구는 한국어와 우즈베크어의 복합문 대조에 관해 처음 시도된 연구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또한 한국어와 우즈베크어의 복합문 대조에 머무르지 않고, 초·중급 학습자들의 우즈베크어·한국어의 번역 문장을 분석함으로써 학습자 언어의 특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본 연구 결과가 우즈베키스탄인 한국어 학습자들이 한국어를 배우는 데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목차

1. 서론	4
1.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4
1.2 선행 연구 검토	8
1.2.1 한국어 복합문에 관한 연구	9
1.2.2 우즈베크어 복합문에 관한 연구	14
1.2.3 한국 내 우즈베크어에 관한 연구	16
2. 이론적 배경	24
2.1 대조언어학	24
2.2 한국어와 우즈베크어의 문장구성법 대조.....	27
2.3 한국어와 우즈베크어의 문장 확대	41
2.3.1 한국어의 문장 체계와 복합문의 구조 및 종류.....	41
2.3.2 우즈베크어의 문장 체계와 복합문의 구조 및 종류	48
2.4 한국어와 우즈베크어의 문장 분류 대조.....	55
3. 한국어와 우즈베크어의 접속문 대조.....	57
3.1. 한국어의 접속문	57
3.2 우즈베크어의 접속문	64
4. 한국어의 내포문에 대응하는 우즈베크어 문장 대조.....	73
4.1 한국어의 내포문	74
4.2 우즈베크어의 복합 단문.....	77
5. 우즈베크어·한국어 번역에 나타난 접속문 특성 연구.....	84
5.1 우즈베크어·한국어 번역에 나타난 연결어미 사용 수	84

5.2 우즈베크어·한국어 번역에 나타난 접속문의 특성 분석	89
5.2.1 나열·병렬 관계의 연결어미	89
5.2.2 시간 관계의 연결어미	93
5.2.3 이유 관계의 연결어미	96
5.2.4 목적·의도 관계의 연결어미	98
5.2.5 대조 관계의 연결어미	101
5.2.6 조건 관계의 연결어미	102
5.2.7 가정·인정 관계의 연결어미	104
5.2.8 수단·방식 관계의 연결어미	105
5.2.9 선택 관계의 연결어미	108
5.2.10 배경 관계의 연결어미	108
6. 우즈베크어·한국어 번역에 나타난 내포문(복합 단문) 특성 연구	112
6.1 우즈베크어·한국어 번역에 나타난 전성어미 사용 수	112
6.2 우즈베크어·한국어 번역에 나타난 내포문(복합 단문) 의 특성 분석	118
6.2.1 명사형 전성어미	118
6.2.2 관형사형 전성어미	123
7. 결 론	133
참고문헌	138
<부록 1> 우즈베크어·한국어 번역문 1	145
<부록 2> 우즈베크어·한국어 번역문 2	148

ABBASOVA DILFUZA KARIMBEK QIZI

узбекче·корее бичеве натаран бухавунинин теувин теувун

Monografiya

Muharrir

Badiiy muharrir

Sahifalovchi

Kim Seon Jung

D. Mulla-Axunov

G. Ahmedova

Noshirlik faoliyati to'g'risidagi xabarnoma
6.11.2023 yil qabul qilingan, tasdiqnoma № 156149.

Bosishga 2023-yil 19-yanvarda ruxsat etildi.

Bichimi 60x84 $\frac{1}{16}$. Shartli bosma tabog'i 8,37.

Adadi 30 nusxa. Buyurtma raqami № 114/Sh-24.

“Donishmand ziyosi” nashriyotida nashrga tayyorlandi
va matbaa bo'limida chop etildi.

Toshkent shahri, Navoiy ko'chasi, 30-uy.